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백선혜 라도삼 조윤정

Policy Suggestions for Invigorating Living Cultural Art Clubs in Seoul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백선혜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라도삼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조윤정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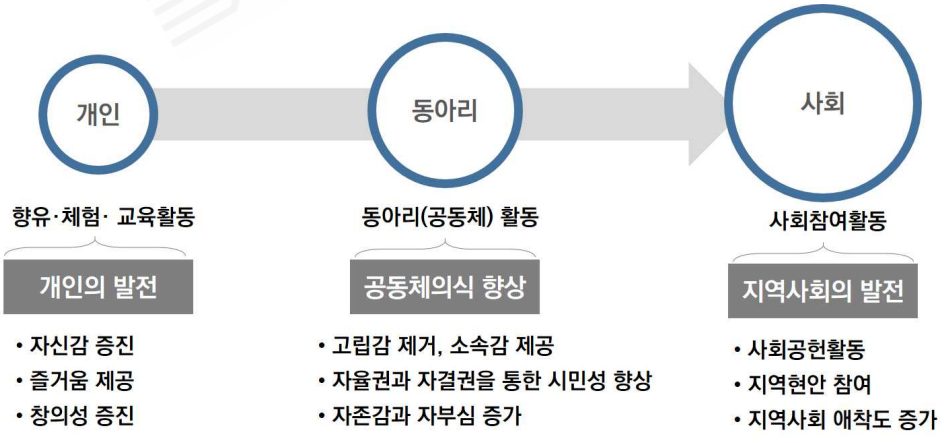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자생기반 강화·활동환경 조성 등 3대 축으로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해야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개인보다 문화 재생산 차원서 접근 필요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에서 시민을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적극적 문화생산자로 인식하는 생활문화정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정책의 주요 초점 중 하나가 동아리 활성화이다. 서울시민의 문화예술동아리 참여율이 2008년 2.6%에서 2014년 5.8%로 증가하였으며, 서울문화재단 패널의 동아리 참여욕구가 49%에 이르는 등 시민의 동아리 활동 참여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삶의 행복감을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확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나 사회적 관계 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임을 생각하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는 개인활동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 재생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는 자연히 전문예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결되어 예술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창의문화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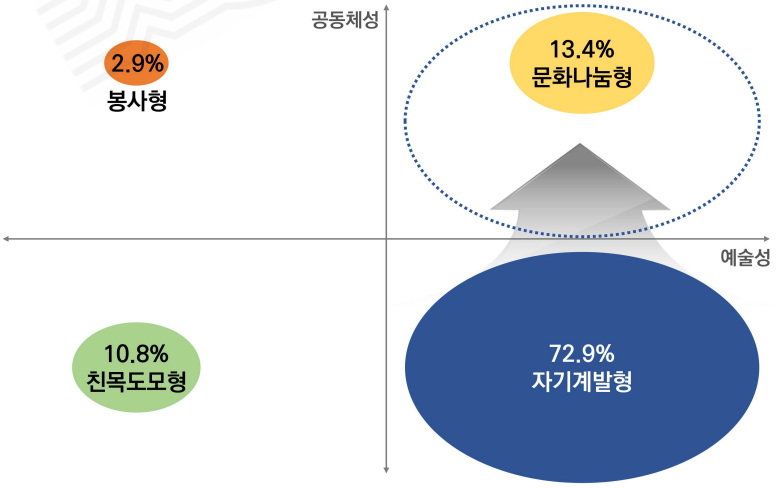


[그림 1]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참여의 효과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자기계발형 압도적… 문화나눔형 지향경향

생활문화예술의 속성인 예술성과 지역공동체성을 기준으로 동아리 활동 유형을 나눠보면, 예술성(학습, 발표)과 공동체성(교류, 사회공헌) 지향 여부에 따라 문화나눔형, 자기계발형, 친목도모형, 봉사형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문화나눔형은 예술적 관심이 높고 예술이 사회참여의 형태로 발현되는 유형이며, 자기계발형은 예술을 통한 자기성취욕구가 높으나 취미공동체로 머무르는 특성이 있다. 친목도모형은 예술적 관심이 친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봉사형은 예술적 관심이 낮으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형이다.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경우 학습과 발표활동 중심의 '자기계발형'이 72.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문화예술학습과 발표욕구가 높고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성취감 고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다. 그런데 동아리 참여자의 설문조사 결과, 자기계발형에 해당하는 동아리들이 사회공헌 활동 욕구가 높은 문화나눔형을 지향하는 경향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즉, 사회공헌 활동 활발도가 2.39점에 불과한 자기계발형에서 사회공헌 활동 의지가 4.1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다(5점 만점 기준). 이러한 욕구는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동아리들과의 교류활동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류활동이 성장의 계기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유형

생활문화예술동아리에 사회공헌 관련 정보·연결 플랫폼 제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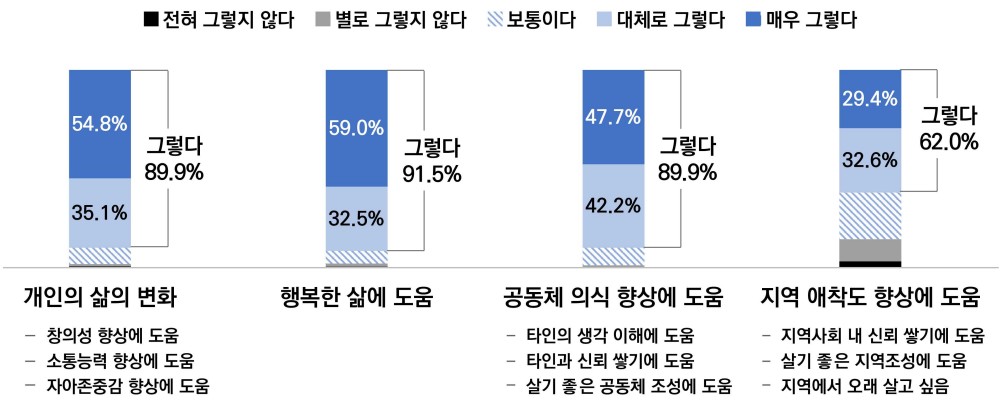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사회공헌 활동과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활동별 장애요인을 통해 알 수 있다. 사회공헌 활동 장애요인으로는 '활동시간대가 맞지 않음(1순위)', '방법 및 장소에 대한 정보부족(2순위)', '비용부담(3순위)'으로 나타났고, 네트워크 활동 장애요인은 '만날 기회 부족(1순위)', '비용부담(2순위)', '시간적 여유 없음(3순위)'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사회공헌과 네트워크 활동은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방법은 사회공헌과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성을 가진 동아리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정보와 연결 플랫폼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활동 계기를 마련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동아리활동 참여자 대부분 "개인발전·공동체의식 향상에 도움 된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88명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발전 및 공동체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창의성', '소통능력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9.9%를 차지했으며,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역시 91.5%로 매우 높다. 또한 공동체의식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타인의 생각이해', '타인과 신뢰 쌓기',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9.9%를 차지하였다. 다만 '지역애착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고(1순위)', '기존 회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2순위)' 활동을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림 3]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개인-공동체-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민간 중심 상향식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으로 문화공동체 형성 바람직

개별 동아리는 개인적 활동영역이므로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며, 동아리 활동비 보조와 같은 직접 지원이 오히려 자생성을 저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리 지원은 개별 동아리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동아리 활동기반 조성과 관련된 간접 지원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할지 말지의 여부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동아리 활동으로 활성화되는 공동체는 공공정책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리 지원정책은 문화공동체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실태와 욕구 조사에 기초하여 동아리 활동을 촉진하고 참여를 확대하되, 개별 동아리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아니라, 동아리의 활동기반 구축 및 동아리 간 관계, 즉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에 기초하는 전략적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리 네트워크는 동아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공유과정을 통해 개별 동아리의 발전과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형성이 항상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 대표자의 성향과 운영방식에 따라 권력집단화되거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부문에 의해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지속성을 갖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하향식 네트워크 구축은 참여 동아리의 성향과 지역 특성에 따라 구축과정 및 성장단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기계적 네트워크에 그치기 쉽다.

따라서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은 동아리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역별 현황을 고려한 단계별 성장과정이 필요하다. 공공영역은 지역의 동아리들이 서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며, 동아리 참여자들이 스스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자발적인 상향식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동아리 공공지원시스템 구축 등으로 '문화로 행복한 생활문화도시' 조성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는 서울시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생활문화공동체는 문화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말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감을 제고하고 생활문화예술생태계를 구축하며,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루게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화로 행복한 생활문화도시 조성>을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동아리 실태와 욕구조사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촉진 및 참여 확대,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활성화 등의 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동아리 지원의 원칙으로 자생성, 간접지원,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자생적 기반 강화', '동아리의 활동 환경 조성', '공공지원시스템 구축' 등 3대 추진방향 및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리의 자생성 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동아리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스템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아리의 개별 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동아리와 동아리를 연결하는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유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매개자 양성, 공유플랫폼 구축, 서울시 생활문화축제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동아리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동아리의 활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동아리 조사에 따르면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는 공간 및 장비 등에 대한 요구가 핵심적이므로, 동아리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 인프라를 지속 발굴하고 공간 및 장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민생활문화예술공간 지원,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 '동아리발표주간' 등 발표공간 확대, 장비공유창고 운영 등이 있다.

셋째, 동아리 자생성 기반 강화 및 활동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생활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밀착형 활동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적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시는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고 자치구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5개 구를 엮는 생활문화축제 개최,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네트워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매개인력양성 기반구축 등의 역할이 그것이다. 자치구는 생활권 단위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발굴 및 활동 지원을 수행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으로는 공간 및 장비 공유, 자치구 내 소규모 발표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자치구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 생활문화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이 있다.

[그림 4]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추진계획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4

02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의 필요성 8

1_생활문화예술이 문화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 8

2_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역할 15

3_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유형과 특성 20

03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례 26

1_국내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례 26

2_국외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례 48

3_소결 65

04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운영실태와 욕구 72

1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기본운영 현황 72

2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인식과 욕구 83

3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인식과 욕구 심층인터뷰 103

4_소결 130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05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136
1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기본방향 136
2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141

참고문헌 155
부록 158
Abstract 169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표

[표 1-1] 생활문화 개념의 장르범위 4
[표 2-1] 서울시 내 문화예술동호회 참여율 12
[표 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문화 관련 조례 14
[표 2-3]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유형별 특성 20
[표 2-4] 동호회 참여 수준 및 유입 경로에 따른 유형 구분 21
[표 2-5]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조합으로 본 동아리 유형 구분 22
[표 2-6] 동아리 유형 구분 23
[표 3-1] 서울시 생활문화지원 관련 정책 26
[표 3-2]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관련 사업(2015년 기준) 27
[표 3-3] 2013~2015년 시민예술가 육성지원 사업내용 및 성과 28
[표 3-4] 2015년 좋아서-예술동아리 사업내용 31
[표 3-5] 2014~2015년 좋아서-예술동아리 추진성과 32
[표 3-6] 2014~2016년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 참가 단체 수 34
[표 3-7]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36
[표 3-8] 전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구성 38
[표 3-9] 2016 전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공모 지원내용 39
[표 3-10] 2016 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공모 지원내용 39
[표 3-11] 전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조직 구성 및 기능 41
[표 3-12] 경기문화포털 매생이 미션·비전 및 구성 46
[표 3-13]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단 순회파견사업' 지원내용 47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표 3-14] VAN의 비전, 쟁점 및 전략 체계 49
[표 3-15] VAN 각 조직 구성원과 역할 51
[표 3-16] VAN의 프로젝트 52
[표 3-17] 자발적 예술 주간 참여의 필요성 53
[표 3-18] 자발적 예술 주간의 활동내용 54
[표 3-19] VAN이 제공하는 자료 55
[표 3-20]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설립 시 시민과 단체들의 요구 57
[표 3-21]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운영 방침과 방향성 58
[표 3-22]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이용자 현황 60
[표 3-23]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역할구성 61
[표 3-24]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공간구성 및 기능 63
[표 3-25] 생활문화에서 매개자 역할 65
[표 4-1]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실태조사 개요 72
[표 4-2] 서울시 공공기관 기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연령별 모임 공간 76
[표 4-3] 동아리 유형별 비율 81
[표 4-4]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유형 구분 83
[표 4-5]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실태조사 조사내용 84
[표 4-6]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85
[표 4-7] 동아리 유형별 응답자 수 85
[표 4-8]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유형별 응답자 연령 86
[표 4-9]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응답자 특성 87
[표 4-10] 동아리 활동내용별 활발도 90
[표 4-11] 동아리 활동내용별 중요도 92
[표 4-12] 동아리 유형별 응답자 수 92
[표 4-13] 동아리 유형별 사회공헌 활동 활발도 및 의지 94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표 4-14] 2015 서울시 자원봉사 활동참여율 95
[표 4-15] 문화자원봉사 활동경험 여부 95
[표 4-16] 동아리 유형별 타 단체와의 네트워크 활동 활발도 및 활동 의지 96
[표 4-17] 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발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98
[표 4-18] 동아리 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00
[표 4-19] 동아리 활동이 지역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02
[표 4-20]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심층면담 질문지 구성 103
[표 4-21]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심층면담 대상자 구성 104
[표 4-22]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학습활동 방식 111
[표 4-23]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예술 장르별 학습활동 방식 113
[표 4-24]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발표·전시활동 방식 115
[표 4-25]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네트워크 형태 118
[표 4-26]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네트워크 방식 118
[표 4-27]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기본운영 현황 131
[표 4-28] 동아리 활동이 '개인-공동체-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 132
[표 4-29] 동아리 유형별 사회공헌 활동 활발도 및 의지 133

그림

[그림 2-1] 서울시 문화시설 증가 추이 9
[그림 2-2] 서울시민 문화환경 만족도 10
[그림 2-3] 서울시 문화고관여자의 향후 동호회 참여 의향 12
[그림 2-4] 생활문화예술의 속성 13
[그림 2-5]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여부와 행복도 비교 15
[그림 2-6] 직장인의 동호회 가입 여부에 따른 행복도 차이 16
[그림 2-7]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참여의 효과 18
[그림 2-8] 생활문화예술동아리와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19
[그림 3-1] 2016 시민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29
[그림 3-2] 2016년 좋아서-예술동아리 사업구성 32
[그림 3-3] 2014년 제1회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 33
[그림 3-4]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운동 35
[그림 3-5]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비전과 목표 37
[그림 3-6]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조직 42
[그림 3-7] 전라북도 시·군별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조직 42
[그림 3-8] 경기문화재단 경기생활문화포털 '매생이' 46
[그림 3-9] VAN 조직체계 50
[그림 3-10]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조직도 60
[그림 3-11]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평면도 62
[그림 4-1]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분야 73

[그림 4-2]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주 연령층 74
[그림 4-3]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모임장소 75
[그림 4-4]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모임장소 중 문화시설 사용현황 75
[그림 4-5]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회원규모 77
[그림 4-6]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패널(문화 고관여자) 온라인 조사 동아리 회원규모 77
[그림 4-7]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모임주기 78
[그림 4-8]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설립시기 78
[그림 4-9]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월 회비금액 79
[그림 4-10]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온라인 활동 80
[그림 4-11]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내용 80
[그림 4-12]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내용 유형 81
[그림 4-13]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요구 82
[그림 4-14]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결성계기 87
[그림 4-15]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유형별 결성계기 88
[그림 4-16] 동아리 활동 지속요인 89
[그림 4-17] 동아리 활동내용별 활발도 90
[그림 4-18] 동아리 활동내용별 중요도 91
[그림 4-19] 동아리 활동내용 활발도 기준 동아리 유형분류 93
[그림 4-20] 사회공헌 활동 의지 93
[그림 4-21] 사회공헌 활동 시 장애요인 94
[그림 4-22] 네트워크(교류) 활동 필요성 96
[그림 4-23] 네트워크(교류) 활동 장애요인 97
[그림 4-24]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99
[그림 4-25]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공동체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01
[그림 4-26]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지역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02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그림 4-27]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유형별 비율 133
[그림 5-1] OECD 주요국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수준(2015년 기준) 137
[그림 5-2]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정책의 목표 139
[그림 5-3]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과제 140
[그림 5-4] 서울시 지역기반 동아리 발전모델 150
[그림 5-5]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152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01 |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생활문화예술이 문화정책의 중요 영역으로 등장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제1조). 이는 지역문화진흥법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약 10여 년 만의 성과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에 대한 강조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문화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문화시설 확충으로 국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여 문화향유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도서관 등 문화서비스시설 제공에 힘을 기울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 문화시설이 급속히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이 시민의 문화향수율 제고와 직접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서베이의 문화관람률 조사자료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 서울시민의 미술전시회 관람률이나 공연 관람률은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1].

이와 같은 문제점은 시민을 문화소비의 수동적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능동적으로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한다.

---

1) 미술전시회 관람률은 2005년 11.3%에서 2010년 10.3%로, 동 기간 공연 관람률은 13.3%에서 12.1%로 오히려 감소 경향을 보인다. 2012년 이후에는 분류항목이 일부 수정되어 직접 시계열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연극·뮤지컬 관람률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2) 생활문화진흥의 기본 단위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에 주목

<지역문화진흥법> 이후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문화진흥과 관련된 조례를 수립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화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역시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 준비 및 생활문화도시 기본계획(2016년 10월 발표) 수립 등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생활문화진흥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을 살펴보면, 생활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범주들 가운데 특히 문화예술단체나 동아리를 지원의 기본 단위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생활문화정책이 단순히 개인 차원의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장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의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생활문화가 생활권 범위 내에서 사회생활의 영위와 함께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조광호, 2015: 105)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리가 생활문화정책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동아리의 기본 속성에 기인한다. 동아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개인의 가입과 활동에 의한 자아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개인적 속성과 조직의 일원으로서 규범 준수와 회원 간 상호작용이라는 사회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조현성, 2012: 10~11). 따라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은 생활권 내에서 동일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을 익히고, 이것이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영국에서 결성된 VAN(Voluntary Arts Network)은 일반인들의 예술 활동을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이것이 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행복의 자원일 뿐만 아니라 시민적 덕성을 양성하는 민주주의의 자원이며, 예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복지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심보선, 2011: 11). 그들의 활동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생활문화진흥이 문화정책의 중요 목표가 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가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활성화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지원했다가 동아리 고유의 자발성이 없어지고 공공에 대한 의존성만 키우는 사례들도 자주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리의 자발성과 자생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활성화를 꾀하고, 이것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활동실태와 욕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의 활동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동아리의 자생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성화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 정책영역에서는 생활문화, 생활예술, 생활문화예술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조광호(2014: 112)는 생활문화를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생활기타'로 범주화하였다([표 1-1] 참고).

[표 1-1] 생활문화 개념의 장르범위

장르범위	내용
생활예술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예술 장르[2]에 해당하는 계열의 문화활동 분야
생활기술	예술에 속하지 않는 장르로서 일상생활과 함께 동시에 자기개발, 여가, 취미 등의 목적으로 향유하는 사회적 문화활동 분야
생활교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교류 및 매개와 사회공헌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사회활동 분야
생활기타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문화활동 분야

출처: 조광호, 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12.

---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이 연구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범위를 '생활예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에서 '생활문화예술'이란 소수의 직업적 엘리트에 의해 독점된 예술이 아니라 시민(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을 말하며, 동아리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한다. 즉 생활문화예술동아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같은 취미를 즐기기 위해 주체적·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으로, 공유하는 취미가 문화예술인 것을 의미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화정책에서 생활문화정책이 부상하게 된 흐름과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또한 생활문화예술의 속성인 예술성과 공동체성을 기준으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유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외 생활문화예술 지원정책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사례의 경우 먼저 서울시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광역차원에서 생활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전라북도와 경기문화재단 사례를 살펴보았다. 조사를 위해 각 사례 담당자 및 지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서면자문을 진행하였다. 국외 사례의 경우 생활문화정책에서 대표적 선진사례로 꼽히고 있는 영국의 자발적 예술 네트워크(Voluntary Arts Network)와 자발적 예술 주간 축제(Voluntary Arts week),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사례를 살펴보았다.

셋째,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기본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시 내 공공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활동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서울시의 협조를 통해 자치구별 조사담당자를 선정하고(서울시 문예지기 및 각 자치구 문화예술 담당공무원) 조사항목 및 조사기준을 배포하여 자치구별 자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하였다.

넷째, 동아리 참여자들의 욕구 및 동아리 활동이 '개인-공동체-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앞서 진행한 실태조사가 공공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한 동아리라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중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와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사방법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문화원, 마을예술창작소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동아리 참여자와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밴드 등 온라인 및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을 통해 '지역기반 동아리'와 '非 지역기반 동아리'의 구분기준을 설명하고,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16년 8월 26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하였다.

다섯째,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구체적 활동실태 및 지원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대상자 선정은 설문에서 동아리를 나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즉, 조사대상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와 지역과 상관없이 장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동아리의 운영진 및 강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동아리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2개의 자치구를 선정하여 자치구 내 문화재단으로부터 동아리를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동아리 면담조사와 별도로 지역 내 동아리 지원 사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재단에서 동아리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非 지역기반(장르기반) 동아리의 경우 6개의 장르(무용, 연극, 뮤지컬, 음악, 사진, 미술)로 구분하여 온라인 카페 검색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를 선정하였다. 면담조사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

여섯째, 생활문화정책 지원 사례 및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동아리 운영 실태와 욕구를 바탕으로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02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의 필요성

1_생활문화예술이 문화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

2_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역할

3_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유형과 특성

02 |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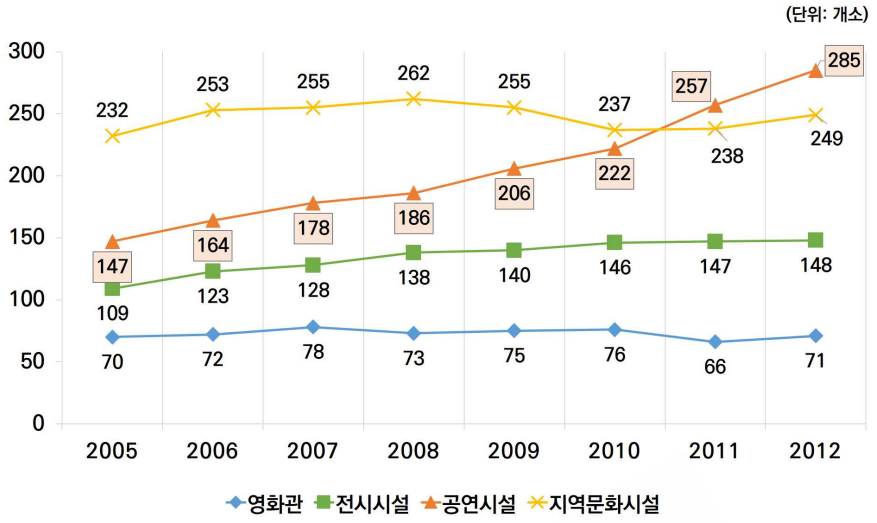
1_생활문화예술이 문화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

1) 문화시설 확충 중심 문화정책의 한계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문화복지적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 문화복지 증진을 표명한 제5공화국은 1984년 「지방문화중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 인프라 확충'을 국정지표로 삼고 문화시설들을 건립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문화창달 5개년 계획(1993~1997)」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 문화 인프라의 확충이 본격화되었다(서울문화재단, 2014a: 28). 국가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강조하는 이러한 기조는 1996년 '문화복지를 개막하는 해'를 선포한 문민정부나, 1998년 '문화예산 1%'를 주창하며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정책을 내놓았던 국민의 정부까지 일관되게 찾아볼 수 있다(박승현, 2016: 32).

1990년대 후반 이후 문화정책 전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의 발전전략에 문화전략을 추가하였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등의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의 거리 조성, 지역축제 활성화 등이었다(김소영, 2010: 8~9).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지역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문화공간의 확충'으로 설정하면서 문화기반시설 건립이 경쟁적으로 가속화되었다.

서울시 역시 문화시설 확충에 초점을 둔 문화정책을 펼쳐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시민 문화서비스 제공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도서관 등)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 이후 공연장이 매우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백선혜, 20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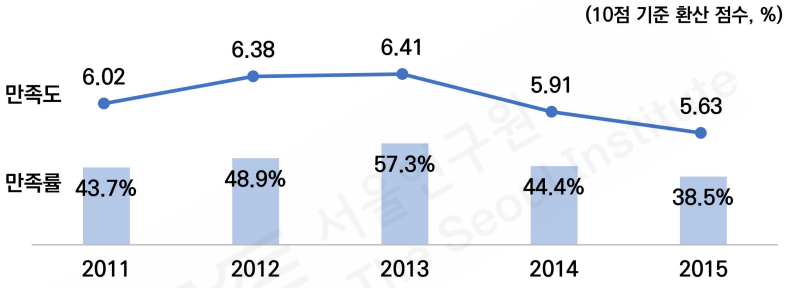
자료: 서울서베이, 각 년도.

[그림 2-1] 서울시 문화시설 증가 추이

문화 인프라의 확충을 우선하는 문화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사례인 영국의 경우도 전쟁 이후 경제 재건기였던 1950년대에는 예술지원금의 전체적 규모가 미약한 편이었지만, 세계경제가 호황기를 맞이한 1960년대에는 늘어난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에 많은 공연장과 미술관을 설립하게 된다(박승현, 2016: 29). 이는 일반시민들에게 '고급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문화의 민주화' 이론에서 바라보는 예술은 전문가가 창출하는 '고급예술'이다. 과거에는 특별한 재능과 안목을 가진 예술가의 창작품을 상류계층만이 소비함으로써 문화적 불평등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접근기회를 일반대중에게 확대함으로써 문화 소외를 극복하고 문화적 평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의 민주화'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문화정책의 핵심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건립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고급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문화의 민주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민의 예술관람률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시민이 경험한 문화예술은 연간 평균 미술 관람 0.2회, 음악·무

용 발표회 관람 0.11회, 연극(뮤지컬) 공연 관람 0.37회에 불과하다(영화 관람은 연간 평균 2.6회). 게다가 관람률은 2007년(미술 관람 0.4회, 공연 관람 0.43회)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 역시 2011년 6.02점에서 2015년 5.63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서울서베이, 2016). 미국의 경우에도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출범 이래 전문예술단체는 증가했으나 예술관객의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판명됐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6). 문화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시민이 저절로 예술을 감상하고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고급예술의 생산과 보급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문화정책이 문화소비자, 즉 일반시민의 문화향유에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자료: 서울서베이, 각 년도.

[그림 2-2] 서울시민 문화환경 만족도

2) 생활문화예술을 강조하는 '문화민주주의'

'문화의 민주화'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이다. 문화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서, 상향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을 취한다. 모든 사람은 창조적 소양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문화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다양한 취향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 역량을 발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서순복, 2007: 30~31; 박승현, 2016: 30~31). 따라서 기존의 정책처럼 문화시설을 제공하여 관람객을 확대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증대시키고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생활방식을 스스로 창출해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윤소영, 2010: 20~26).

그렇기 때문에 문화민주주의에서 바라보는 예술은 고급예술을 포함해 대중예술, 지역예술, 아마추어 예술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정형화된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문화활동들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문화민주주의에서는 예술작품의 미학적 질보다는 정치적·민족적·사회적 동등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전문가와 아마추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지 않으며, 예술참여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객지향성을 보인다. 모든 종류의 문화예술은 문화수용자들의 가치와 선호를 반영하는 한 고급문화이든 대중문화이든 모두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다(서순복, 2007: 32~33). 이러한 '문화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정책이 요구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을 강조하게 된다. 개인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정책의 실현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일방적인 하향식 접근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민주주의에 따른 문화정책은 고급예술의 방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화정책의 영역이 시민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수행되는 생활문화예술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제반 변화는 생활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문화예술의 가치와 효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문화예술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노동의 소외와 실업의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각종 사회적 강압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생활문화예술은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개인적 독립성, 능동적 창조성, 자율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제공함으로써 불안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생활문화예술이 가지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공동체의 형성, 자율적 공간의 확보 등에 있어 그 잠재력을 가상공간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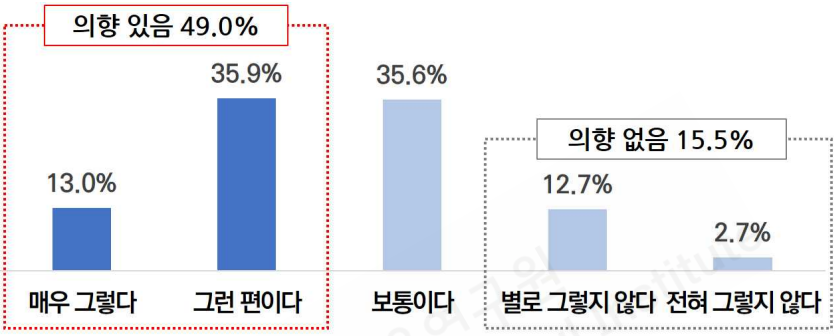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시민의 생활문화예술 참여 확대 경향도 확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문화예술동아리 참여율이 2008년 2.6%에서 2014년 5.8%로 약 2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문화재단 정책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화향유실태조사에서 향후 동아리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49.0%로 참여 의향이 없는 응답자(15.5%)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조사는 비록 동아리 참여자의 절대 규모는 작지만, 참여 비중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표 2-1] 서울시 내 문화예술동호회 참여율

2008	2010	2012	2014
2.6%	2.8%	4.0%	5.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문화향수실태조사」.



자료: 서울문화재단, 2015, 「2014 서울시민 문화예술향유실태조사」.

[그림 2-3] 서울시 문화고관여자의 향후 동호회 참여 의향

3)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이 정책 의제화

문화민주주의 패러다임의 확산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었으며, 그 결실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이다. 이 법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활동이 생활공간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동호회 활동 시설 및 공간의 제공과 그에 따른 예산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김창수, 2014: 16).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생활문화예술의 활동영역은 향수(享受), 교육, 참여, 창작으로 구분되며[3], 개인 차원의 생활문화예술 활동과 동아리(단체) 활동으로 발현된다. 정책적 관심은 주로 동아리(단체) 영역에 초점

을 두고 있는데, 이는 생활문화예술의 속성과 관계가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강윤주(2014)는 생활문화예술이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 등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시민성은 문화예술의 창조 활동이 개인의 말과 행동 수행 능력을 고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의 자발적 참여를 증진한다는 측면으로, 미적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역성은 생활문화예술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정체성, 삶의 의미, 소통과 연대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술성은 생활문화예술을 매개로 감성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소통과 연결을 위한 에이전시로 작용하는 일종의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 강윤주, 2014, "생활문화예술의 의미: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그림 2-4] 생활문화예술의 속성

---

3) 조광호(2015: 105)에 따르면 생활문화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창작	생활문화주체 스스로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형태
참여	지역주민이 자발적 의지로 참여하여 문화에 대한 직접 활동을 행하는 활동형태
교육	지역주민이 자발적 의지로 문화 교육을 통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형태
향수	문화적인 것으로부터 관람, 청취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활동형태

따라서 생활문화예술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공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토론하고 창조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주체적으로 인간관계를 조직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아와 타인과의 공감대를 표현하며 활동적 삶을 이어갈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28). 기존 예술정책의 지원구조가 개별 창작자에 대한 지원으로 수렴되어 왔다면, 생활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개인 자체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사이, 즉 관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서울문화재단, 2014b: 34).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개인 차원보다는 동아리 차원이 강조되며, 콘텐츠와 창작자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니라 생활문화예술이 발현되는 공간과 관계망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래 중앙정부는 전국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가 수립되었는데,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 역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를 기본 지원 단위로 상정하고 있다.

[표 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문화 관련 조례

자치단체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경기	경기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2014.4.2.
인천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2014.5.26.
광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15.12.28.
대전	대전광역시 생활예술 진흥 조례	2013.12.31.
충북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조례	2016.4.1.
충북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조례	2016.4.1.
전북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2015.2.2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2015.10.6.
경기 부천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2014.10.13.
전북 정읍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5.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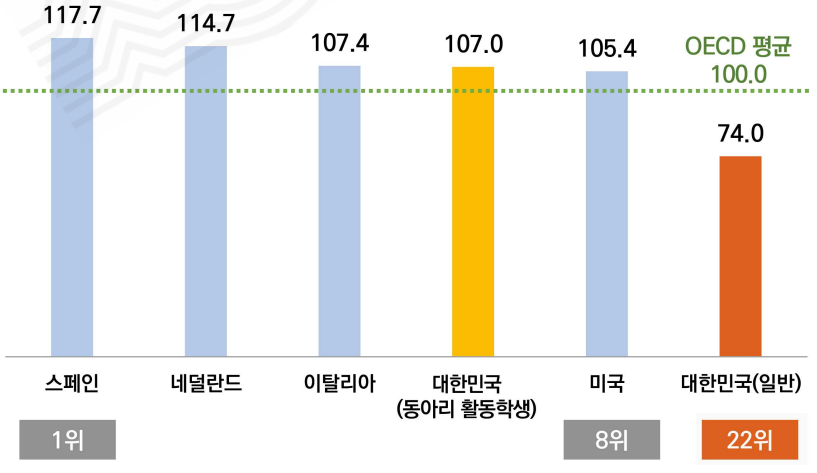
서울시는 2013년부터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등 생활권 내에 주민에 의한 문화예술 창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16년 6월 발표된 <2030 서울문화플랜>을 통해 문화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명시하였으며, <서울시 생활문화예술 진흥조례>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동아리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한 편이었다. 올해부터 <시민예술가 육성지원> 사업은 "시민예술축전"으로 변신을 꾀하였고, <좋아서-예술동아리> 사업이나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사업도 동아리 간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하고 있어, 향후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_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역할

1) 개인의 행복감 향상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기능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생활문화예술은 행복도와 자존감 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대사회 구성원들이 삶의 공간에서 예술을 체험함으로써 자기결정력, 창조성, 자율적인 의사소통력이 높아진다(민인철, 2013). 호기심에 기반한 창조적 문화행위는 저항과 구원을 통해 자기만의 내면을 통합하고 자아를 실현하게 한다(조현성, 2012). 이는 개인의 행복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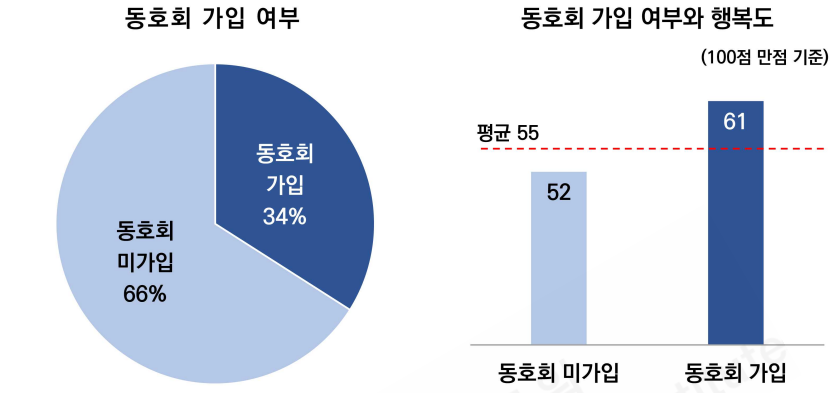
한국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 정도에 비하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감이 매우 낮다. OECD 34개 국가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19개 지표의 가중 합계인 '행복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점으로 32위에 올라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이내찬, 2012).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OECD 국가 청소년들의 행복도를 비교하였는데, OECD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일반 청소년의 행복도가 74점인 반면, 동아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107점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자료: 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초중고 동아리 활동과 행복지수의 국제 비교 연구결과」.

[그림 2-5]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여부와 행복도 비교

삼성경제연구소(2013)의 연구에서도 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행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즉,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직장인의 행복도는 61점으로 그렇지 않은 직장인의 행복도 52점에 비해 9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행복감이 상승하는 것이다.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2013, 「직장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 SERI 연구보고서, p.38.

[그림 2-6] 직장인의 동호회 가입 여부에 따른 행복도 차이

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생활만족이 높다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으로 설명 가능하다. GDP나 개인의 소득증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데 비해 사회자본이나 사회적 관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유의미하다는 것이 최근 사회학적 연구의 성과이다(남은영 등, 2012: 8~9). 「여가활동실태조사」를 분석하여 개인이 참여하는 여가유형에 따라 여가만족 및 행복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이명우 외(2016: 280)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 관람이나 스포츠 관람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활동을 한 사람보다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참여, 취미·오락 활동과 같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한 사람의 여가만족도와 행복도가 특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통합에 기여

문화예술의 속성인 표현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이웃과의 공감과 소통을 가능케 한다. 문화예술에 의해 이루어진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주민들은 커뮤니티 현안에 대한 정보획

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과 참여의식도 높아질 수 있다. 문화예술은 타인과의 접촉기회를 제공해 주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자본 형성의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한상우·이은진, 2011).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은 공동체의식 형성의 기반이 되며,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긍심과 자존감 제고는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공통의 관심분야를 가진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적 유대관계가 깊어지고, 이는 세대 간 격차를 넘어선 교감이 가능하게 하여 사회의 결속력을 높인다. 성남시 문화클럽 조성에 대한 연구결과, 문화클럽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교류관계 형성 및 소통관계가 구축되었음이 밝혀졌다(윤소영, 2010).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며 사회적 참여와 상호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관계형 여가라고 한다. 관계형 여가 중에서도 특히 사회공헌형 여가는 사적인 즐거움이나 재미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공헌적인 가치와 내적 보람을 찾기 위한 활동이며, 대표적인 것이 자원봉사활동이다. 남은영 등(2012)은 여가유형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가운데 문화예술 참여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동호회활동과 사회관계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에게서 자원봉사 참여가 활발한 것을 밝혀냈다. 즉, 문화예술 참여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 40%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자들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람(26.4%), 스포츠 참여활동(22.5%)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관광이나 취미오락활동을 즐기는 사람에 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석하는 동아리의 수가 많고 모임에 자주 참석할수록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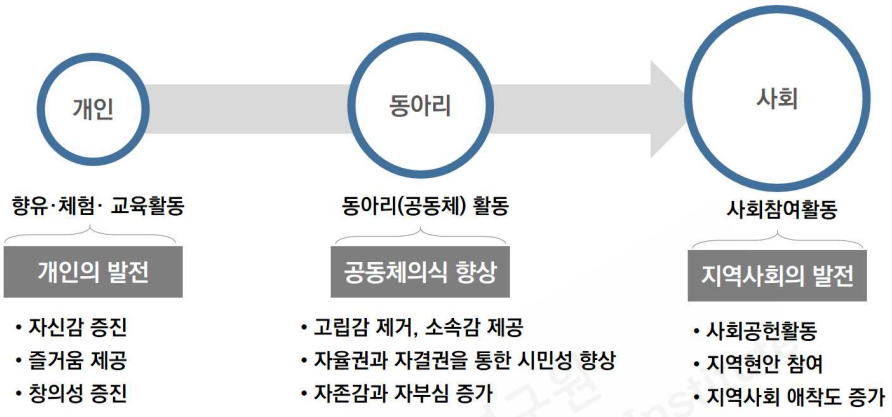
윤소영(2010)은 Linda Heuser(2005)와 Gray Crawford(2003)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개인의 자발적 여가활동이 사회공동체 활동으로 확대되고 지속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즉, 어떤 활동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그 활동에 몰입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적극성을 가지게 되며, 마지막으로 그 분야에서 조직적 역할을 맡음으로써 전문성을 띠게

---

4) 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pp.21~27.

되고 이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5].

이러한 연구들은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참여가 단순히 사적인 만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나눔으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2-7]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참여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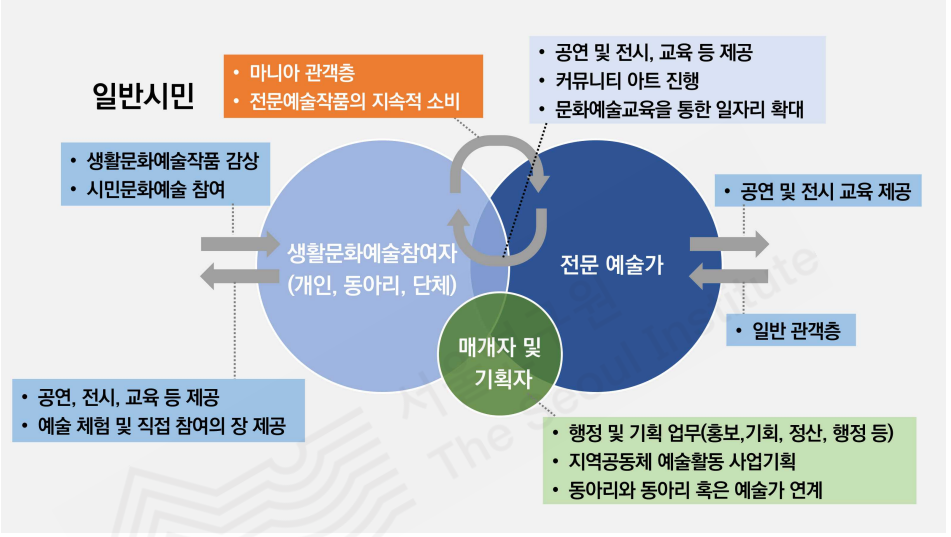
3) 예술생태계 선순환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전문 문화예술단체 성장의 토양을 가꾸고 저변을 확대하는 밑거름이 되어 예술생태계 선순환(창작·매개·수용)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확산되고, 전문 문화예술단체와 아마추어 문화예술모임이 서로 연계된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민인철, 2013: 10~11). 특히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은 마니아 관객층이 되어 전문예술작품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 이는 전문예술가의 일자리와 직접 연계가 되어 활동의 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낳는다. 전문예술가와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의 상생관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한편, 전문예술가와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연계가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매개

---

[5] 윤소영, 2010, 「동호회 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시설에 기반한 문화예술동호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20~26.

자 또는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매개자는 동아리 활동 중 홍보, 기획, 행정, 교육 등 동아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 동아리 참여자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아리 네트워크가 자발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아리 네트워크 내 시민리더를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동아리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예술 활동을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8] 생활문화예술동아리와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다른 한편, 생활문화예술동아리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따라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는 문화시설의 활발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주요한 비판 중 하나는 시설(인프라)은 갖추어져 있는데, 콘텐츠가 부족하고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는 이와 같은 문화시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적극적 참여자 발굴을 촉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조현성, 2012: 10~11). 단지 지역문화시설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유휴공간 및 민간 공간들을 적극 발굴할 필요도 있는데, 이는 동아리의 활동 형태와 욕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의 확대에 기여하여 지역 예술생태계가 더욱 활발히 작용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3_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유형과 특성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속성은 매우 다양하다. 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성아(2006)는 성남시의 사랑방문화클럽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활동들(배움활동, 친목활동, 정보교류활동, 전문가적 관심, 발표활동, 다른 클럽과 교류, 지역사회기여활동 등)을 군집분석하였다. 그 결과 친목클럽, 배움클럽, 숙련클럽, 공헌클럽 등 4개 유형이 제시되었다. 친목클럽은 친목활동 중심이며 배움클럽은 학습(전문강사 초빙)과 교류활동 중심의 활동을 한다. 숙련클럽은 학습, 발표, 약한 정도의 지역사회 참여 등의 특징을 보이며, 공헌클럽은 친목, 학습, 발표, 지역사회 기여 등 다방면으로 활성화된 클럽을 말한다.

[표 2-3]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유형별 특성

유형	특성
친목클럽	- 친목활동이 주를 이룸 - 전문적 관심이나 클럽 외적인 일에는 관심이 적음 - 온라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음 - 수평적보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편임 - 20대(직장인, 대학생, 청소년) 비중이 높음
배움클럽	- 전문가에게 배우고 정보를 교류하는 활동이 주를 이룸 - 커뮤니티 교류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가 저조함 -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수직적 및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적은 편임 - 여성, 직장인+주부 비중이 높음
숙련클럽	- 배우는 활동을 하면서 결과물을 발표하고, 지역사회 참여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나 공헌클럽보다 활동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 오프라인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며, 온라인 활동은 적은 편임 - 수직적보다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일어나며 공헌클럽 다음으로 리더십지수가 높음 - 직장인+주부 비중이 높음
공헌클럽	- 친목 및 정보교류활동뿐 아니라 발표, 커뮤니티 간 교류, 지역사회 기여 등 대외적 활동에 참여도가 높음 -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 모두 열심히 하는 특성 - 수직적 및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모두 활발함 - 개설연도가 가장 오래되고, 전문가들의 모임이 많음 - 운영진의 리더십 지수도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남 전체를 아울러 활동하는 클럽들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

자료: 성남문화재단, 2006,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pp.117~131.

윤소영(2010)은 동호회 참여수준과 유입 경로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우선 동호회 참여수준으로는 초보자, 준전문가, 숙련가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초보자 집단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활동형태를 나타내며 몰입도가 낮다. 준전문가 집단은 동호회 활동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진지한 여가의 형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집단으로, 동호회 활동 지속 여부에 대한 딜레마를 가장 크게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다. 숙련가 집단은 스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 영역이 크게 확장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의 환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입 경로에 따라서는 지역기관을 통한 유입과 자발적 유입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복지관 및 주민자치센터, 직장 내 동호회 활동 등 기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동호회로 발전된 경우, 기관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동호회 활동이 크게 좌우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발적 유입으로 인해 동호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친목도모를 통한 대인관계보다는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며 유대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단점이 나타난다.

[표 2-4] 동호회 참여 수준 및 유입 경로에 따른 유형 구분

유형	구분	특징
참여수준에 따른 특성	초보자	- 시간 할애 및 활동영역 제한 - 일상생활과의 연계성 부족 - 몰입성향 미흡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발전성 저해
	준전문가	- 발전가능성에 따른 활동영역 확장 - 동호회 활동에 대한 딜레마 극대화 - 생활의 일부로 취급 - 프로그램에 대한 난이도 향상
	숙련가	- 진지한 여가활동으로의 전개 - 여가경력에 따른 전문성 함양 - 적극적인 이벤트성 대회 참여 - 개인기량을 활용한 활동범위 확장
유입 경로에 따른 특성	지역기관을 통해 유입	- 친밀감 형성을 통한 끈끈한 유대관계 유지 - 실력발휘를 위한 기회제공 용이
	자발적 유입	- 자기개발의 욕구에 따른 실력향상 가속

자료: 윤소영, 2010, 「동호회 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시설에 기반한 문화예술동호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63.

심보선·강윤주(2010)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결합방식을 통해 동아리들을 유형화하여 구분하였다.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을 사례로 친목도모, 정보교환, 타 커뮤니티와 교류, 지역사회 기여, 전문가에게 배움, 관심사에 집중, 결과발표 등 7개 활동을 변수로 군집분석을 하였으며, 결속형 사회자본과 연계형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개념을 활용하여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자기계발형, 사교형, 문화외교형, 만능형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계발형은 예술적 관심이 높으나 내적 결속 및 외적 연계가 모두 약한 특성을 보이며, 사교형은 내적 결속은 강하나 외적 연계가 약하며 예술적 관심도도 낮다. 문화외교형은 내적 결속은 약하지만 외적 연계가 강하며 예술적 관심도도 높은 유형이며, 만능형은 내적 결속과 외적 연계가 모두 강하고 예술적 관심도도 높은 유형이다.

[표 2-5]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조합으로 본 동아리 유형 구분

유형	구분	특징
자기계발형	결속형 사회자본 추구(중) 연계형 사회자본 추구(저) 문화자본 추구(고)	- 주된 관심이 예술적인 자기계발에 치중됨 - 외적 연계활동에는 무관심 - 폐쇄적이고 자족적인 취향공동체
사교형	결속형 사회자본 추구(고) 연계형 사회자본 추구(저) 문화자본 추구(저)	- 주요 관심이 모임 자체에 있음 - 예술은 사교를 위한 부차적 수단 - 예술적 활동이나 외부 사회활동에는 관심이 덜함
문화외교형	결속형 사회자본 추구(저) 연계형 사회자본 추구(고) 문화자본 추구(중)	- 어느 정도의 예술적 관심은 있으나, 사회적 활동을 위한 '도구'의 의미 - 외부 네트워킹에 치중
만능형	결속형 사회자본 추구(고) 연계형 사회자본 추구(고) 문화자본 추구(고)	- 높은 예술적 관심 - 내외적으로 활발한 네트워킹 - 가장 이상적인 클럽 - 성남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형

자료: 심보선·강윤주, 2010,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의 유형 및 사회적 기능 분석", 「경제와 사회」, 87, pp.134~171.

이처럼 동아리를 유형화하는 기준은 동아리 활동내용, 참여수준, 유입 경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결합방식 등 다양하지만, 결국 동아리 내에 생활문화예술의 속성이 어떻게 구현되는가로 수렴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동아리를 생활문화예술의 속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를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특성 분석(4장)에 활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생활문화예술의 속성으로 예술성과 시민성, 지역성을 살펴보았는데, 시민성과 지역성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속성이므로 공동체성으로 통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동아리 활동 유형은 예술성(학습, 발표)과 공동체성(교류, 사회공헌) 지향 여부에 따라 문화나눔형, 자기계발형, 친목도모형, 봉사형의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문화나눔형은 예술적 관심이 높고 예술이 사회참여의 형태로 발현되는 유형이며, 자기계발형은 예술을 통한 자기성취욕구가 높으나 취미공동체로 머무르는 특성이 있다. 친목도모형은 예술적 관심이 친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봉사형은 예술적 관심이 낮으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형이다.

[표 2-6] 동아리 유형 구분

구분		예술성	
		높음	낮음
공동체성	높음	문화나눔형	봉사형
	낮음	자기계발형	친목도모형

03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례

1_국내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례
2_국외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례
3_소결

03 |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례

1_국내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례

1)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정책

서울시는 2016년에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행정 등 개인의 삶을 둘러싼 5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생활문화지원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표 3-1]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구상 중이며, 서울시 생활문화예술진흥조례를 수립하고 있다.

[표 3-1] 서울시 생활문화지원 관련 정책

범주	목표	과제	내용
공동체	목표 3. 함께 즐기는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3-1. 문화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장르기반 문화공동체 활동 활성화
			- 지역기반 마을공동체 문화활동 지원
			- 세계인이 찾는 생활문화예술축제 개최로 동호회 축제 메카 도시화
			- 3년 단위 시민문화활동 실태 및 종합지원 계획 수립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현황은 [표 3-2]와 같다. 기존 동아리 지원사업의 경우 부서 간 개별추진으로 사업으로 중복적인 측면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에 서울시 동아리지원사업과 타 부서 간 사업의 협력·연계·통합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3-2]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관련 사업(2015년 기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추진부서
시민예술가 육성지원 (서울동네문화클럽)	성인-청소년 연계 동아리	활동비, 워크숍, 전문가 특강 등	서울시 문화예술과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지원사업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 체험프로그램, 공연기회 등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좋아서-예술동아리	성인 동아리	강사, 워크숍, 공간 등 지원, 축제진행	서울문화재단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생활예술음악단체	공연 및 경합 기회 제공 등	세종문화회관

(1) 서울시_시민예술가 육성지원 사업(2016년부터 시민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

① 사업개요

서울시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성인 동아리와 연계한 청소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서울동네문화클럽'을 진행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시민예술가 육성지원'[6] 사업과 통합하여 진행하였다. '시민예술가 육성지원' 사업은 성인 동아리와 청소년동아리를 발굴·연계하여 동네 단위의 문화예술교육, 발표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3조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을 추진근거로 문화예술교육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2016년부터는 기존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시민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이란 명칭으로 생활문화진흥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② 사업추진 내용(2012년~2015년)

'시민예술가 육성지원' 사업은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 발굴·육성, 세대·장르·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의 장 조성, 잠재된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와의 연계, 시민주도 문화예술 활동 육성 등을 통해 일상생활 속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되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6) '시민예술가 육성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1인 1기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사업 중 하나이다. 2013년부터 일반시민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였고, 이후 2014년부터 '우리동네문화클럽'과 통합되면서 동아리 지원을 시작하였다.

교육대상은 서울시 내 성인·청소년 동아리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다. 지원 규모는 연계 팀당 150만 원~300만 원이며, 활동계획서와 인원을 고려하여 동아리 강사비와 발표회 활동비(재료비, 장소 대여비, 장비대여비 등) 등이 차등지원되었다. 운영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사업내용은 성인 동아리와 청소년 동아리를 한 팀씩 연결하여 연합팀을 만든 후, 성인 동아리가 청소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재능기부 방식의 교육활동이나 연합팀 대상 전문가 교육, 발표회 활동 지원 등 성인-청소년 동아리의 연계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표 3-3] 참고).

[표 3-3] 2013~2015년 시민예술가 육성지원 사업내용 및 성과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 동아리 참여인원	- 34개 동아리 - 764명	- 72개 동아리 - 1,327명	- 80개 동아리 - 1,179명
교육활동	- 272회(동아리별 8회) - 동아리 분야별 역량 강화 교육지원	- 720회(동아리별 10회) - 동아리 분야별 역량 강화 교육지원 - 지역발표회 총 97회	- 800회(동아리별 10회) - 동아리 분야별 역량 강화 교육지원
통합 발표회	- 통합발표회 개최(9개 동아리, 967명 참석)	- 통합발표회 개최(25개 동아리, 967명 참석)	- 통합발표회 개최(28개 동아리, 630명 참석)

자료: 서울시, 각 년도, "시민예술가 육성지원 추진계획".

사업 진행 시 문제점으로는 참가동아리 대부분이 예산집행 및 서류작성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이었다. 이에 동아리별로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개선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외에도 일부 연합팀의 경우 성인 동아리의 교육이 청소년의 자발성 및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과 신규동아리 발굴의 어려움 및 신생동아리가 참여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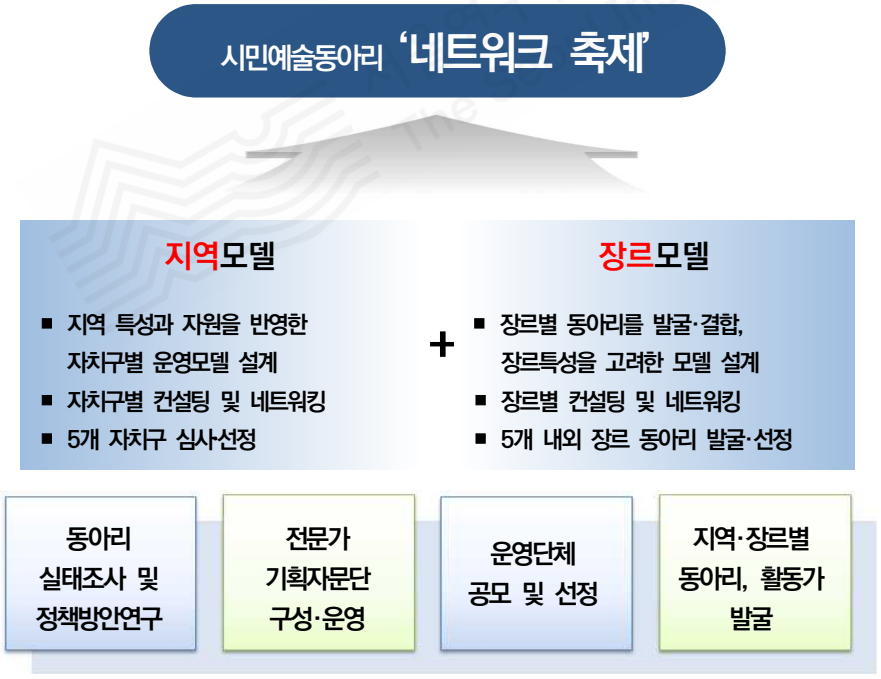
③ 2016 시민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

서울시는 문화예술교육지원 차원에서 진행해오던 시민예술가 육성지원 사업을 2016년부

터 생활문화진흥 차원에서 '2016 시민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새롭게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사업추진체계는 크게 지역모델과 장르모델로 나누어 진행되며, 예술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 축제의 장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활동의 주체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 시범모델 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서울형 운영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모델은 지역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모델로 2016년 5개 지자체를 공모·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2020년까지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원되며,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역별 축제개최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장르모델은 예술 장르 특성을 반영한 모델로 자치구와 상관없이 장르별로 동아리를 모집·선정하여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장르별 특성을 살린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2억 원으로 동아리 간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 목표로 한다.



자료: 서울시, 2016, "2016 시민예술동아리 활성화 추진계획".

[그림 3-1] 2016 시민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2) 서울시_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① 사업개요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국고 40%, 시비 30%, 구비 30%)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상설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을 운영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증진 및 또래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② 사업추진 내용

청소년 어울림마당사업은 서울 지역 내 서울광장, 신촌 문화의 거리 등과 같은 서울시의 대표적 문화장소에서 다양한 주제로 청소년 동아리 발표 및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널뛰기'라는 사업명칭으로 3월~12월 중 토요일(비정기적)에 연 9회~12회의 행사를 개최하며,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아리를 중심으로 발표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 자발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획단 및 봉사단이 운영된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청소년(9세~24세)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중 12회 이상 활동을 할 수 있고, 동아리 구성 후 1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동아리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한 동아리당 약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총 420개 동아리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동아리의 경우 청소년어울림마당에서 1회 이상 발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3) 서울문화재단_좋아서-예술동아리

① 사업개요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부터 시민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직접재원 지원방식 형태로 진행하던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시민들이 직접 공연을 기획하여 무대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접지원 방식인 '좋아서-예술동아리' 사업으로 전환했다[7]. '좋아서-예술동

---

7) 서울문화재단, 2014, 「서울문화재단 10주년 백서」, p.136.

아리'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의 시민문화사업 중 하나로 시민예술 동아리 간 네트워크 활동 지원, 활동역량 강화, 발표기회 제공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 활동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추진 내용

2014년에는 동아리 간 네트워크 조성을 주목적으로 49개의 동아리를 선정하여 타 장르의 3~4개 동아리를 1개 팀으로 묶어 9개의 연합팀을 구성하였다.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합팀별 공연 및 전시 준비 경비로 700~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세종문화회관과 시민청에서 연합팀이 기획한 공연 및 전시를 발표하였다.

2015년에는 연합팀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동종장르의 동아리 2~3개를 묶어서 총 48개의 동아리가 15개의 연합팀으로 참여하였다. 사업은 개별 동아리 발표기회 제공,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 연합팀 페스티벌 준비 지원, 시민기획단 운영 등 네 개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표 3-4] 참고).

[표 3-4] 2015년 좋아서-예술동아리 사업내용

구분	내용
개별 동아리 발표기회 마련	- 유관기관(국립한글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별 동아리 공연기회 확대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 기획에 필요한 실무 및 타 장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교육 진행 - 연합팀 구성 교류를 위한 워크숍 진행 - 연합팀 공연 및 전시 시 필요한 역량 지원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장르별 전문가 10명)
연합팀 페스티벌	- 지역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진행(시민청,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등) - 연합팀 공연·전시 준비금 지급, 의상(소품) 대여비, 악기대여비, 재료비, 연습실 대관료, 강사료 등 지원
시민기획단 운영	- 홍보 및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포스팅/영상팀으로 구성 후 스토리북 기획 및 페스티벌 영상 제작 - 관련학과 지원자에게 전공분야 현장에서 활동기회 마련 - 활동영역을 감안한 소정의 원고료, 제작 실비 지원

자료: 서울문화재단, 2015, "2015년 좋아서-예술동아리 결과보고".

2015년도 사업은 행사 및 워크숍을 114회 진행하였으며, 약 760명이 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표 3-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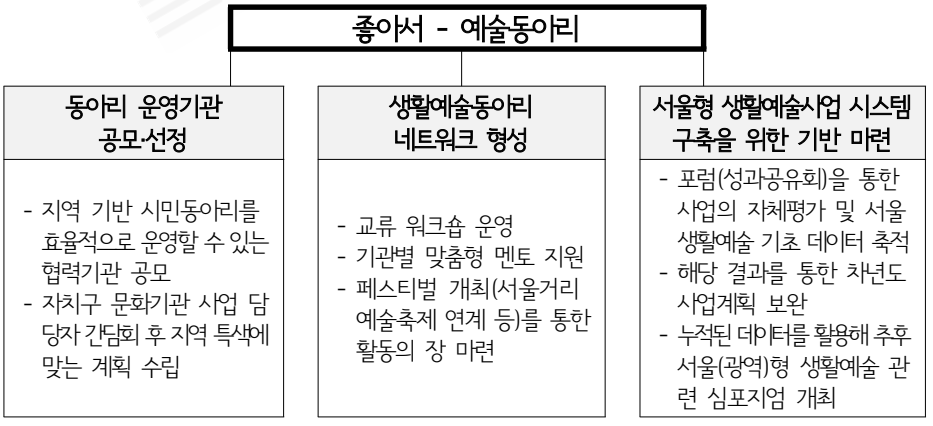
[표 3-5] 2014~2015년 좋아서-예술동아리 추진성과

구분	2014년	2015년
공연·전시 횟수	- 축제 공연·전시 9회 - 찾아가는 공연·전시 10회	- 개별공연 15회 - 축제 공연·전시 17회/재공연 2회
네트워킹 횟수	- 자문회의 2회 - 워크숍 3회 - 운영위원회 3회/합평회 3회	- 역량 강화 워크숍 5회 - 연합팀 구성 워크숍 4회 - 성과 공유회 1회
멘토링	- 51회	- 연합팀 구성을 위한 멘토링 20회 - 페스티벌 멘토링 50회
참여인원	- 멘토 8명 - 동아리 49개(약 590명)	- 멘토 10명 - 동아리 48개(약 742명)/시민기획단 8명
총계	- 행사 및 워크숍 81회 - 598명 참여	- 행사 및 워크숍 114회 - 760명 참여

자료: 서울문화재단, 각 년도, "좋아서-예술동아리 결과보고".

2015년 사업 결과에서 동아리 발표준비기간 및 준비·연습·발표 공간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지역별 예술동아리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결과 2016년에는 지역별 지원체계로 변경되었다.

2016년에는 지역별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반 시민동아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력기관을 공모하여, 선정된 지역문화기관에서 자치구의 특색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료: 서울문화재단, "2016년 좋아서-예술동아리 기본계획".

[그림 3-2] 2016년 좋아서-예술동아리 사업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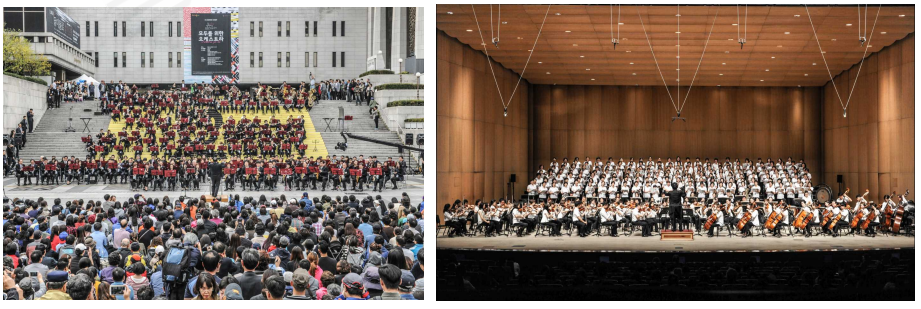
(4) 세종문화회관_생활예술오케스트라[8)]

① 사업개요

세종문화회관은 2014년부터 전국 생활예술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라는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생활예술은 음악 활동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그중에서도 오케스트라 활동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는 오케스트라라는 장르를 필두로 시민예술과 전문예술이 공생하는 건강한 예술생태계를 범장르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② 사업추진 내용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인 이상의 생활예술음악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예선(본선에 참가할 단체를 선정하는 단계), 본선(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 연합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선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데 1차 예선은 서류 및 영상 음원심사로, 2차 예선은 실연을 통한 경연으로 이루어진다. 예선에서 선정된 생활예술 음악단체들이 경연을 벌이는 본선이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로 약 10일 정도 진행되며, 축제의 피날레로는 다양한 형태와 장르를 접목한 연합오케스트라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세종문화회관, 2016, 「세계생활예술오케스트라 포럼」.

[그림 3-3] 2014년 제1회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 '모두를 위한 오케스트라'

---

8) 세종문화회관, 2016, 「세계생활예술오케스트라 포럼」 자료집 중 채은석, "한국의 생활예술오케스트라 현황" 발제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2014년 개최된 1회 축제에서는 52개의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단체, 2,200명의 단원이 참여하였으며, 연합심포니오케스트라와 600인이 함께 연주하는 대규모 야외 윈드 연합공연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2015년 제2회 축제부터는 서울시교육청과의 연계로 13개 초중고 학생오케스트라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 2016년 제3회 축제에서는 피날레 무대에 서울시민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UN오케스트라[9]의 합동공연이 진행되었다. 2014년 이후 참여 단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예술단체들의 규모와 성격 또한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6] 참고).

[표 3-6] 2014~2016년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 참가 단체 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선참가 단체	-	155개 단체	300개 단체
본선참여 단체	52개 단체	60개 단체 (13개 학생 오케스트라 단체 포함)	55개 단체 (13개 학생 오케스트라 단체 포함)
참여인원	2,200명	2,900명	3,100명

자료: 세종문화회관, 2016, 「세계생활예술오케스트라 포럼」.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는 관 주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축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축제 초기 준비단계부터 시민 오케스트라 단체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워크숍과 토론을 통해 축제의 방향을 확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14년 축제 이후 한국생활예술음악인협회(KOMA: Korea Amateur Musicians' Association)가 창립하여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공동주최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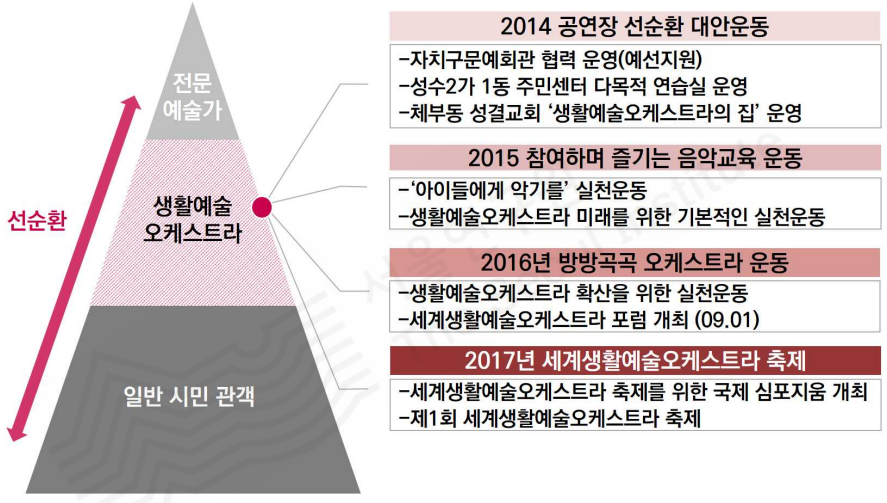
한국생활예술음악인협회는 2015년 33개 회원단체로 시작하여 현재 400여 개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연습 및 공연장소, 악보, 지휘자, 객원, 재원조성 등 개별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단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2015년 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서울시민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고, 2016년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10]을 계기로 서울학생 연합 오케스트라인 '서울학생필하모

9) 국제기구의 직원들로 구성된 생활예술오케스트라임.

닉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다. 서울시민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연계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며, 초·중·고·대학 이후 사회에서도 생활예술오케스트라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과 한국생활예술음악인협회는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단체들이 겪고 있는 연습 및 공연 공간부족의 문제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예술 활동이 개인의 즐거움을 넘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운동을 펼치고 있다([그림 3-4] 참고).



출처: 세종문화회관, 2016, 「세계생활예술오케스트라 포럼」.

[그림 3-4]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운동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운동은 크게 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공연장 선순환 대안운동으로 생활예술오케스트라들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문화기관의 빈 공간을 공연 및 연습장소로 활용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역량을 키운 단체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공연과 음악교육활동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일례로 협회 단체인 MS필하모

10) 서울시교육청-한국생활예술인 연합회 MOU: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기반확대를 위한 업무협약(2016.1.26.).

니오케스트라가 성수1동의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저렴한 비용하에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성수1동 마을 행사가 있을 때 봉사공연을 하거나 주민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는 참여하며 즐기는 음악교육 운동으로 2015년 축제의 주제를 '아이들에게 악기를'로 정하고 한국생활음악예술인 협회 회원들이 악기 기증 운동과 장애인 음악단체들의 음악 멘토 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는 방방곡곡 오케스트라 운동으로 생활예술오케스트라 확산을 위한 실천운동을 기반으로 세계오케스트라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로 2016년 생활예술오케스트라 포럼을 개최하였고, 2017년 세계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를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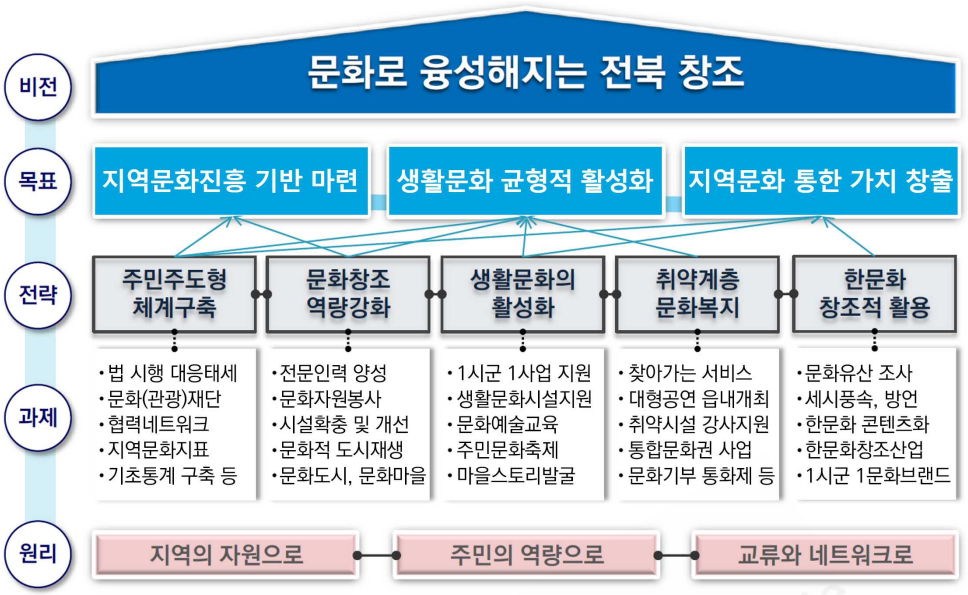
2)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정책

(1) 개요

전라북도는 2012년부터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설정하고, 문화복지 차원에서 '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행하였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2015.10.) 제정 및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다.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는 제5장에서 생활문화진흥에 대한 지원근거와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표 3-7], [그림 3-5] 참고).

[표 3-7]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장 생활문화진흥-제12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1.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처: 전북발전연구원, 2015,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그림 3-5]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비전과 목표

(2) 지원내용

전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14개 시·군에 사업비를 매칭하여 배분하는 형태로 시·군별 여건에 따라 직영 또는 법인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지원분야는 동호회 활성화 사업지원과 사업보조 인력지원으로 나눠져 있다. 도(道) 단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지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예산삭감으로 별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사업내용은 동호회 발굴 및 활동지원, 네트워크 구축, 축제, 전문인력 배치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① 동호회 활성화 지원

전북 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동호회 활동 지원, 시·군 단위 행사 참여지원,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표 3-8] 참고).

[표 3-8] 전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구성

지원분야	세부 내용
동호회 활동 지원 (공간 및 교육지원)	- 연습, 발표, 정기 경연대회 시 활동공간 임차료 등 - 동호회 교육, 교재 제작보급, 강사비 등
시·군 단위 행사 참여지원	- 시군 자체 페스티벌 행사 개최비, 지역교류 행사참여 경비 등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시설+동호회)	- 주민참여 확대와 동호회 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 동호회의 사회공헌 재능나눔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동호회 사회공헌 재능나눔 내용 필히 포함)

동호회 지원 신청자격은 도내에 주소를 둔 5인 이상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단체이고, 지원규모는 동호회당 3백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지원방법은 간접지원 방식으로, 사업비를 동호회 단체에 직접지원하지 않고 교육 강사비, 임차료 등을 시군 또는 법인에서 입금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업주체는 2014년까지는 (사)시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진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시군에서 직영하거나 시군에서 재단 혹은 문화예술단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시군 상황에 따라서는 (사)시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는 시·군별로 (사)시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운영역량이나 시·군별 여건이 달라서 생긴 변화로 보인다.

이에 구체적 지원내용 또한 시·군별 상황에 맞춰 그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주시와 부안군의 공모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분야와 금액 등 내용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표 3-9], [표 3-10] 참고).

[표 3-9] 2016 전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공모 지원내용

분야		세부 내용	비 고
동호회 활동 지원	임차	- 활동공간 임차료(월 20만 원 이내) · 동호회 자체 행사 지원 · 거리 공연 및 동호회 발표회, 전시회 지원	- 자부담 20% 원칙 1개 동호회 1개 사업지원 (임차, 교육 중 1개 항목) - 단체별 최대 150만 원 이내
	교육	- 교육강사비 (일반강사 시간당 3만 원, 초과 2만 원)	
교류 지원	지역교류	- 전라북도 교류지원 행사 참여 경비 (교육, 견학, 홍보, 버스임대, 운영 등)	- 상시 모집 - 동호회 활동지원 - 프로그램 지원 중복 가능
	페스티벌	- 페스티벌 참여 경비	
프로그램 지원		- 동호회 중심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프로그램 · 주민참여 확대와 동호회 간 교류 활성화 · 동호회의 사회공헌·재능나눔 활동	- 자부담 20% 원칙 - 단체별 최대 300만 원 이내 예산범위 내 선착순

자료: 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jjcf.or.kr/main/jjcf/bbs/notice/?1=1&page=8&ACT=RD&page=8&u_inx=1142549).

[표 3-10] 2016 부안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공모 지원내용

분야	세부 내용	비 고
강사 지원	- 강사(교육)비	1개 동호회당 월 280,000원 이내
공간 지원	- 연습, 발표, 경연 시 활동공간 임차료 · 발표, 경연 시 공연장 및 시스템 임차 · 회의장 및 연습공간 임차	1개 동호회당 월 150,000원 이내
행사 지원	- 발표회(문화공연, 전시 등) - 지역교류 행사 참여 경비 ※ 단, 동호회 자산취득이 되거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은 지원 제한	

※ 지원비 지출은 (사)부안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월별로 직접 지출되며, 행사지원금은 동호회별로 지원되는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자료: (사)부안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카페(http://cafe.daum.net/buanlifeart).

② 문화기획자 인력 배치

전북은 문화예술동호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2012년 '문화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시·군별로 1명씩 기획인력을 배치하였다. 이후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문화기획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5년부터 현재

까지는 '사업보조인력'이라는 명칭으로 지원하고 있다. 명칭의 변경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크게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기획자의 역할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실무 총괄지원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사업 초기에는 기획자들이 기초과정 워크숍, 현장연수, 평가과정 워크숍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교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교류의 장은 운영되지 않는다.

채용자격요건은 문화예술 관련 학위소지자 또는 법인·민간단체 및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로 정하고 있다. 2012년 사업 초기 채용조건에는 시군 현장근무임을 감안하여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조건을 두기도 하였다.

③ 도(道) 차원의 축제 지원

전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라북도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매년 10월 중에 전라북도 도청을 중심으로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축제는 각 분야의 공연·전시와 동호회 간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야외공연 및 행사로 진행되었다. 예산은 2억 4천만 원으로 전액 도비로 진행하였다. 전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나, 2015년에는 도 정책의 변화 및 전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협의회 내부문제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2016년에는 전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협의회 주관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 및 각 시·군 동호회 네트워크에서 재원을 모아(시 200만 원, 군 100만 원) 약 2천 1백여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였다[11].

(3) 네트워크 구축

전북은 2012년 상반기에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및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12년 설립 당시 명칭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였으나, 2013년 이후 '네트워크'를 삭제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12]'로

---

11) 전북매일신문, 2016년 8월 30일자,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 멋과 끼로 놀자".

12) 전북생활문화동호회는 현재 '전북생활문화동호회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변경하였다.

전북 14개 시·군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구축은 관 주도하에서 「2012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해 일괄적으로 만들어졌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의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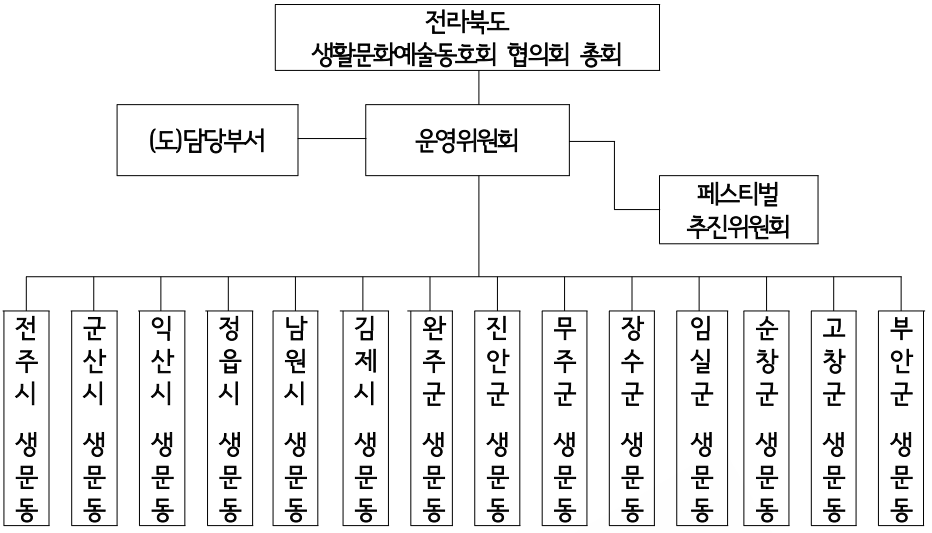
시·군별 동호회 네트워크는 동호회 장르별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트워크에 가입한 회원을 중심으로 위원회 및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동호회를 지원 및 운영하고자 하였다.

[표 3-11] 전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조직 구성 및 기능

구분		내용
전북 생문동[13] 네트워크	네트워크 총회	- 구성: 14개 시군동호회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임원들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장을 맡음 - 기능: 최고 의결기관으로 조직의 창립 및 해산 등 중요사항 의결
	운영위원회	- 구성: 시군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로 구성 - 기능: 총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집행
시군 생문동 네트워크	네트워크 총회	- 구성: 시·군 동호회 네트워크에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 운영위원장이 회장이 되며, 각 동호회 대표가 총회의 대의원 - 기능: 최고 의결기관으로 조직의 창립 및 해산 등 중요사항 의결
	운영위원회 (이사회)	- 구성: 분과위원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로 구성(위원장, 운영위원, 감사) - 기능: 총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집행
	분과위원회	- 동호회 장르별 7개 분과구성(시군의 실정에 따라 조정)

자료: 전라북도, 2012,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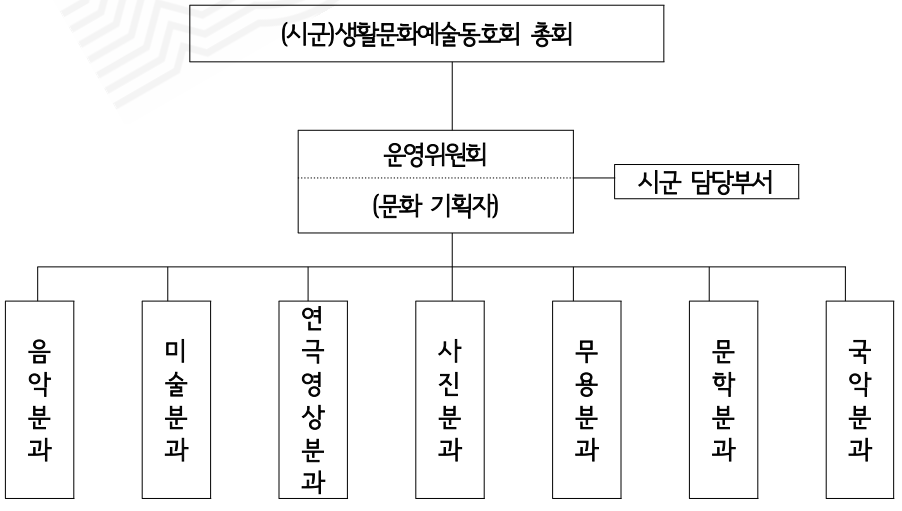
13)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생문동'으로 줄여서 표기함.



자료: 전라북도, 2012,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 지침".

[그림 3-6]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조직

전북생활문화예술협의회는 14개 시·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북(도 단위) 동호회 축제 주관단체로 활동하였으나, 2014년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축제가 없어지면서 활동이 축소되었다.



자료: 전라북도, 2012,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 지침".

[그림 3-7] 전라북도 시·군별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조직

전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 최초의 사례이다. 동호회의 경우 동호회별로 진행되는 활동이 많아서 지역 간 교류가 상대적으로 약한데, 정책추진과 더불어 시·군별 네트워크 조직화를 통해 교류가 이루어지고, 동호회의 단기간 내 가입이 많아지는 등 동호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성과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동호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의 편차가 심하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동호회들의 주체적 이해나 자발적 의지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관 주도로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동호회 간의 혼란과 도정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3) 경기문화재단

(1) 개요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계획은 문화가 있는 삶의 일상화를 위해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전문인력 교육,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자치공간에 문화커뮤니티 조성 등을 전략과제로 삼고 있다[14]. 경기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인 2015년 4월에 광역문화재단 가운데 가장 먼저 생활문화팀을 신설하였고, 생활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경기문화재단은 생활문화의 개념을 '일상 속에서 시민이 행하는 자발적 문화 활동'으로 정의하고, 예술 장르나 동아리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범위를 넓혀 생활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기존에 경기문화재단은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과 별 차이 없이 동아리를 공모하고 선정하여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의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생활문화팀 신설 이후 가장 먼저 각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문화사업들을 조사하고, 광역재단으로서 역할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경기문화재단의 역할은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중간지원기구의 특성을 살려 직접 사업 수행보다는 ①생활문화 공간 조성 및 기초 문화재단과 지역플랫폼

14) 경기문화재단, 201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요약 vi.

을 지원하면서 생활문화 환경을 마련하고, ②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면서 생활문화 담론 및 행위 주체를 키우고, ③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여러 차원의 행정 단위들과 지역 민간주체들 사이에서 매개·소통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15].

이러한 변화에 맞춰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의 2016년 주요사업은 경기생활문화지표를 위한 정책 및 측정 틀 연구, 도 내 생활문화 거점 및 생활문화인력 발굴을 위한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경기생활문화포털 사이트 '매생이' 운영, 기초문화재단 네트워크 모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업내용

① 생활문화정책연구

경기문화재단은 생활문화 영역에서 성과평가 환류방식에 대한 정책연구 필요에 따라 정책성과평가의 핵심가치를 '정책 수혜자(개인)의 행복'에 두고 경기형 생활문화 사업성과 평가지표를 모색하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기존 문화지표의 질문 방향이 기관의 만족도에 그치는 질문이거나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을 평가하거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급자의 관점이 아닌 지역과 참여자의 시각에서 '행복'의 체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②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은 도내 31개 시·군 내 기존 생활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 문화원, 문화의집, 민간단체 등을 거점기관으로 삼아 지역의 문화자원과 문화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간 등을 발굴하여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내 특성화 공간 발굴을 통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 주민을 생활문화강사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성과 견인을 위한 생활문화플랫폼 매개자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있다.

---

15) 경기문화재단, 2016, 「경기도 생활문화지표를 위한 정책 및 측정 틀 연구」, P.38.

201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도내 16개 플랫폼을 선정하여 3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으로 지정된 거점센터에서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생활문화 관련 사업을 만들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정한 컨설턴트들이 생활문화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컨설팅해주는 것이다.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곳에서 '지역 내 거주하는 문화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는 데 있다.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생활문화 디자이너'라고 칭한다. 생활문화디자이너는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지역 내 거주하는 창조력과 기획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사업의 한 예로 이천에서 발굴·기획한 '내 인생의 첫 번째 술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사례: 이천문화원의 '내 인생의 첫 번째 술잔' 프로그램>
이천은 이천을 대표하는 문화로 쌀과 도자기가 있다. 하지만 쌀과 도자기가 지역주민들의 삶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자원으로는 도예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술을 빚을 수 있는 사람, 춤·민요·사진 등 예술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있었다. 이천은 청소년 범죄율이 높고, 특히 술 때문에 만들어진 범죄율 또한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이천의 문화자원과 엮어서, 수능을 마친 고3을 대상으로 '내 인생의 첫 번째 술잔'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술잔을 만드는 도예체험과 쌀로 술을 빚는 체험을 하고, 지역 어른에게 주도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소리, 춤, 그림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와서 풍류를 가르친다.

이처럼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은 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은 플랫폼으로 지정된 16개 거점을 근거로 거점 축제를 지원하고 있다. 축제의 내용은 시민주체 강좌, 마을기록반 전시, 플래시몹, 청춘 춤판 등 지역에서 발굴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③ 경기생활문화포털 '매생이' 구축

경기문화재단은 도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활문화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문화포털 '매생이(매일매일 생활문화 이야기의 줄임말)'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생활문화포털 매생이는 생활문화예술단 소개와 생활문화 관련 행사·공간·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표 3-12] 참고).

[표 3-12] 경기문화포털 매생이 미션·비전 및 구성

구분	내용	
비전	- 문화로 삶이 풍요로운 생활문화 선도도시 경기 -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문화활동 촉진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세대 간 화합을 통한 도민의 행복도 향상에 기여	
미션	- 생활문화 사업 기반 조성, 생활문화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생활문화 확산과 육성을 위한 지원	
포털 구성	소개마당	홈페이지 소개, 비전&추진방향
	생활문화예술단	생활문화예술단 현황, 예술단파견신청
	정보마당	행사정보, 공간정보, 지원정보, 기관현황
	열린마당	공지사항, 아카이브, 문의게시판, FAQ

출처: 경기생활문화포털 매생이 홈페이지(http://culture4all.ggcf.kr).

[그림 3-8] 경기문화재단 경기생활문화포털 '매생이'

'매생이'는 경기 생활문화에 하나의 명찰을 달아 주는 사업으로,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주고, 경기지역이 가지고 가야 하는 색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또한 단순한 정보제공 포털을 넘어 시도 문화재단 등 생활문화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해 나가고 있다.

경기생활문화포털 매생이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는 단계로 완전히 활성화된 상태는 아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시민들이 직접 이 포털을 찾고, 회원등록을 해야 하는 동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④ 생활문화예술단 순회파견사업

'생활문화예술단 순회파견사업'은 생활문화동호회의 나눔 활동지원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나눔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아리를 문화나눔이 필요한 소외계층 유관기관이나 복지시설과 연계해주는 형태이다. 지원동호회 수는 약 20여 개로 1개 동호회당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제작비, 임차비, 진행비 등으로 구체적 내용은 [표 3-13]과 같다.

[표 3-13]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예술단 순회파견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세부 항목	내용
인건비	기획료, 출연료 등	인건비 편성 불가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	프로그램 진행 관련 현수막 제작비용
	재료 구입비	프로그램 진행 관련 소모품 및 재료 구입
임차비	기자재임차비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자재 임차 (음향장비 등)
	차량임차비	행사당일 동호회원 이동을 위한 차량 대절
진행비	교통비	행사당일 동호회원 이동에 따른 차량 유류대금
	운송비	대형 기자재 및 장비 운송 건에 한 해 사용 가능
	식음료비	행사 당일 사용 건만 인정하며, 사용금지업종은 불가함 - 참여 동호회원 1인당 최대 1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2_국외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례

1) 영국 자발적 예술네트워크(Voluntary Arts Network)

(1) 개요

자발적 예술은 영국 내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수익이 목적이 아닌, 자기 계발, 사교 및 여가 등의 목적을 위해 시민들이 수행하는 예술을 지칭한다[16].

자발적 예술 네트워크(Voluntary Arts Network, 이하 VAN)는 1991년 영국 및 아일랜드의 자발적 예술을 위한 지원 및 자발적 예술의 확산을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는 2016년 대략 63,000개의 자발적 예술 집단이 있으며, 천만 이상의 국민들이 창의적 문화 활동에 자원하여 참여하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자발적 예술 집단은 49,140개로, 영국의 전체 예술 활동 참여 1/5 정도를 차지했다. 또한 자발적 예술 활동은 국민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VAN은 예술이 문화의 핵심이며 영국 국민의 건강, 사회 및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제안한다. 이들은 모든 영국 국민이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책 담당자, 후원자, 정치인과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자발적 예술 분야에 참여하는 수천의 그룹 및 개인들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대상으로는 300개 이상의 전국 또는 지역 조직들, 그리고 지역의 자발적 예술가 그룹들이 있다. 따라서 VAN은 지역 공동체 내에서 어떤 보수와 무관하게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며 예술 활동의 질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창의적인” 시민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펼친다.

---

16) 전수환, 2011, “영국의 VAN을 소개합니다”, 「플랫폼」 2011년 9·10월호(통권 29호), pp.14~17, 인천문화재단.

17)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Arts Council England, 2008, “Our Creative Talent: the voluntary and amateur arts in England”.

(2) 운영현황

① 운영 전략

VAN의 비전과 미션은 전략 계획(Voluntary Arts Strategic Plan 2014-17)에 잘 드러나 있다. 또한 환경조사 및 분석으로부터 얻은 주요 쟁점들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전략 체계도 살펴볼 수 있다([표 3-1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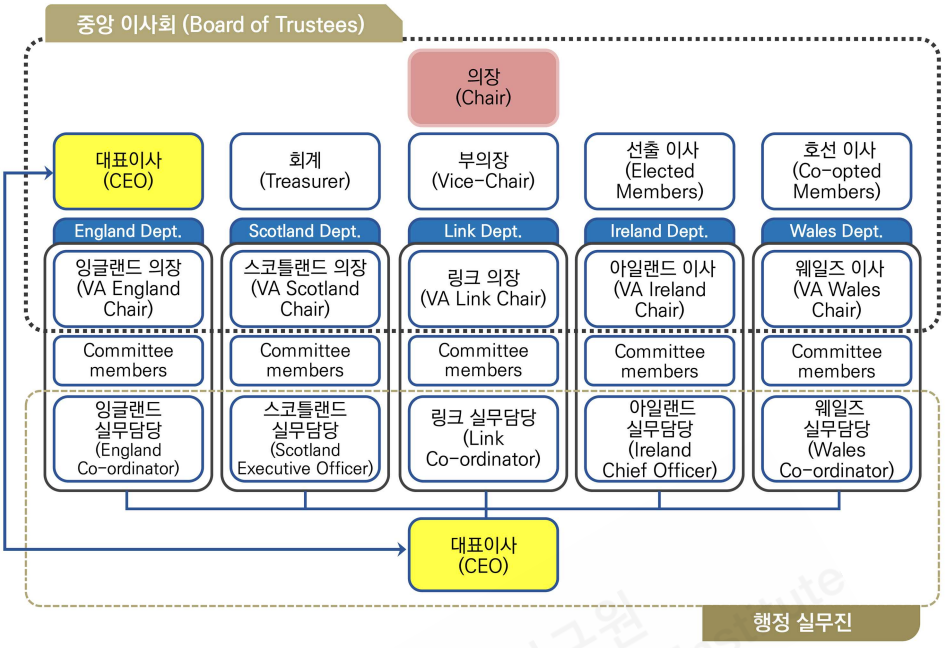
[표 3-14] VAN의 비전, 쟁점 및 전략 체계

항목	내용
비전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참여하는 시민 사회
미션	비전 달성을 위해 창의적인 문화 활동에 국민들의 참여 증진
쟁점	- 지역 시설들에 대한 경제적인 감당, 사용 가능 여부, 품질 개선 - 다양한 지역 공동체들과의 소통 개선 및 확장 - 디지털을 사용하는 창의적인 문화 활동에 참여 도모 - 자치 그룹들의 지속가능성/회복력을 강화 - 독립된 자치 그룹들과 지역공동체 간 소통 개선 - 자원 활동의 기회 확장 및 개선 - 정보제공 및 조언 통해 개선된 규제 체계 준수 지원 - 활동 집단들의 신입회원 및 청중 확보 지원 - 재정 지원금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자치그룹에 관심 또는 기술 보유한 젊은 층 지원
활동 영역	- 연결: 연합, 협력, 정보망, 중개 - 영향: 청원, 옹호, 대표, 상담, 연구 - 발전: 정보, 조언, 훈련
전략 체계	- 연결: 문화적 다양성, 디지털 소통 및 제작, 건강과 웰빙 관련 새로운 연합 형성 - 영향: 지역 문화 기반시설의 지속 및 발전 위한 새로운 문화정책 위한 캠페인 - 발전: 문화 활동의 지속과 회복을 위한 온라인 자원 형성

자료: 「Voluntary Arts Strategic Plan 2014-17」, 자발적 예술 네트워크 웹사이트(http://www.voluntaryarts.org).

② 조직체계

VAN은 영국과 아일랜드에 총 5개의 지부(department)와 사무실이 있다.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4개 지부와 각 지부를 연계·총괄하는 연결지부(Link 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위원회가 있다. 현재 17명의 스태프와 6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VAN의 조직체계는 이사회(Board), 위원회(Committee) 조직, 스태프(staff) 및 자원봉사자(volunteer)로 구성된다([그림 3-9]) 참고.



출처: 조현성, 2014,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31.

[그림 3-9] VAN 조직체계

이사회는 VAN의 운영에 있어 결정권한과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주요 정책의 수립에 참여하며 단체의 비전과 미션이 지켜지도록 한다. VAN은 보증유한책임회사[18]인 동시에 자선 단체이다[19]. 대표이사는 부서의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며, 이들 중 일부는 상급 관리팀(senior management team)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나아가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스태프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른 시행 결과를 이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각 지부 위원회의 의장은 이사회 소속이면서 동시에 위원회의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부 의장이 이사회에서 어떠한 결정에 참여할 때에는 VAN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임하고, 한편 위원회를 위해 일 처리를 할 때는 자신의 지역을 효과적으로 대표할 수

18)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해 자신의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한다. 파트너십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 형태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9) 조현성, 2014,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30.

있도록 노력한다. 각 위원회는 의장, 스태프와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한다. 사업 계획이 실제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부처 의장 및 스태프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계획하여 이사회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하도록 돕는다.

[표 3-15] VAN 각 조직 구성원과 역할

조직명	내용
이사회 (Board)	- 역할: VAN의 전반적인 운영 및 최종적인 책임 - 구성원: 의장, 부의장, 회계, 5개 부서 의장, 대표이사, 선출되거나 선임된 이사 - 임기: 3년, 연임 1회 가능 (선출 임원은 매년 갱신, 연임 5회 가능) - 정례회의: 연 4회
위원회 (Committees)	- 역할: 이사회에 부처마다 필요한 사항 전달, 계획 시행 여부 확인 - 구성원: 5개 지부 의장, 각 지부 위원 및 스태프 - 임기: 3년
직원(staff) 및 자원봉사자 (volunteer)	- 역할: 최고 책임자를 통해 위임받은 업무 수행 - 구성원: 상급 관리팀, 일반 스태프

자료: 「Governance Hand Book」, 자발적 예술 네트워크 웹사이트(http://www.voluntaryarts.org/).

③ 재원

VAN은 National Portfolio Organization으로 선정되어 매년 예술위원회(UK Art Councils) 네 곳(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2012~2013년도에는 10만 파운드, 그 이후에는 9만 5천에서 9만 7천 파운드 정도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원을 받는 다른 700여 개의 단체들과 비교해볼 때 이는 460~470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이 많지는 않다[20]. 영국 예술위원회의 지원 외에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협력하는 다른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면서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④ 활동내용

■ 프로젝트

VAN은 자발적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룹의 활동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참여 증진을

20) 조현성, 2014,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33.

위해 Voluntary Arts Week, Epic Awards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표 3-16] 참고).

[표 3-16] VAN의 프로젝트

구분	내용
자발적 예술 주간 (Voluntary Arts Week)	- 2011년부터 매년 5월 영국, 아일랜드 전역에서 일주일간 진행 - 공개 행사를 통해 자발적 예술 집단의 활동을 알리고 신입회원을 모집
Epic Awards	- 자발적 예술단체의 성과를 기념하고 지원 및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시상 프로젝트 - 2010년부터 매년 판정단과 네티즌의 선정으로 자발적 예술단체 시상 - 젊은 층 및 장애인 활동을 대상으로 한 시상도 진행 - 우승 시 멘토링, 교육 및 활동에 필요한 용품 제공, 상금 수여
#LoveTo	- VAN이 매월 예술 활동 주제를 선정(예: 춤, 그림, 사진 등)하여 공지 - 참여자들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소통 - 2015년부터 'BBC Get Creative' 캠페인과 통합하여 시행
BBC Get Creative	- 2015년 영국 공영 방송 BBC와 'What Next?'라는 예술문화단체가 주최하는 1년 단위의 예술 문화 캠페인 - 예술그룹의 활동을 공유하고 참여를 도모
Up for Arts	- 2015년부터 BBC 지역 라디오와 협력하여 예술 및 공예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 - BBC 지역 라디오 무료시간대를 이용하여 예술 관련 교양정보 및 생활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보(단체, 장소)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림
Our Cultural Commons	- 2014년 지역의 문화적 삶을 개선하고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VAN과 Arts Development UK가 협력하여 형성 - 지역 문화 제도 중 지역 기반시설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례 발굴 - 문화정책과 구조, 재정적 지원 등의 쟁점을 논의하는 전국 토론회 개최
Grow your own Cinema	- 2016년 VAN이 Cinema for All과 협력하여 1년간 진행 - 영상을 다루지 않는 자발적 예술단체가 영상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영상 관련 동아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 - 2016년 스코틀랜드에서 4개 지역에서 25개 단체를 지정하여 영상교육을 진행하고, 각 지역 공동체에서 상영
Culture Guides	- 취약계층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유럽 연합 중 영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 프로젝트 시행 - 문화 가이드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참여 시민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가이드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자료: 자발적 예술 네트워크 웹사이트(http://www.voluntaryarts.org).

⑤ 자발적 예술 주간 축제(Voluntary Arts Week)

■ 개요

매년 5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자발적 예술 주간'은 창의적인 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들이 예술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자발적 예술 동아리들은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지난 1년간의 동아리 활동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이를 통해 동아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새로운 회원을 얻는 등 규모 측면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발적 예술 활동 자체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지역 공동체에서 활동하던 동아리가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발적 예술 네트워크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표 3-17] 참고).

[표 3-17] 자발적 예술 주간 참여의 필요성

활동 필요성	세부 내용
규모 성장	- 새로운 회원과 자원 근무자 모집 가능 - VAN이 제공하는 행사 아이디어나 자원을 통해, 동아리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전시 및 홍보
인지도	- 지역 미디어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새로운 참여자들과 청중들의 관심을 모음
성취 기념	- 1년간 노력한 회원들이 모여 성취를 기념
소속감	- 전국적 규모의 축제에 참여하여 네트워크에 소속감 증진
자발적 예술 활동 고양	- 축제에 더 많은 동아리가 참여함으로써, 지역적 및 전국적인 결정권자와 투자자가 문화 활동의 중요성 체감 가능

자료: 자발적 예술 주간 웹사이트(http://voluntaryartsweek.org).

■ 참여방식

축제에 참가하고자 하는 예술단체는 자발적 예술 주간 웹사이트에 가입한 후 자신의 행사를 등록함으로써 축제에 참가할 수 있다. 처음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는 진행할 행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과정을 어려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최 측은 크래프트밤, 플래시몹 등의 행사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나아가 접근성을 고려해 행사 위치를 계획하기, 후원받는 법,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 등을 웹사이트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 축제내용

축제는 기본적으로 예술 장르별로 구분되며, 개별단체 참여프로그램과 연합형태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표 3-18] 참고).

[표 3-18] 자발적 예술 주간의 활동내용

활동	세부 내용
예술 공연 단체	- 플래시몹, 노래 창작 및 부르기, 공개 리허설, 특별 공연, 체험(Taster session)
시각 예술 및 공예 단체	- 크래프트 밤, 공예, 체험 워크숍(come and try), 워크숍, 작품 전시 - 자연에 전시하는 모직 공예품(Woollen woods)
모든 자발적 예술단체	- 추가적인 홍보 권장
예술단체 간 소통	-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같은 장르의 예술 분야나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협업 - 지역의 새로운 장소에서 행사 진행

자료: Voluntary Arts Network, 2015, 「Voluntary Arts Briefing "How to get involved in Voluntary Arts Week"」.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자발적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VAN은 축제 홈페이지에 그룹명을 등록하여 추가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디어 자료(media toolkit)를 활용해 행사를 알릴 수 있게 했고, VAN의 축제 로고를 비롯한 다양한 마케팅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축제는 다른 자발적 예술 집단, 조직, 장소와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다. 축제의 한 기능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같은 장르나 다른 장르의 예술단체와 소통하고, 예술활동에 있어 협업이 가능한지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합창동아리가 모여 함께 플래시몹을 진행하거나, 유소년 오케스트라 단체와 유소년 춤 단체가 함께 연합공연을 진행하거나, 사진 단체는 공예 단체가 크래프트밤에 참여했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기록하는 방식 등이 있다.

⑥ 단체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제공

VAN의 웹사이트에서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예술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표 3-19] 참고). 이 외에도 VAN의 웹사이트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예술 행사 및 그룹, 자원 활동봉사, 구직 기회 등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된다.

[표 3-19] VAN이 제공하는 자료

자료명	내용
브리핑	- 예술 활동 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가이드로 150여 개 이상의 브리핑 - 주제: 홍보마케팅, 모금, 활동 기록 방법, 저작권 관련 이슈,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방법, 예술 활동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방법 등
후원금	- 후원 프로그램 혹은 대회 후원정보
교육	- 교육 및 훈련 행사 일정, 지역과 시작일로 분류 가능
가족 예술 캠페인	- Family Arts 캠페인과 Family & Childcare Trust가 제안한 기준 - 자발적 예술 집단에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의 필요성 - 예술 집단에 참여하는 가족들을 대하는 가이드라인 12가지
그룹 운영 조언	-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주 운영되었던 'Running Your Group Weekly'는 자발적 예술 관련 인사들이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질문에 피드백이나 조언 - 웹페이지에서 동영상 자료 열람 가능
그 외 출판물	- 다양한 가이드(toolkit) 및 보고서 수록 - toolkit의 예: 자원 활동, 자발적 예술 활동을 통한 웰빙, 독립적인 자원 예술 집단을 형성하는 과정 등 - 보고서의 예: 스코틀랜드의 자발적 예술 활동 분석, 성인 교육에서의 예술 등

자료: 자발적 예술 네트워크 웹사이트(http://www.voluntaryarts.org), 가족 예술 캠페인 웹사이트 (http://www.familyarts.co.uk).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⑦ 성과

「전략 계획 2014-2017」에서 VAN이 제시한 세 가지 전략체계를 통해 활동성과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전략은 '문화적 다양성, 디지털 소통과 제작, 건강과 웰빙 관련 새로운 연합의 형성'이었다. VAN은 다양한 공동체의 문화 활동에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2014년 5월 고문단 계열에 BAME(Black, Asian and Minority Ethnic) 패널을 추가했다. 또한 영국 국영방송의 예술 계열(BBC Arts)과 협력하여 BBC Creative 캠페인에 참여했고, 브리스톨의 우지마 라디오(지역 공동체 라디오국)와 협력하는 등 새로운 협력 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했다.

두 번째 전략인 '지방 문화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문화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Arts Development UK와 협력해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을 범위로 한 Our Cultural Commons라는 토론의 장을 형성했다.

마지막 전략인 '문화 활동의 지속 및 회복을 위한 온라인 자원 형성'에 관해서는 2014년에 VAN 웹페이지의 인터페이스 개선 및 이전 자료의 통합과 업데이트를 시행했다. 연말에

VAN 관련 정보 서비스(홈페이지, 뉴스레터,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총 이용자 수는 44,591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의 35,418명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였다. 또한 2014년 8월에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LoveTo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15년 Epic Awards에는 2014년보다 지원자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VAN은 새로운 연합 형성, 문화정책 캠페인 그리고 온라인 자원 형성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고, 자발적 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金沢市民芸術村)[21]

(1) 형성배경

가나자와시는 이시카와 현 소재의 인구 46만 명, 면적 468㎢ 의 도시이다. 17세기 후반부터 가나자와 성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그 도시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다. 가나자와 미술, 공예, 학문, 자기, 염색 등 전통공예, 민요, 다도, 꽃꽂이, 요리, 과자 등 다양한 지역문화를 자랑한다. 가나자와시는 본래의 지역문화를 잃지 않도록 내발적(內發的) 문화정책을 지향하고 외래적 개발을 억제해 왔다. 특히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옛 야마토(大和) 방적 공장을 시가 매입해 벽돌 창고를 재정비하여 1996년 8월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을 개설하였다.

(2)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형성과정

1993년 약 97,000㎡ 규모의 공장 부지를 인수하고, 1994년 부지 이용계획에 따라 학계전문가와 문화 관련자 6명의 조사팀이 결성되었으며, 이듬해 1995년 가나자와시공회당운영재단(이후 가나자와문화창조재단으로 개칭) 내에 「가나자와 예술문화마을개설준비실」이 발족되었다. 창고들을 활용한 계획에서는 크게 공사하지 않고 약간 더러워도 문제가 없는 시설 활용이 검토되었으며 그 결과, 예술 활동이 최적이며 연습과 제작을 위한 공방 사용이 적합

---

21) 大場吉美, 2007, "金沢市民芸術村､そして金沢市の文化戦略とその意味：文化の重層的未来を志向する元気な街づくり", **NIRA Case Study Series** No.2007-06-AA -7. / 津田純佳, 2008, "地域文化による内発的まちづくりの持続可能性について", **弘前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教科教育専攻**/赤松はな·深沢祐一·菅野幸子·張ジヨン·中村美帆, 2009, "文化施設における市民協働のかたち：金沢市民芸術村を事例に", **日本文化政策学会** 2009年度研究大会 発表資料 등 3개 자료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활용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내 예술 관련 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역 시민들과 단체들의 요구는 "창작활동의 자유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표 3-20] 참고).

[표 3-20]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설립 시 시민과 단체들의 요구

분야	내용
연극 분야	- 대부분 별도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사용 가능해야 함 - 일요일과 공휴일은 모두가 모여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리허설을 위한 무대를 설치를 위해 못을 자유롭게 박을 수 있는 가설공간이 필요함 - 조명,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 장시간 사용 및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필요함. 대도시가 아니어서 유명 스타나 예술인이 아닌, 준프로 정도의 애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교육도 필요함
음악 분야	- 가능한 야간이나 새벽, 쉬는 날에도 이용 가능해야 함. 또한 혼자 연습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의 개인 연습실이 많이 필요함 - 작은 연주회나 전문적인 수준의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획적 도움이 필요함 - 학교나 학원의 음악교육이 아닌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고 음악 무대를 제작하는 등의 사회적 음악 보급 활동이 필요함
미술 분야	- 무엇을 해도 좋은 시설이라는 생각은 바람직함. 다만 시설 부분에서 바닥은 최적이지만, 평면 작품은 벽 구조물의 장식형 성향이 강해서 벽을 수정할 필요 있음 - 미술 작가들의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플러스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함

자료: 大場吉美, 2007, "金沢市民芸術村.そして金沢市の文化戦略とその意味 : 文化の重層的未来を志向する元気な街づくり", NIRA Case Study Series No.2007-06-AA -7.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운영 기본 방침은 이 시설이 "자신들의 집이며 방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라도 어떻게라도 이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고, 항상 변화하는 창조적 활동에 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주변 관계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점도 의견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유연한 공방 운영을 위해 이용자 대표로서 시민 디렉터를 두고 규제 범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처음에는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문화는 사람이며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문화를 키우는 이 시설의 역할이다"라는 이념으로 시민디렉터 제도가 만들어졌다.

(3)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운영사항

① 설립목적과 방향성

시민예술촌의 설립목적은 문화의 창조를 담당하는 시민들이 모여 새로운 예술 활동을 펼치고 연극, 음악, 무용, 미술활동 등의 연습, 제작, 연수 및 성과 발표를 하는 장소로 이용함으로써 시민문화의 질적 향상과 풍부한 지역 문화 토대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지역문화의 거점', '활기찬 거점', '새로운 문화 창조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세 가지 기본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각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이질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기존 문화와 조합시켜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는 가나자와의 독자성과 이를 간직한 시민 개개인의 활동이 태동하는 지역문화 거점으로 자리한다. 둘째, 사람들의 관계가 풍부한 마을 만들기를 지향하고 지역 커뮤니티 재생과 차세대 담당자를 키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기찬 문화 거점이 되게 한다. 가나자와는 도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민 사회 파트너십이 중심이 되는 지역 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예술촌 역시 도시 문화 코디네이터로서 조정 역할, 다시 말해 지역 문화자치 실천에 거점이 되고 있다. 셋째, 문화를 연마(練磨)해서 질적 차원을 향상시키는 관점으로 기본적으로는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시민이 주역이라는 점을 축으로 시민 예술촌은 무언가를 표현하거나 기획하거나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창조적 거점인 것이다.

[표 3-21]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운영 방침과 방향성

기본 방침	방향성	특색
지역문화의 거점	- 융합에 기초한 가나자와의 독자성과 이를 간직한 시민문화의 발현	- 시민들에게 남아있는 옛 기억을 문화공간이라는 새로운 활동 거점형태로 구현
활기찬 거점	- 사람들의 커뮤니티 관계 개선과 이를 확장시키는 매개자 육성	- 24시간 운영, 저렴한 이용요금, 시민 디렉터 제도 도입 등 시민이 주역이 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이양
새로운 문화 창조의 거점	- 시민이 주역 + 창작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예술 표현의 구체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	- 젊은이들의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실현되는 단계를 최소화시킴

자료: 大場吉美, 2007, "金沢市民芸術村.そして金沢市の文化戦略とその意味: 文化の重層的未来を志向する元気な街づくり", NIRA Case Study Series No.2007-06-AA -7.

이러한 방향성 아래 시민예술촌은 옛 공장의 흔적을 지우기보다 시민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그것을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재생하여 새로운 융합을 시도하였다. 또 24시간 운영과 저렴한 이용요금, 시민디렉터에 의한 사업기획 등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구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시설이 되었다. 행정과 시민, 전문가들이 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예술 마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운영방식은 시민예술촌이 활기찬 거점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중심 생각으로 자리했다. 그리고 젊은 시민디렉터들의 활동은 시민예술촌이 새로운 창작과 실험의 산실이 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였다.

② 운영개요

시민예술촌은 가나자와예술창조재단에서 운영을 맡고 있으며, 문화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 근무체계를 따르기보다는 시민 참여에 의한 운영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극, 무용, 음악, 미술 각 분야에서 2명씩 총 8명의 시민디렉터를 선출하여 이들이 이용 방법, 사용 규제, 공간 관리, 사업 계획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촌장, 총괄디렉터, 시민디렉터를 주축으로 고문 역할의 아트디렉터와 어드바이저가 지원하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운영을 시민디렉터가 맡는 것은 아니다. 재단법인의 각 행정 실무자들이 경영과 회계 부분에서 시민디렉터를 지원하고 있다. 한 해 평균 사업비는 2,400만 엔 규모이며 시민디렉터에게는 기획비 5만 엔, 교통비 및 통신비 명목으로 5만 엔, 합쳐서 월 10만 엔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시민디렉터들은 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일을 하면서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예술촌의 이용객은 한 해 평균 22만 명 정도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음악 공방은 연간 38,000여 명이 이용한다. 특히 스튜디오 B(Rock 전용)의 경우 연간 6,073시간, 1일 평균 16시간 58분이 사용되는데 주요 이용시간대를 보면 사회생활을 마치고 저녁 또는 밤에 모여 늦게까지 연습하거나, 출근 전 짬을 내서 피아노 연습을 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공기 같은 존재로서 시민예술촌'이라는 그들의 슬로건은 이와 같은 이용현황이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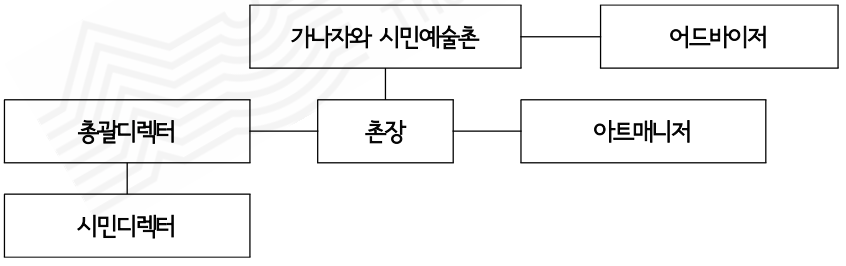
[표 3-22]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이용자 현황

공간분류	이용자 · 입장객 수(명, %)		
	2012	2013	2014
피트1(멀티)	19,585	16,619	18,659
피트2(드라마)	24,904	23,226	26,300
피트3(오픈)	7,994	6,278	5,998
피트4(음악)	36,899	39,912	37,381
피트5(아트)	33,478	25,251	23,133
사토야마의 집	15,838	16,265	14,941
연수동	19,460	21,156	20,111
퍼포먼스 스퀘어	41,210	41,604	34,754
야마토마을 광장	38,982	30,829	35,204
합계인원	238,350	221,140	216,481
전년비교	114.0%	92.8%	97.9%

자료: 가나자와예술창조재단, 2015, "2015 가나자와예술창조재단 사업보고".

③ 역할구성

앞서 설명했듯이 시민예술촌은 촌장, 총괄디렉터, 시민디렉터와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는 어드바이저, 아트매니저로 구성된다.



자료: 大場吉美, 2007, 2007, "金沢市民芸術村､そして金沢市の文化戦略とその意味:
文化の重層的未来を志向する元気な街づくり", NIRA Case Study Series No.2007-06-AA -7.

[그림 3-10]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조직도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디렉터의 역할인데 이들도 시설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각 공방의 사업을 계획하며 이용자들의 시설이용 편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관계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 총괄디렉터는 각 공방의 디렉터들과 연계하에 시민예술촌 전체 운영과 관련하여 총괄적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어드바이저와 아트매니저는 시민예술촌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디렉터의 경험적 측면을 보완해주고 운영방침과 계획에 대한 조언을 한

다. 시민디렉터의 업무는 담당 공방의 운영과 규칙 준수 및 문제해결, 이용자의 신청 허가 심사와 지도 및 조언, 자체 기획 사업의 운영(예산, 집행, 결산), 언론에 대한 정보제공과 대응, 참가자 동원 및 연간 홍보 프로그램 운영, 공방 비품의 요구와 정리· 관리, 시 감찰에 대한 대응과 협의, 월 1회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참석(이 회의가 실질적인 운영 의결 기관으로 역할) 등으로 시민디렉터가 시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역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표 3-2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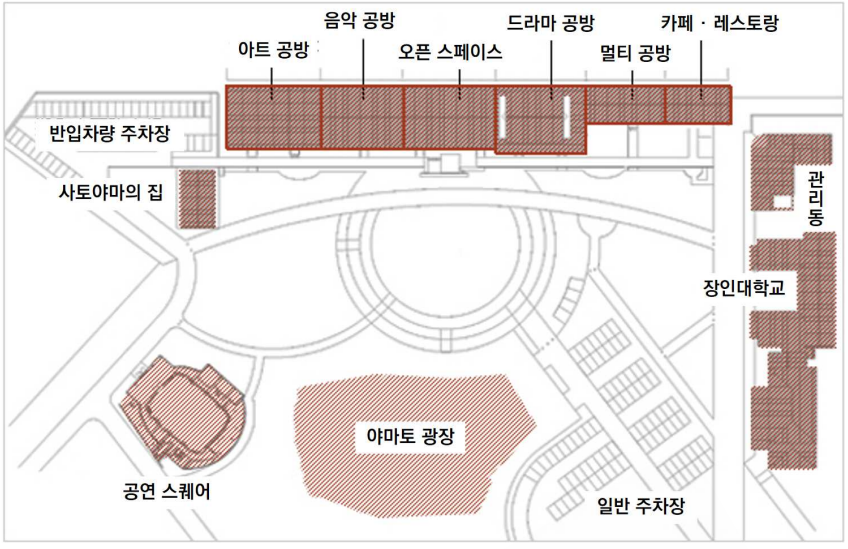
[표 3-23]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역할구성

역할	내용
어드바이저	- 활동목적: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운영에 대한 지도 및 조언 - 임무수행: 단체로부터 위촉, 임기 1년 - 정례회의: 연 2회 - 위촉위원: 4명
총괄디렉터	- 활동목적: 시민예술촌 운영에 관한 총괄적 견해를 가지고 기획 및 입안 - 임무수행: 단체로부터 위촉, 임기 1년 - 위촉위원: 총괄디렉터 1명
아트디렉터	- 활동목적: 시민예술촌 운영 협력과 지원 - 임무수행: 단체로부터 위촉, 임기 1년 - 위촉위원: 아트매니저 12명
시민디렉터	- 활동목적: 시민예술촌의 자주적 운영을 원활하게 함 - 임무수행: 단체로부터 위촉, 임기 1년 - 정례회의: 월 1회 - 임시회의: 수시 - 위촉위원: 드라마 공방 2명, 음악 공방 2명, 아트 공방 2명

자료: 大場吉美, 2007, 상게서.

④ 주요시설

시민예술촌은 부지면적 약 97,000㎡ 규모의 목조와 벽돌이 혼합된 구조로 멀티, 드라마, 음악, 미술의 기능을 가지는 4개의 공방과 전통가옥인 사토야마의 집, 카페·레스토랑이 일렬 구조로 배치되어 있고 전면으로 야마토 광장과 공연 스퀘어가 자리하고 있다. 또 옆쪽으로는 사무·관리동과 장인대학교가 병설로 위치하고 있다. 흔히 생각할 때 본래 있는 벽돌로 된 건물을 그대로 재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기존 소재를 토대로 새로운 건물로 재생한 사례이며 다만 분위기적 측면에서 시민들의 기억을 그대로 보존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홈페이지(www.artvillage.gr.jp)

[그림 3-11]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평면도

각 공방은 장르적 기능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중심에는 방문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오픈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이 공간은 드라마 공방과 음악 공방 사이에 위치하여 로비로 활용되는 동시에 방음 구실을 함으로써 양쪽 공간의 기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렬로 배열된 공방들 옆으로 일본식 전통가옥 형태의 다목적 문화교류 시설인 사토야마의 집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방 앞을 가로지르는 수로를 따라 야마토 광장으로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휴식을 위한 동선으로 이어진다.

시민예술촌 공간들의 가동률이 높은 이유로 자유로운 공간 활용과 신축 건물에 비해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장르에 따라 사용목적이 구분된 음악 공방을 제외하면 드라마 공방, 멀티 공방, 아트 공방과 공연 스퀘어까지 모두 가변형 시설을 채택하고 있어서 사용자에 맞춰 자유롭게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또 기존 건물의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원상 복구만 가능하다면 신축 건물과 달리 못을 박거나 색을 칠하는 것도 자유롭다. 각 시설이 가지는 세부적인 기능과 구성은 [표 3-24]와 같다.

[표 3-24]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공간구성 및 기능

시설명	특징	면적 / 구성	활용모습
멀티 공방 (PIT1)	- 장르의 제약 없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표현하고 연습을 위한 공간	148.34m 활동공간	
드라마 공방 (PIT2)	- 연극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객석과 무대 설치가 자유로움	842.27㎡ 가변식 무대 분장실(2)	
음악 공방 (PIT4)	- 중앙 스튜디오를 축으로 음악 장르에 맞춰 5개의 독립 스튜디오로 구성	497.61㎡ 중앙 스튜디오 기능 스튜디오(5)	
아트 공방 (PIT5)	- 입체식 계단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화이트 큐브 형태로 작품 제작 및 전시가 가능	685.61㎡ 제작공간 입체식 계단 창고	
사토야마의 집	- 일본 전통가옥의 특징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교류활동을 지원	301.51㎡ 일본식 방 서재, 부엌 등	
오픈 스페이스 (PIT3)	- 전면에 수상무대를 배치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771.45㎡ 수상무대 연극용 창고	
공연 스퀘어	- 대규모의 인원의 공연예술 연습과 연출이 가능 - 소규모 그룹과 개인 연습을 위한 공간도 배치	457㎡ 대형연습실(1) 소형연습실(2)	
야마토 광장	-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산책, 조깅, 피크닉, 오리엔테이션, 간단한 스포츠 놀이 등 다양하게 활용	19,350㎡ 잔디 광장 원형 광장	

자료: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홈페이지(www.artvillage.gr.jp).

⑤ 사업 운영

시민예술촌은 시민디렉터에 의한 자주사업(액션플랜)을 연간 200회 이상 실행하고 있다. 특징적인 부분은 시민과 예술가가 협업하여 작품 제작을 하거나 교류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Art Advice Day와 같은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사회성과 연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장인(職人)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술가, 다시 말해 장인들이 가진 전통문화를 이어나가고 특수한 예능인으로서 강조되기보다는 시민들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명맥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또 계승하고 있다.

시민예술촌은 계획 당시부터 젊은 층의 활동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나 뮤지션들의 활동도 꾸준하다. 중요한 점은 시민디렉터들이 젊은이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채택하고자 한다면 이들이 그대로 사업화되는 유연성인데 이 때문에 다양한 실험예술이 가능하게 된다.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품 제작비와 여비, 숙박비 등 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기업들의 후원을 받기도 한다. 지원에 대한 일정한 매뉴얼을 갖추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디렉터의 역량이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한 가지 시민예술촌의 중요한 역할로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자원봉사자는 시민디렉터와 함께 사업의 기획, 홍보, 관리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술마을 만들기라는 공통 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대활동을 벌이거나 같이 식사를 만들어 먹으면서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상호 협력이 조금씩 퇴색되어 가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다르게 시민 자원봉사자에게 도시락 요금을 징수하거나 무료로 이용되는 오픈 스페이스 공간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 금지사항을 스티커로 만들어 붙이는 등 전형적인 '행정 관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이 주역이라는 방향성이 변질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2].

---

22) 衛 紀生, 2007, "金沢市民芸術村での十年間を振り返って", 가나시문화창조센터 에세이 칼럼 (http://www.kpac.or.jp/kantyou/essay_14.html).

3_소결

최근 시민들의 문화향유 방식은 소극적 문화관람 형태를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예술을 배우고, 만들고, 누리는 생활문화예술 활동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생활문화가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일상 속 생활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활문화 지원정책의 경우 시민의 자발적 모임인 동아리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방향은 크게 활동환경 조성과 네트워크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매개자 발굴 및 육성이 중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그들의 주체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동아리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은 개별 동아리에서는 실현이 잘 되는 편이지만, 여러 동아리가 모였을 때는 어려움을 겪는다. 즉 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취미활동을 넘어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례로 매개자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25] 참고).

[표 3-25] 생활문화에서 매개자 역할

구분	역할 및 내용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 명칭: 문화기획자 (문화코디네이터에서 명칭 변경)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사업 실무 총괄지원 업무 진행
경기문화재단 문화플랫폼 사업	- 플랫폼 사업에서 선정된 거점기관이 매개자 역할을 함 - 지역 내 거주하는 문화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여 지역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 기획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 명칭: 시민디렉터 - 담당 공방의 운영과 규칙 준수 및 문제해결 - 이용자의 신청 허가 심사와 지도 및 조언 - 자체 기획 사업의 운영 (예산, 집행, 결산) - 언론에 대한 정보제공과 대응 - 참가자 동원 및 연간 홍보 프로그램 운영 - 공방 비품의 요구와 정리·관리 - 시 감찰에 대한 대응과 협의 - 월 1회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참석 (이 회의가 실질적인 운영 의결 기관으로 역할)

전북 사례에서 매개자(문화기획자)의 역할은 동아리를 성장시키고, 행정적 실무를 돕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통해 거점기관(문화원, 문화의집,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선정된 거점기관에서 지역 내 거주하는 문화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거점기관이 중간 매개자가 되어, 지역 내 자기 창조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지역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매개자는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으로 이러한 매개자를 '시민디렉터'라 칭하고 있다. 이들은 시설이용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각 공방의 사업을 계획하며 이용자들의 시설이용 편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내 사례의 매개자는 시민주도적 사업을 위해 시민리더를 키우는 과정이라면, 시민예술촌은 시민리더(시민디렉터)가 성장하여 시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 전반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매개자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리더를 키워내고, 여러 동아리로 구성된 문화공동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매개자'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매개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무환경(임금, 공간, 자격)을 만들고, 매개자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교육 및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2) 생활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에서 시민 주도적 방향 설정

생활문화예술동아리들의 지원요구를 살펴보면 1순위로 요구하는 것이 연습 및 발표공간에 대한 지원이다. 이러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중앙정부는 2014년부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또한 생활문화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생활문화공간 조성은 단순히 연습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공간 조성과 운영에 있어 섬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시설조성과정과 운영방식은 참고할 만한 선진사례라 할 수 있다.

시민예술촌은 초기 준비단계에서부터 시내 예술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조

성하였다. 시민예술촌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연습 공간 및 발표공간을 만들고, 24시간 운영, 저렴한 이용요금, 시민디렉터를 통한 주민주도 사업기획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시민예술촌의 주민주도형 운영 방식은 설립 초기에는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책임 이양이라는 관점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문화는 사람이며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문화를 키우는 시민예술촌의 역할이다"라는 이념으로 시민디렉터 제도가 만들어졌다. 국내의 많은 생활문화시설이 주민주도형 방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시민예술촌의 운영방식은 되새겨 볼만하다. 즉 시민주도 운영방식은 단순히 시민을 참여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시민, 전문가들의 협력적 소통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책임과 권한이 이양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일부 시민이 권력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공간을 사용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성장과정에 맞춰 단계별로 책임과 권한이 이양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의 성장과정을 돕는 것이 앞서 정리한 매개자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3) 민간 중심의 상향식 네트워크 구축

최근의 동아리 지원 방식은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개별 동아리에 대한 지원은 사적 영역이므로 공공 지원의 대상이 아니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VAN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동아리 네트워크는 동아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동아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공유과정을 통해 개별 동아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동아리 활성화에 기여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형성이 항상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조현성(2014)은 네트워크의 가장 큰 문제로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즉 네트워크 대표자의 성향과 운영방식에 따라 권력집단화되거나 이해관계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네트워크가 공공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향식 구축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지속성을 갖기 힘들다. 또한 하향식 네트워크 구축은 참여 동아리의 성향과 지역 특성에 따라 구축과정과 성장단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은 동아리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역별 현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성장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영역에서는 지역의 동아리들이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네트워크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과정 중심의 생활문화예술 축제 진행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지자체들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에 있어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생활문화예술 축제는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이자, 타 단체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동체의식이 생겨나는 계기를 만드는 자리이다. 하지만 관이 주도하는 많은 축제가 관이나 전문가가 준비한 기획에 동아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참여 동아리들의 피로도만 높이는 일회적 행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예술축제를 참여자와 관객의 숫자로만 평가하는 결과 중심적인 구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생활문화예술축제는 참여자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협동과 연대를 통해 성장하는 시민축제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생기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함께 만드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과정 중심의 축제는 동아리를 단순 참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 동아리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축제 참여자와 행정상 소통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축제에서 매개자는 시민조직이 민주적 소통을 통해 시민주도적 축제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관은 시민의 성장에 맞춰 권한과 책임을 단계적으로 이양한다는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5)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정보공유 플랫폼 필요

생활문화예술동아리는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며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동아리들이 겪는 어려움은 동아리 성격과 구성

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같은 장르의 동아리의 경우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VAN은 동아리들의 자발적 활동을 돕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 및 SNS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 및 운영방법, 후원받는 방법, 자원봉사 활동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단체를 소개하는 홍보창구로 사용되거나 타 동아리의 활동정보를 알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생활문화포털'도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경기도 내에서 지원되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 및 행사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04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운영실태와 욕구

1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기본운영 현황
2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인식과 욕구
3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인식과 욕구 심층인터뷰
4_소결

04 |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운영실태와 욕구

1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기본운영 현황

1) 조사 개요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로 공공기관과 연계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서울시의 협조를 통해 자치구별 조사담당자를 선정하여(서울시 문예지기 및 각 자치구 문화예술 담당공무원) 조사항목 및 조사기준을 배포하여 자치구별로 자체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개수는 1,329개로 집계되었다. 집계된 총 개수는 1,832개였으나 생활체육동아리(탁구, 국선도, 요가 등), 어학학습으로 추정되는 동아리(영어, 일어 학습반 등), 불성실 응답 동아리 등 503개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29개 동아리를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동아리명, 활동장르, 주요 활동내용, 모임장소, 평균 참여인원, 설립시기, 모임주기, 온라인 활동 여부, 월 회비, 지원요구사항 등이다.

[표 4-1]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실태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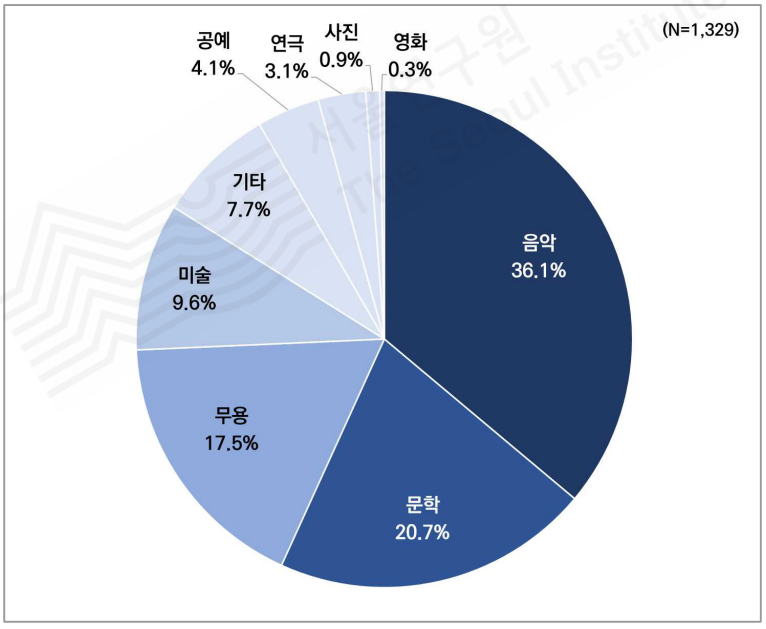
조사대상	자치구 내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중심)
조사방법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협조를 통한 자치구별 자체조사 서울시 문예지기 및 각 자치구 문화예술 담당공무원 조사진행
조사기간	2016.4.1 ~ 2016.5.31
조사내용	동아리명, 활동장르, 모임장소, 주요 활동내용, 평균 참여인원, 평균 연령대, 월 회비, 설립시기, 모임주기, 온라인 활동 여부, 지원요구사항

자치구별 자체조사로 진행하다 보니 자치구별 조사 의지 및 환경에 따라 조사현황의 차이가 5개부터 244개까지 크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별 현황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자치구별 현황비교를 제외한 서울시 전반의 공공기관 기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실태분석으로 진행하였다.

2) 결과분석

(1) 활동분야

활동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음악'이 36.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학'(20.7%), '무용'(17.5%), '미술'(9.6%), '기타'(7.7%), '공예'(4.1%), '연극'(3.1%)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진'(0.9%) 및 '영화'(0.3%)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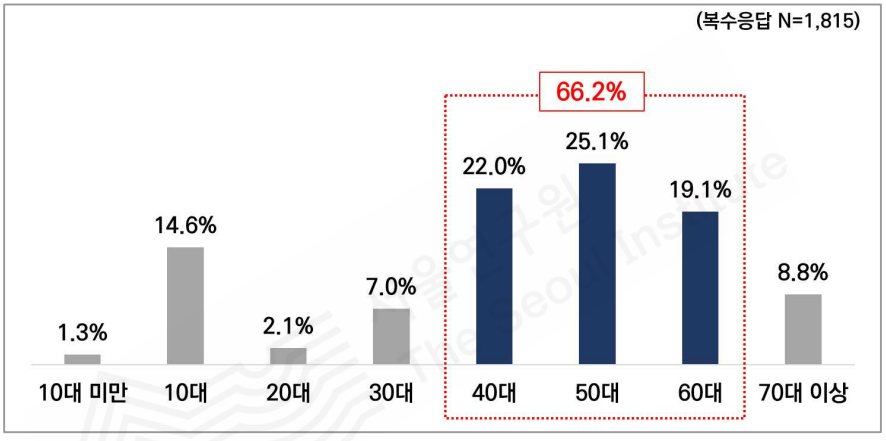


[그림 4-1]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분야

(2) 회원 주 연령층

회원 주 연령층에 대한 조사결과 '50대' 가 25.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40대'(22%), '60대'(19.1%), '10대'(14.6%)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70대 이상'(8.8%), '30대'(7%), '20대'(2.1%), '10대 미만'(1.3%)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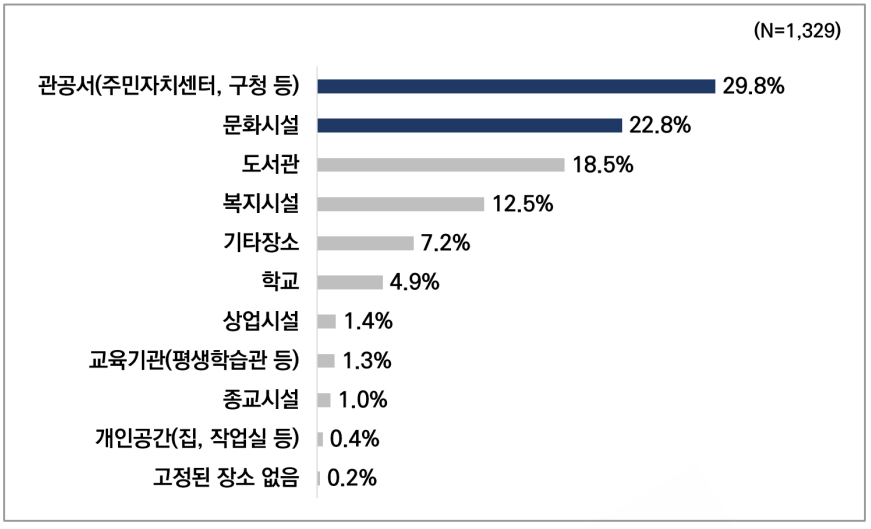
서울시 공공기관 기반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경우 4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층이 전체의 66.2%로 높게 나타났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중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한 동아리 활동이 40대~60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주 연령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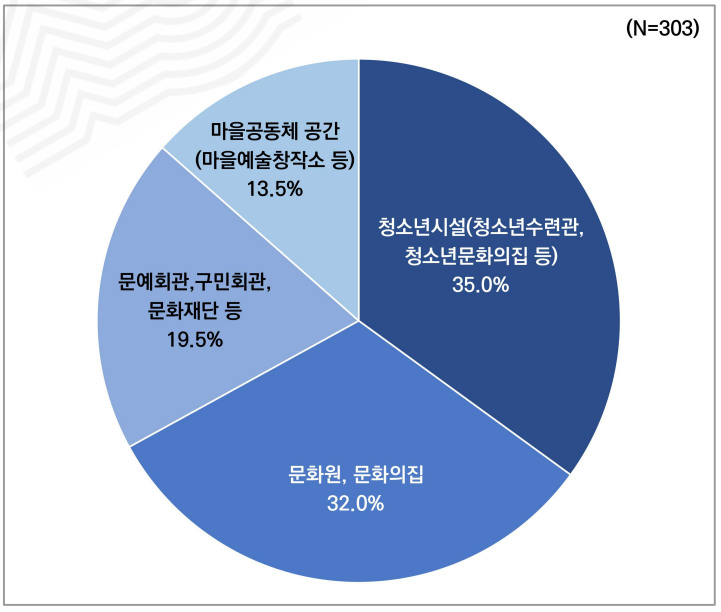
(3) 모임장소

모임장소에 대한 조사결과 '관공서(주민자치센터 및 구청 등)'가 29.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문화시설'(22.8%), '도서관'(18.5%), '복지시설'(12.5%)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7.2%), '학교'(4.9%), '상업시설'(1.4%), '교육기관(평생학습관 등)'(1.3%) 등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모임장소

모임장소 중 문화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동아리는 총 303개로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35.0%, '문화원, 문화의집'이 32.0%, '문예회관 및 구민회관, 문화재단'이 19.5%, '마을공동체 공간(마을예술창작소 등)'이 13.5%로 나타났다.



[그림 4-4]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모임장소 중 문화시설 사용현황

■ 연령대별 모임장소

연령대별 모임장소에 대한 조사결과 연령층에 따라 동아리 모임장소에 대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10대의 경우 학교, 도서관, 청소년문화시설을 주로 이용하였고, 20대의 경우 기타 장소를, 30대의 경우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의 경우 도서관과 관공서를, 50대의 경우 관공서, 문화원과 문화의집을, 60대의 경우 관공서, 문화원과 문화의집, 복지관을, 70대 이상의 경우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학교 및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동아리 모임활동이 진행되었고, 30~40대의 경우 도서관에서 동아리 모임활동이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50~60대의 경우 관공서(주민자치센터)와 문화원, 문화의집에서 동아리 모임활동을 주로 진행하였고, 70대 이상의 경우 복지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서울시 공공기관 기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연령별 모임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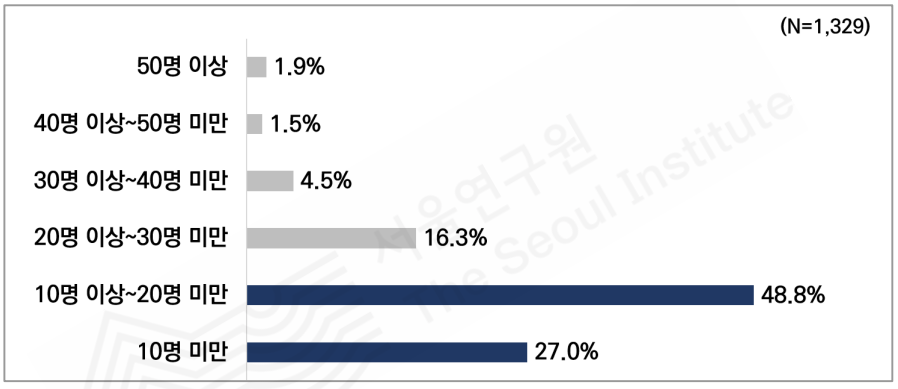
(단위: 개)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상업시설	0	0	0	7	13	12	5	0	37
문예회관 및 문화시설	1	2	3	10	26	29	25	8	104
관공서	7	29	1	13	*82*	*187*	*134*	25	478
종교시설	0	1	1	3	6	11	5	4	31
학교	0	*60*	2	0	1	1	1	0	65
도서관	4	*55*	4	*30*	*129*	37	16	2	277
복지관	3	4	5	18	34	30	*51*	*78*	223
마을공동체 공간	1	8	8	13	21	12	9	2	74
문화원, 문화의집	7	2	0	10	30	*74*	*65*	22	210
청소년문화시설	1	*95*	3	0	8	3	1	1	112
교육기관	0	0	0	1	11	9	5	3	29
개인공간	0	0	0	1	3	4	1	1	10
기타장소	0	9	10	20	35	46	29	13	162
고정된 장소 없음	0	0	1	1	1	0	0	0	3
합계	24	265	38	127	400	455	347	159	1,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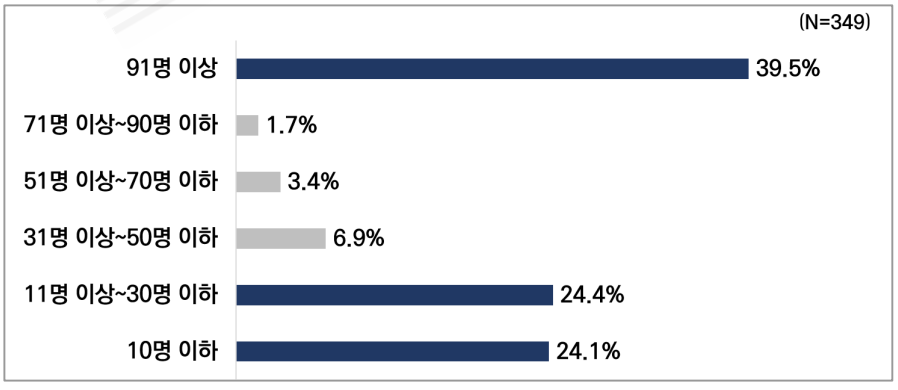
(4) 회원규모

모임규모에 대한 조사결과 '10명 이상~20명 미만'이 48.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명 미만'(27.0%), '20명 이상~30명 미만'(16.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30명 이상~40명 미만'(4.5%). '40명 이상~50명 미만'(1.5%), '50명 이상'(1.9%)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공기관 기반의 생활문화예술동아리는 20명 미만의 소규모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정책패널(문화 고관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온라인 설문 결과 '91명 이상'이 39.5%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기관 기반의 동아리는 20명 미만의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을 하나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5]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회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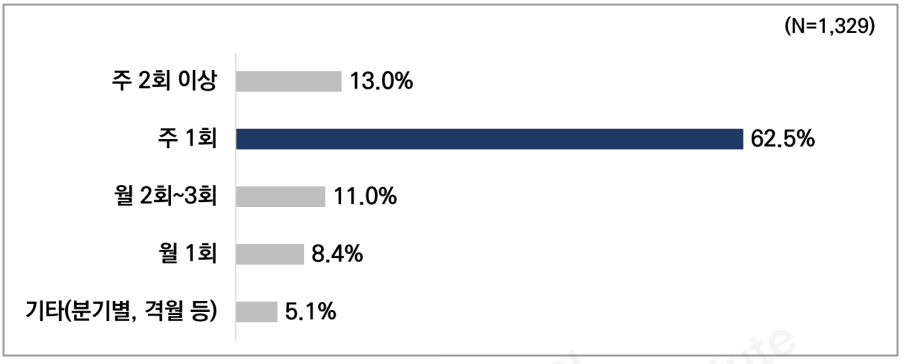


자료: 서울문화재단, 2015, 「서울시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그림 4-6]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패널(문화 고관여자) 온라인 조사 동아리 회원규모

(5) 모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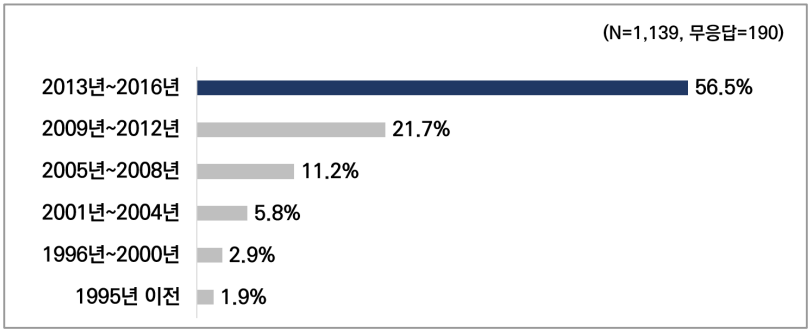
모임주기에 대한 조사결과 '주 1회' 모임을 갖는 경우가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주 2회 이상'(13.0%), '월 2~3회'(11.0%), '월 1회'(8.4%), '기타(분기별, 격월 등)'(5.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모임주기

(6) 설립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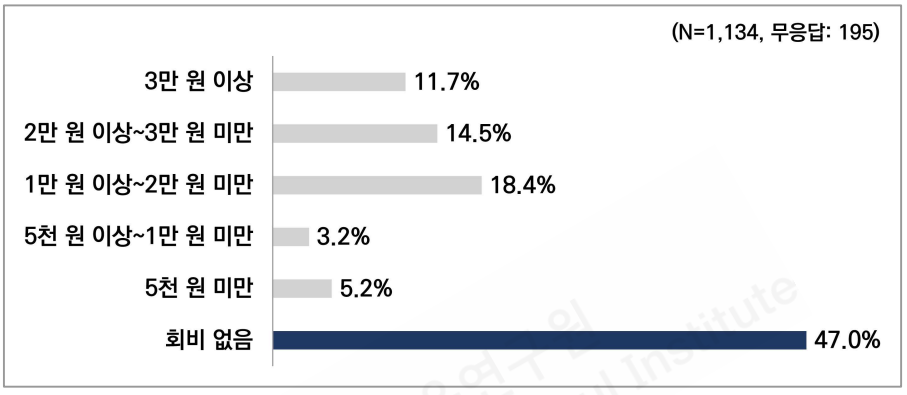
설립시기에 대한 조사결과 '2013년~2016년' 사이에 설립된 동아리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09년~2012년'(21.7%), '2005년~2008년'(11.2%), '2001년~2004년'(5.8%)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2016년' 사이에 설립된 동아리 643개(56.5%) 중 2015년과 2016년에 설립된 동아리가 392개(34.5%)로, 최근 2년 사이에 많은 동아리가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8]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설립시기

(7) 월 회비금액

월 회비금액에 대한 조사결과 '회비 없음'이 47.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1만 원 이상~2만 원 미만'(18.4%), '2만 원 이상~3만 원 미만'(14.5%), '3만 원 이상'(11.7%)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기반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경우 회비 없이 활동하는 동아리가 절반 정도인 것은 공간 또는 지원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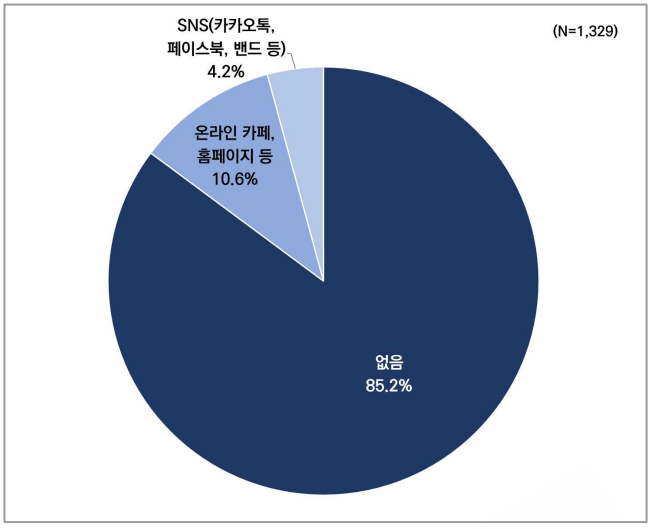


[그림 4-9]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월 회비금액

(8) 온라인 활동

온라인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 '온라인 활동 없음'이 85.2%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카페 활동'을 하는 경우는 10.6%, 'SNS 활동'을 하는 경우는 4.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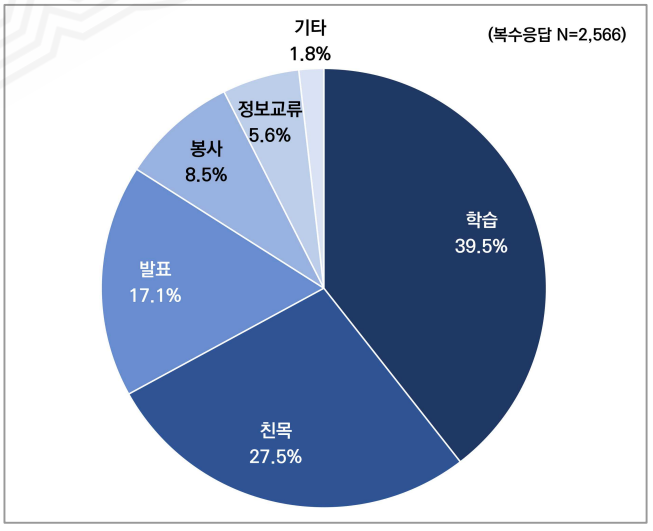
공공기관 기반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경우 주로 온라인 활동 없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층면접 결과 온라인 카페를 기반으로 시작한 동아리의 경우에도 온라인 활동보다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경우 공연, 전시, 공예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활동의 경우 오프라인 활동을 돕는 보조적 역할이 중심으로, 신입회원을 받는 창구, 동아리 행사 및 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축적 공간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림 4-10]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온라인 활동

(9)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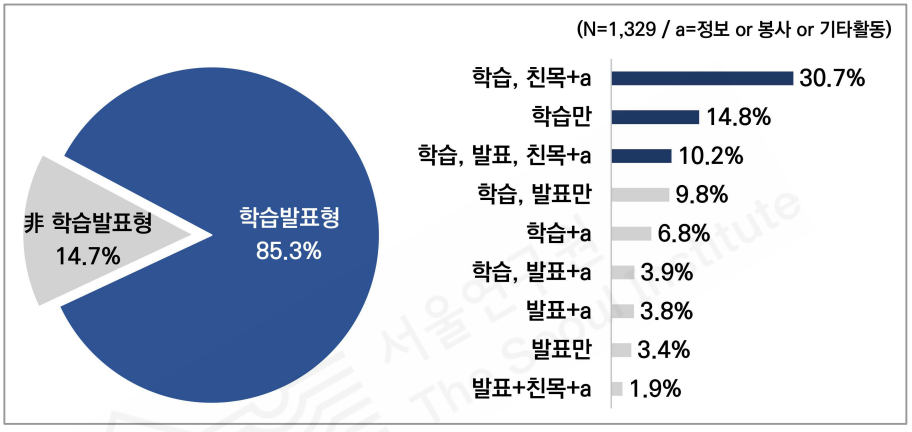
활동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학습'이 3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친목'(27.5%), '발표'(17.1%), '봉사'(8.5%), '정보교류'(5.6%), '기타'(1.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통해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주 활동내용은 학습, 친목, 발표활동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1]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내용

■ 활동내용 기준 동아리 유형

동아리 활동내용 중 '학습 혹은 발표활동' 유무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 '학습발표형'이 85.3%, '비(非) 학습발표형'이 14.7%로 나타났다. 조사된 대부분의 동아리가 학습과 발표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발표형'의 경우 학습과 친목을 포함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30.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서 '학습활동만' 하는 경우가 14.8%, 학습, 발표, 친목을 포함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10.2%, '학습과 발표활동만' 하는 경우가 9.8%로 나타났다.



[그림 4-12]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내용 유형

■ 활동내용별 동아리 유형

동아리 활동유형을 예술성(학습, 발표)과 공동체성(교류, 사회공헌) 지향 여부에 따라 활동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자기계발형'이 72.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어 문화나눔형(13.4%), 친목도모형(10.8%), 봉사형(2.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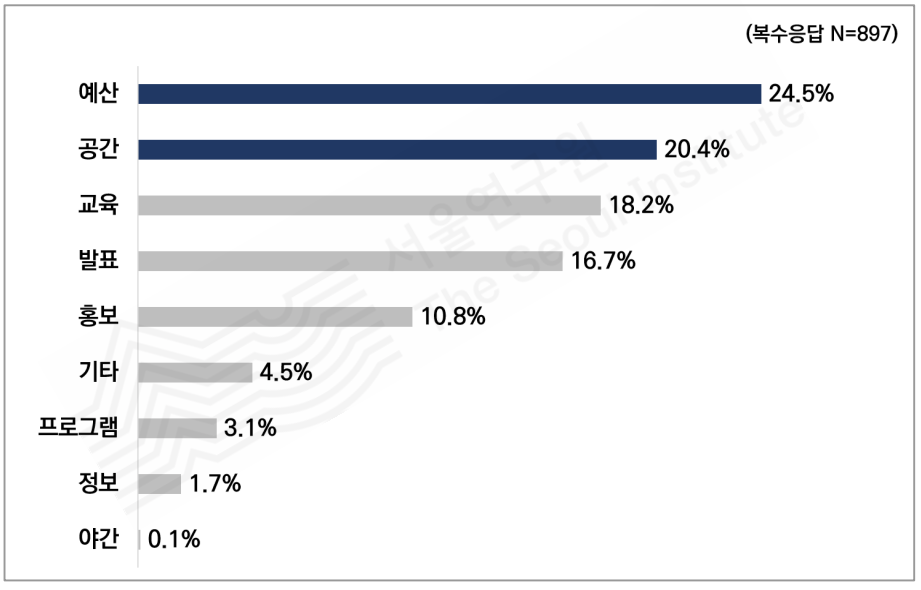
[표 4-3] 동아리 유형별 비율

유형	자기계발형	문화나눔형	친목도모형	봉사형
비율	72.9%	13.4%	10.8%	2.9%

(10) 지원요구

지원요구에 대한 조사결과 '예산지원'이 24.5%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발표 및 연습 공간'(20.4%), '교육(전문지도자, 상담자)'(18.2%), '발표(정기적인 발표기회 제공)'(16.7%), '홍보(동아리 관련 홍보지원)'(10.8%)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4.5%), '프로그램(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3.1%), '정보(관련 활동정보 제공)'(1.7%), '야간(공공기관 야간활동지원)'(0.1%) 등이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예산지원요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강사 비용, 활동비, 악기수리비, 공연 시 이동차량, 도서구입비 등이 있었다.



[그림 4-13]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요구

2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인식과 욕구

1)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과 내용

앞서 조사한 동아리 기본 운영현황 외에 동아리 참여자들의 욕구 및 동아리 활동이 '개인-공동체-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기본 운영현황의 조사 대상자가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한 동아리에 한정되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 대상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추가하였다.

조사방법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문화원, 마을예술창작소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동아리 참여자와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밴드 등 온라인 및 SNS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을 통해 '지역기반 동아리'와 '非 지역기반 동아리'의 구분기준을 설명하고,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4-4]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유형 구분

유형	내용
지역기반 동아리	- 회원의 대부분이 동일지역(동일자치구나 생활권)에 거주하는 경우 - 결성계기가 특정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 - 지역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거나 연계활동을 하는 경우 - 이외 동아리 활동이 지역과 연계한 활동을 추구하는 경우 등
非 지역기반 동아리	- 회원 거주지나 동아리 활동에 있어 특별히 지역과 연계된 활동이 없는 경우

조사는 2016년 8월 26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100개 단체 중 참여자 189명이 응답하였고, 이중 생활체육동아리(국궁동아리) 1개를 제외한 99개 단체 188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동아리 일반현황, 온·오프라인 활동현황 및 온라인 활동목적, 동아리 활동현황 및 지속이유, 사회공헌 활동 및 네트워크 활동 의지 및 장애요인, 공공지원요구, 개인 및 공동체의식의 변화 등이다([표 4-5] 참고).

[표 4-5]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실태조사 조사내용

항목	세부 항목
동아리 일반현황	- 동아리 활동분야, 결성계기, 운영재원
온·오프라인 활동현황	- 온·오프라인 활동현황, 온라인 활동목적
동아리 활동현황 및 지속이유	- 동아리 활동내용별 활발도 및 중요도, 동아리 활동 지속이유
사회공헌 활동 및 네트워크 활동 의지와 장애요인	- 사회공헌 활동 의지 및 장애요인 - 네트워크 활동 필요성 및 장애요인
공공지원 요구	- 공공지원 요구사항
개인 및 공동체의식변화	- 개인의 발전성향에 끼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에 끼치는 영향 - 지역 애착도에 끼치는 영향

분석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각 문항에 대해 도수분석으로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고, 유형별로 두 집단 간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 T검정, 동아리 특성별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을 사용하였다.

(2) 응답자 특성

■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대상 설문조사의 전체 응답자 수는 188명이고, 성비는 여성 56.9%, 남성 43.1%로 여성 응답률이 약 13%가량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30대 37.2%, 20대 24.5%, 40대 19.7%, 50대 13.8%, 60대 4.3%, 70대 이상 0.5%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응답률로는 도심권이 2.1%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동북권(23.9%)과 서남권(22.3%)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외 지역도 22.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64.4%, 기혼이 35.6%로 미혼이 더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8.6%, 대학원 졸업이 20.7%, 초등학교~고등학교 졸업이 10.6%로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전체	
		응답 수(명)	비율(%)
전체		188	100
성별	남	81	43.1
	여	107	56.9
연령	20대	46	24.5
	30대	70	37.2
	40대	37	19.7
	50대	26	13.8
	60대	8	4.3
	70대 이상	1	0.5
거주지	도심권	4	2.1
	동북권	45	24.0
	서북권	32	17.0
	서남권	42	22.3
	동남권	22	11.7
	서울 외 지역	43	22.9 (경기·인천 19.7%)
결혼 여부	기혼	67	35.6
	미혼	121	64.4
최종학력	초등학교~고등학교 졸업	20	10.6
	대학교 졸업	129	68.6
	대학원 졸업	39	20.8

■ 동아리 유형별 응답자 특성

지역성을 기준으로 한 동아리 유형별 응답자를 살펴보면 지역기반 동아리가 43.6%, 非 지역기반 동아리가 56.4%로 나타났다.

[표 4-7] 동아리 유형별 응답자 수

구분		전체	
		응답 수(명)	비율(%)
전체		188	100
유형	지역기반 동아리	82	43.6
	非 지역기반 동아리	106	56.4

동아리 유형별 연령응답률을 살펴보면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30대~50대가 25%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고, 非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30대가 46.2%, 20대가 30.2%로 20~30대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온라인을 통한 설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기반 동아리로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공공기관 기반 동아리 실태조사에서 40대~60대가 주 연령층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보면, 유형별 주 활동 연령층이 非 지역기반 동아리에서는 20대~40대이며, 지역기반 동아리는 30대~60대까지 활동연령층의 폭이 넓다고 추측된다.

[표 4-8]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유형별 응답자 연령

(단위: 명, %)

구분			유형				전체
			지역기반		非 지역기반		
연령	20대	응답 수	14	17.1%	32	30.2%	46(24.5%)
	30대	응답 수	21	25.6%	49	46.2%	70(37.2%)
	40대	응답 수	19	23.2%	18	17.0%	37(19.7%)
	50대	응답 수	22	26.8%	4	3.8%	26(13.8%)
	60대	응답 수	5	6.1%	3	2.8%	8(4.3%)
	70대 이상	응답 수	1	1.2%	0	-	1(0.5%)
전체		응답 수	82	100%	106	100%	188(100%)

■ 응답자 동아리 내 역할 및 활동장르

동아리 내 역할은 일반회원이 52.1%로 가장 많았고, 현재 혹은 전에 운영진 역할을 맡은 응답자는 38.3%로 나타났다. 활동장르는 음악이 28.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용 26.1%, 연극 21.3%, 사진 9.0%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장르는 10% 미만으로 나타났고, 기타장르로는 뜨개질, 재봉, 퀼트, 융합장르(사진+타이포그래픽), 동화책 만들기, 문화파티 및 행사기획 등이 있었다.

[표 4-9]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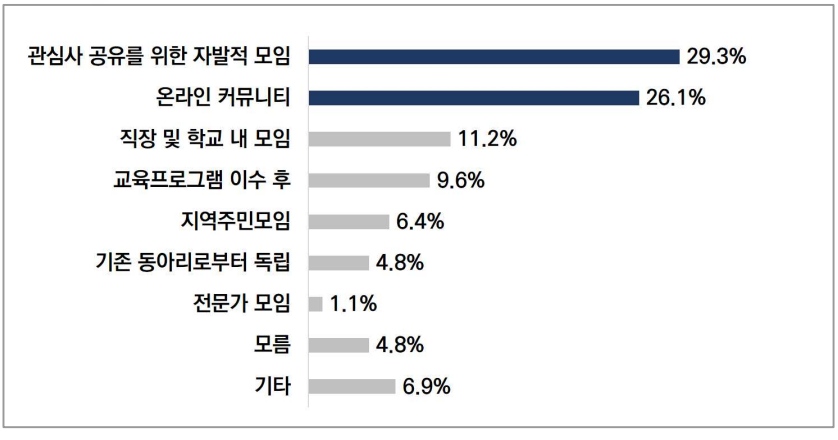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명)	비율(%)
전체		188	100
동아리 내 역할	운영진	72	38.3
	일반회원	98	52.1
	강사	8	4.3
	기타	10	5.3
활동장르	음악	53	28.2
	무용	49	26.1
	문학	6	3.2
	미술	7	3.7
	사진	17	9.0
	연극	40	21.3
	영화	3	1.6
	공예	5	2.6
	기타	8	4.3

2) 결과분석

(1) 동아리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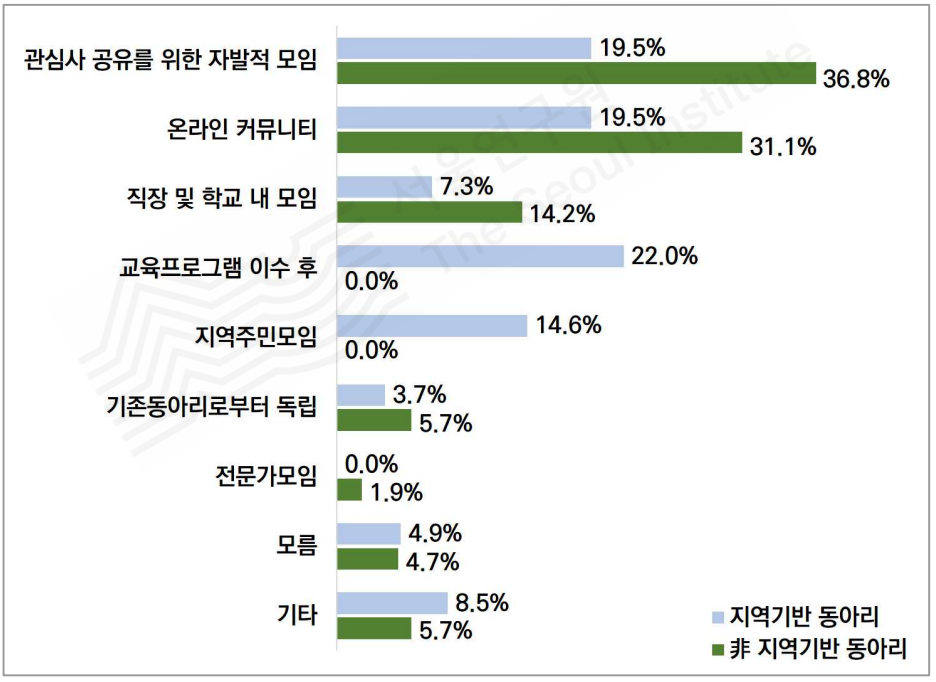
■ 결성계기

동아리 결성계기 조사결과 '관심사 공유를 위한 자발적 모임(29.3%)'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26.1%)'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직장 및 학교모임'(11.2%),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9.6%), '지역주민모임'(6.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결성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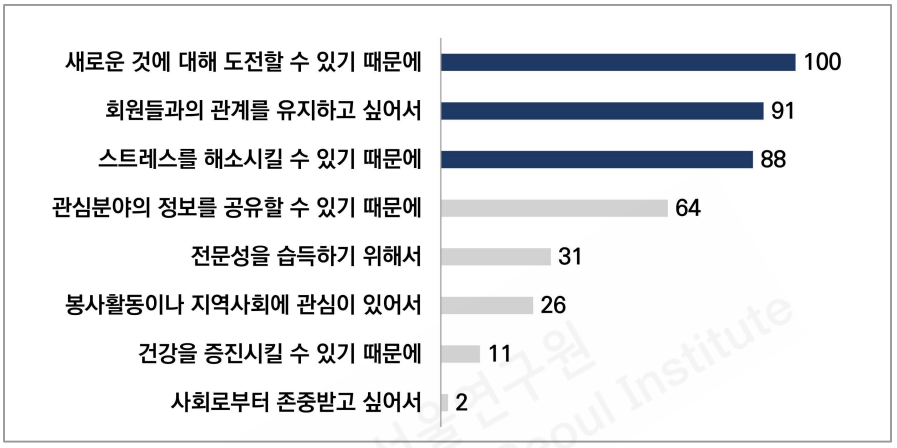
동아리 유형별 결성계기의 경우 非 지역기반 동아리는 '관심사 공유를 위한 자발적 모임'(36.8%)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31.1%)가 약 70%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기반 동아리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22.0%)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어 '관심사 공유를 위한 자발적 모임'(19.5%)과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19.5%)가 같은 비중으로 많았고, 그다음으로 '지역주민모임'(14.6%)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의 경우 지역기반 동아리가 22.0%로 가장 높게 나온 반면에 非 지역기반 동아리는 전무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 결성되는 동아리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지역 내 공공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주체성을 가진 자발적 주민모임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5]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유형별 결성계기

■ 동아리 활동 지속 이유

동아리 활동 지속 이유는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을 100점으로 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적 비교를 하였다. 조사결과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회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가 91점,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가 88점으로 많았다.



동아리 활동 지속 이유는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선택자 수x순위 요율)를 합산한 뒤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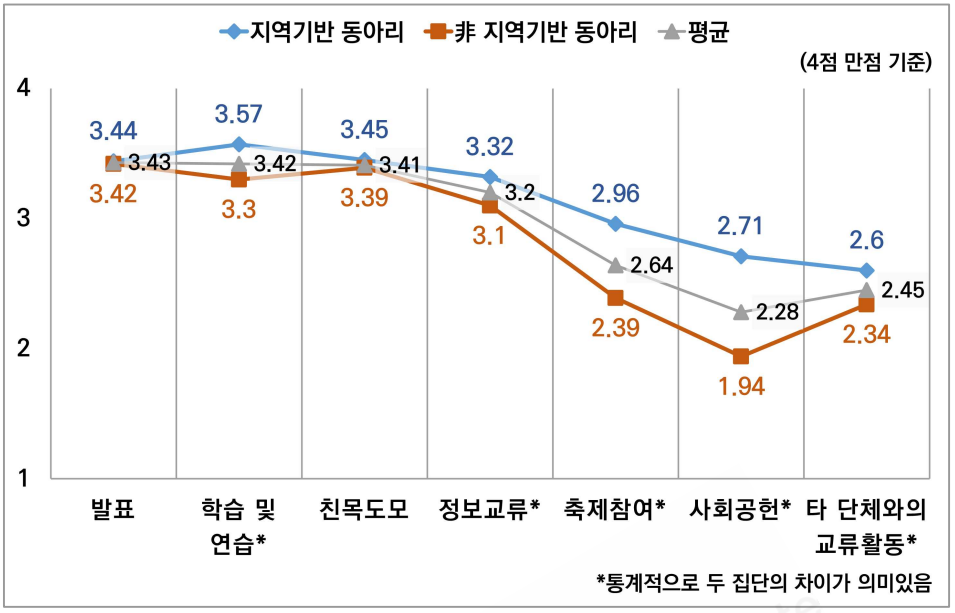
[그림 4-16] 동아리 활동 지속요인

최근 한국사회가 개인의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자살, 세대 간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고립을 막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원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속한다는 이유가 91점으로 높게 나온 것은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동아리 활동내용별 활발도와 중요도

■ 동아리 활동내용별 활발도

동아리 활동내용별 활발도 평균점수(4점 만점 기준)를 살펴보면 발표(3.43)가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나타났고, 이어 학습 및 연습(3.42), 친목도모(3.41), 정보교류(3.2), 타 단체와의 교류활동(2.45), 사회공헌(2.2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동아리 활동내용별 활발도

동아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7가지 항목 모두 지역기반 동아리가 높게 나타났다. 그 중 학습 및 연습, 정보교류, 축제참여, 사회공헌, 타 단체와 교류활동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두 집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특히 축제참여, 사회공헌, 타 단체와의 교류활동 항목에서 지역기반 동아리는 '활발한 편'에 속하는 반면, 非 지역기반 동아리가 '활발하지 않은 편'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10] 동아리 활동내용별 활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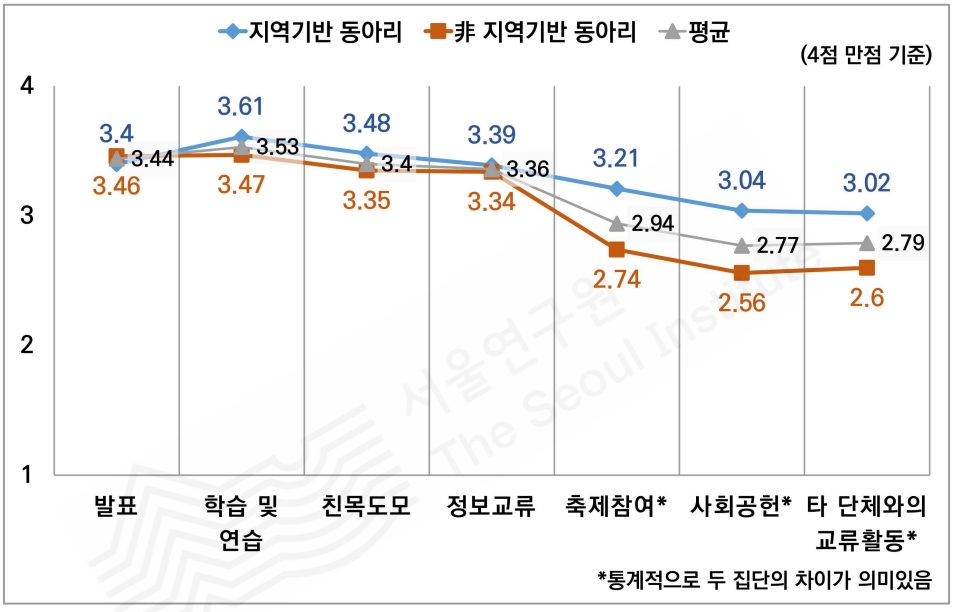
(N=188, 4점 만점 기준)

구분	동아리 유형				평균차	t-value	유의확률
	지역기반		非 지역기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발표	3.44	0.739	3.42	0.645	0.024	0.237	0.813
학습 및 연습	3.57	0.685	3.30	0.692	0.271	2.676	0.008*
친목도모	3.45	0.570	3.39	0.670	0.064	0.697	0.487
정보교류	3.32	0.718	3.10	0.729	0.213	2.002	0.047*
축제참여	2.96	0.962	2.39	0.879	0.577	4.281	0.000*
사회공헌	2.71	1.012	1.94	0.803	0.764	5.606	0.000*
타 단체와의 교류활동	2.60	0.928	2.34	0.850	0.258	1.983	0.049*

*$p<0.05$

■ 동아리 활동내용별 중요도

활동내용별 중요도 평균결과 점수를 살펴보면 학습 및 연습이 3.53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발표(3.44), 친목도모(3.4), 정보교류(3.36), 축제참여(2.94), 타 단체와의 교류활동(2.79), 사회공헌(2.77)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 및 연습, 발표, 친목도모, 정보교류 활동은 4점 만점 기준에서 3.4점 이상으로 동아리 활동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 동아리 활동내용별 중요도

동아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축제참여, 사회공헌, 교류활동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두 집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축제참여, 사회공헌, 타 단체와 교류활동의 경우 지역기반 동아리가 非 지역기반 동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동아리 활동내용별 중요도

(N=188, 4점 만점 기준)

구분	동아리 유형				평균차	t-value	유의확률
	지역기반		非 지역기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발표	3.40	0.682	3.46	0.635	0.060	0.620	0.536
학습 및 연습	3.61	0.583	3.47	0.636	0.138	1.531	0.127
친목도모	3.48	0.613	3.35	0.704	0.127	1.292	0.198
정보교류	3.39	0.604	3.34	0.600	0.051	0.572	0.568
축제참여	3.21	0.842	2.74	0.919	0.471	3.617	0.000*
사회공헌	3.04	0.853	2.56	0.874	0.480	3.775	0.000*
타 단체와의 교류활동	3.02	0.860	2.60	0.891	0.421	3.258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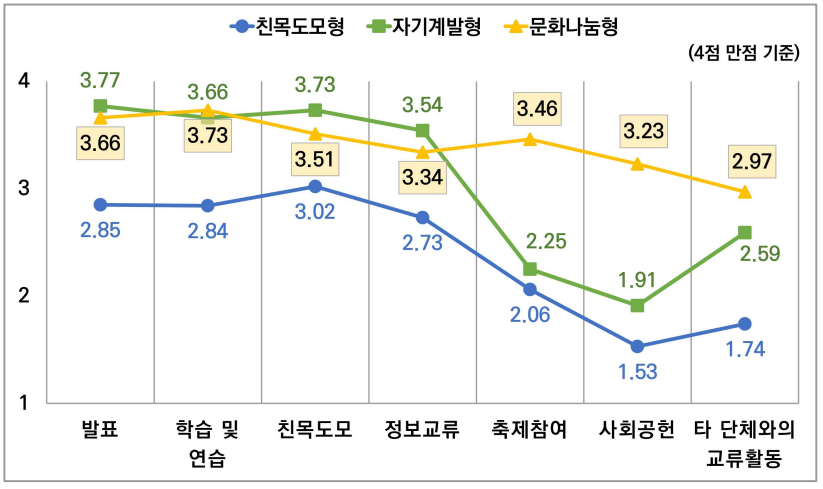
*p<0.05

■ 동아리 유형분류

동아리 활동내용의 활발도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한 결과 3개의 군집으로 나눠졌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동아리 유형화 기준(예술성, 공동체성)을 대입해 보면 각각 자기계발형, 문화나눔형, 친목도모형에 해당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봉사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형별 크기는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문화나눔형이 61%, 자기계발형이 22%, 친목도모형이 17.1%의 비율로 문화나눔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非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친목도모형이 45.3%, 자기계발형이 35.8%, 문화나눔형이 18.9%의 비율로 친목도모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12] 동아리 유형별 응답자 수

구분		친목도모형	자기계발형	문화나눔형	전체
지역기반 동아리	빈도	14	18	50	82
	유형 중 %	17.1%	22.0%	61.0%	100.0%
非 지역기반 동아리	빈도	48	38	20	106
	유형 중 %	45.3%	35.8%	18.9%	100.0%
전체	빈도	62	56	70	188
	유형 중 %	33.0%	29.8%	3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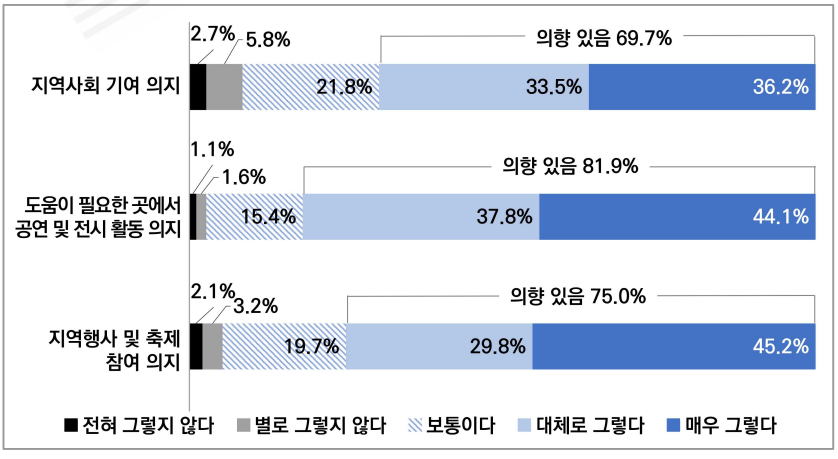


[그림 4-19] 동아리 활동내용 활발도 기준 동아리 유형분류

(3) 사회공헌 활동 및 네트워크 활동 요구

■ 사회공헌 활동 의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 사회공헌 활동 의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은 70% 내외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적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사회공헌 활동 방식에서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공연, 전시, 교육 등으로 진행할 때 긍정적 응답률이 81.9%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4-20] 사회공헌 활동 의지

■ 동아리 유형별 사회공헌 활동 의지

동아리 유형별 사회공헌 활동 활발도와 의지를 살펴보면 문화나눔형은 사회공헌 활발도와 활동 의지가 각각 4.04점, 4.57점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친목도모형과 자기계발형은 사회공헌 활발도가 각각 1.91점, 2.39점으로 실제 활동은 활발하지 않지만, 사회공헌 활동 의지는 각각 3.53점, 4.14점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친목도모형과 자기계발형 모두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장애요인으로 인해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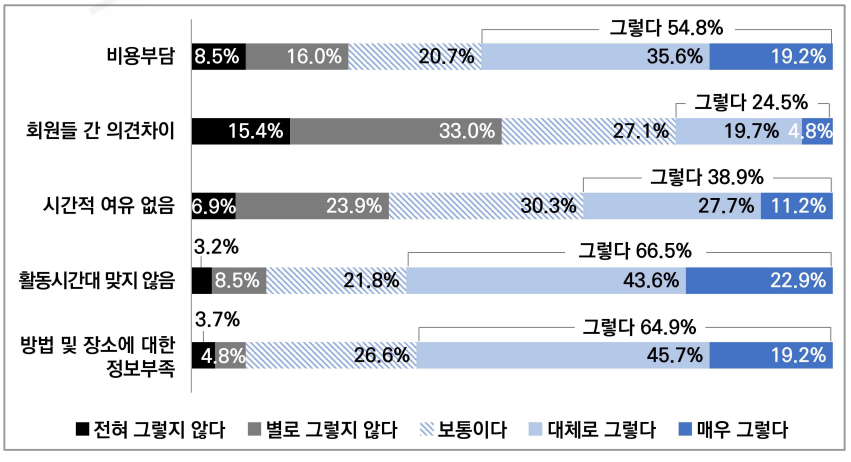
[표 4-13] 동아리 유형별 사회공헌 활동 활발도 및 의지

(5점 만점 기준)

구분	사회공헌 활동 활발도	사회공헌 활동 의지
친목도모형	1.91점	3.53점
자기계발형	2.39점	4.14점
문화나눔형	4.04점	4.57점

■ 사회공헌 활동 장애요인

사회공헌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활동시간대 맞지 않음'(66.5%)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방법 및 장소에 대한 정보부족'(64.9%), '비용부담'(54.8%), '시간적 여유없음'(38.9%), '회원들 간 의견차이'(24.5%)로 나타났다. 위 조사결과는 동아리 사회공헌 활동 의지가 70% 수준으로 높지만, 정보부족 및 활동시간대가 맞지 않는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회공헌 활동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1] 사회공헌 활동 시 장애요인

서울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 12.3%(문화예술 관련 자원봉사 3.01회)이고, 문화향수실태조사 중 문화자원봉사 활동경험 여부 또한 6.0%로 서울시민의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표 4-14], [표 4-15] 참고).

[표 4-14] 2015 서울시 자원봉사 활동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분야별 활동 평균 참여 횟수(회)			
	환경보전 관련	자녀교육 관련	기타 소외계층 관련	문화예술 관련
12.3%	2.85	3.13	3.56	3.01

자료: 서울서베이.

[표 4-15] 문화자원봉사 활동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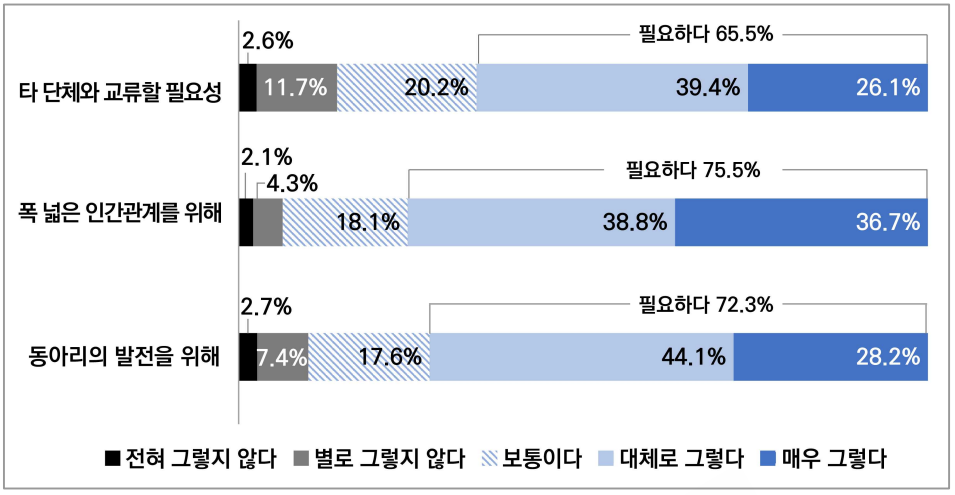
2008	2010	2012	2014
6.2%	7.3%	5.9%	6.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은 현실에서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70% 이상)가 높다는 것은 의미 있는 수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영역에서 사회공헌이 필요한 단체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활동시간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아리 단체와 연결해 준다면 사회공헌 활동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네트워크(교류) 활동 필요성

전체 응답자 중 65.5%가 타 동아리 혹은 지역단체와 교류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70% 이상이 교류활동이 동아리 발전에 도움을 주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림 4-22] 네트워크(교류) 활동 필요성

■ 동아리 유형별 네트워크 활동 필요성

동아리 유형별로 타 단체와의 네트워크 활동 활발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문화나눔형은 네트워크 활동 활발도 3.71점, 네트워크 활동 의지 4.17점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친목도모형과 자기계발형은 네트워크 활발도가 각각 2.18점, 3.24점이고, 필요성에 대한 네트워크 활동 의지는 각각 3.41점, 4.06점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유형 모두 타 단체와 네트워크 활동의 경우 실제 활동에 비해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공헌 활동과 마찬가지로 친목도모형과 자기계발형 모두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으나 장애요인으로 인해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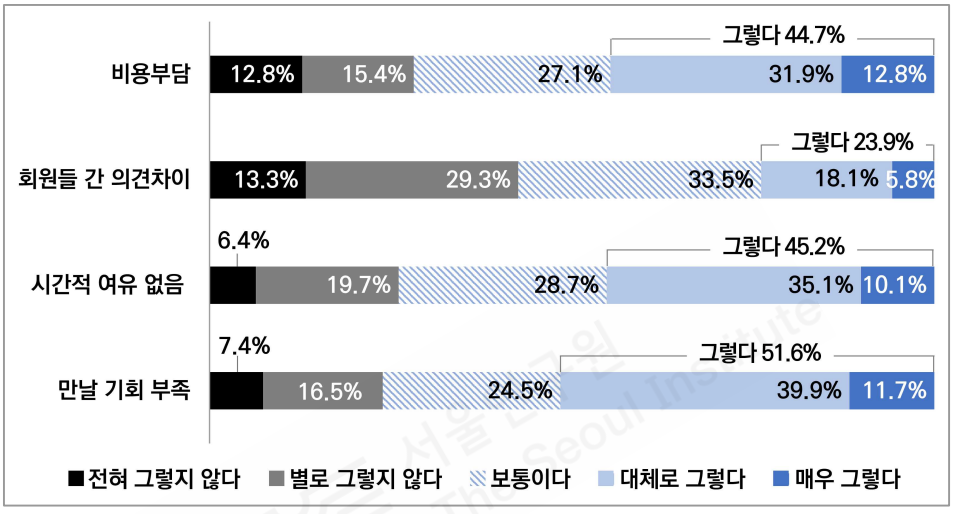
[표 4-16] 동아리 유형별 타 단체와의 네트워크 활동 활발도 및 활동 의지

(5점 만점 기준)

구분	네트워크 활동 활발도	네트워크 활동 의지
친목도모형	2.18점	3.41점
자기계발형	3.24점	4.06점
문화나눔형	3.71점	4.17점

■ 타 단체와 네트워크(교류) 활동 장애요인

네트워크(교류) 활동 장애요인으로는 '만날 기회 부족'(51.6%)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시간적 여유 없음'(45.2%), '비용부담'(44.7%), '회원들 간 의견차이'(23.9%)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아리 네트워크(교류) 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가진 동호회에 대해(65.5%) 공공영역에서 만날 기회나 계기를 제공해준다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4-23] 네트워크(교류) 활동 장애요인

(4)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개인-공동체-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은 회원들 간 취향공유 혹은 가치공유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혼자가 아닌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 및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과정은 민주적 의사소통과 시민력을 키우는 시민교육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설문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개인-공동체-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기반 동아리와 非 지역기반 동아리 간에 이러한 영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 동아리 활동이 개인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동아리 활동이 개인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창의성 향상', '소통능력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행복한 삶' 등 4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4가지 항목 모두 4.5점 내외로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창의성, 소통능력, 자아존중감, 삶의 행복도 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리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창의성을 제외한 소통능력,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창의성 향상을 제외하면 지역기반 동아리가 非 지역기반 동아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발전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N=188,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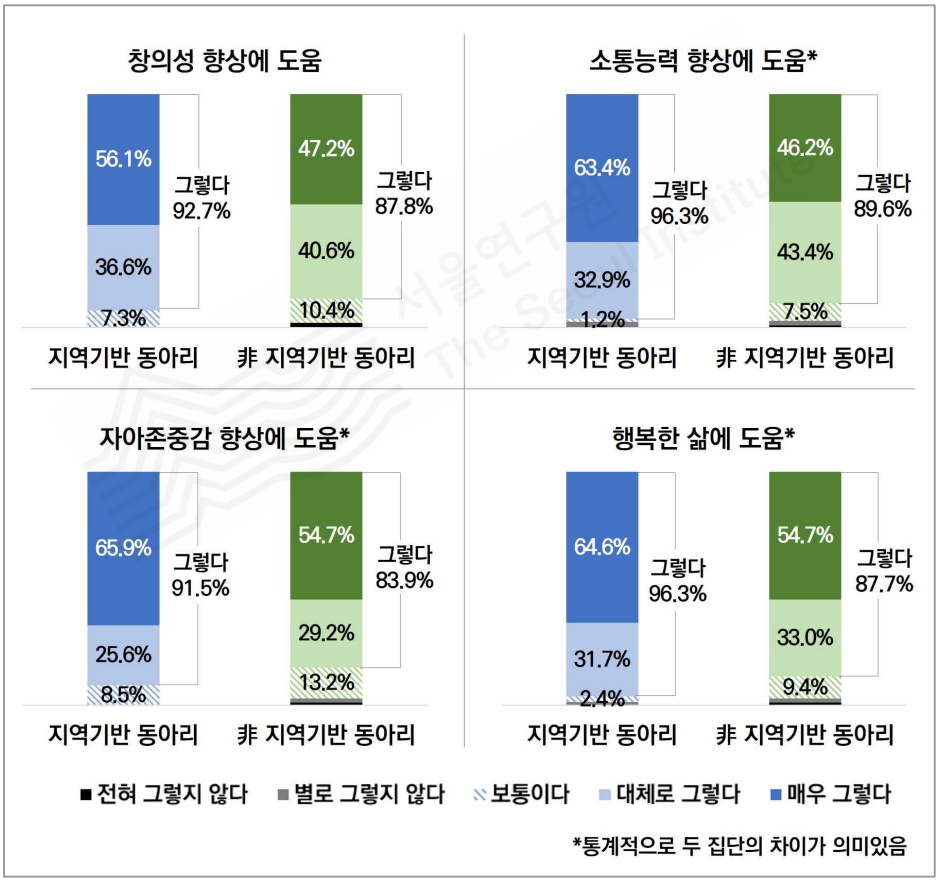
구분	동아리 유형				평균차	t-value	유의확률
	지역기반		非 지역기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창의성 향상에 도움	4.49	0.633	4.31	0.809	0.176	1.627	0.105
소통능력 향상에 도움	4.57	0.648	4.32	0.775	0.252	2.375	0.019*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	4.57	0.648	4.35	0.851	0.224	2.049	0.042*
행복한 삶에 도움	4.60	0.606	4.39	0.811	0.211	2.039	0.043*
전체	4.56	0.634	4.34	0.812	0.216	1.627	0.052

*p<0.05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항목별로 긍정적 응답률을 살펴보면 '창의성 향상에 도움' 92.7%, '소통능력 향상에 도움' 96.3%,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 91.5%, '행복한 삶에 도움' 91.5%로 네 가지 항목 모두에서 90%가 넘는 응답자들이 긍정적 답변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非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항목별로 긍정적 응답률을 살펴보면 '창의성 향상에 도움' 87.8%, '소통능력 향상에 도움' 89.6%,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 83.9%, '행복한 삶에 도움' 87.7%로 네 가지 항목 모두에서 85% 내외의 긍정적 응답률이 나왔다.

창의성 향상 부분에서 동아리 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가지 유형 모두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예술을 매개로 활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생각해내거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능력[23]으로 예술의 기본적 속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역기반과 非 지역기반 유형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행복한 삶 등 세 가지 항목에서 지역기반 동아리가 非 지역기반 동아리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은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취향공유를 넘어 회원들끼리 같은 생활권에 있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공유할 수 있는 측면과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동호회 회원과의 관계, 활동이 자신의 삶의 영역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행복한 삶 향상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4]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3)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 공동체의식[24]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동아리 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는 '타인 이해에 도움', '타인과 신뢰 쌓기에 도움',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에 도움' 등 3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3가지 항목 모두 4.3점 내외로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리 참여자들이 타인에 대한 이해, 타인과 신뢰 쌓기,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 등에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 도움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리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타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제외한 '타인과 신뢰 쌓기에 도움'과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에 도움' 항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타인의 생각 이해에 도움' 항목을 제외하면 지역기반 동아리가 非 지역기반 동아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동아리 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N=188, 5점 만점 기준)

구분	동아리 유형				평균차	t-value	유의확률
	지역기반		非 지역기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타인 이해에 도움	4.41	0.666	4.35	0.677	0.066	0.664	0.508
타인과 신뢰 쌓기에 도움	4.49	0.593	4.25	0.715	0.243	2.482	0.014*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에 도움	4.49	0.707	4.26	0.760	0.224	2.063	0.041*
전체	4.46	0.655	4.29	0.717	0.178	1.736	0.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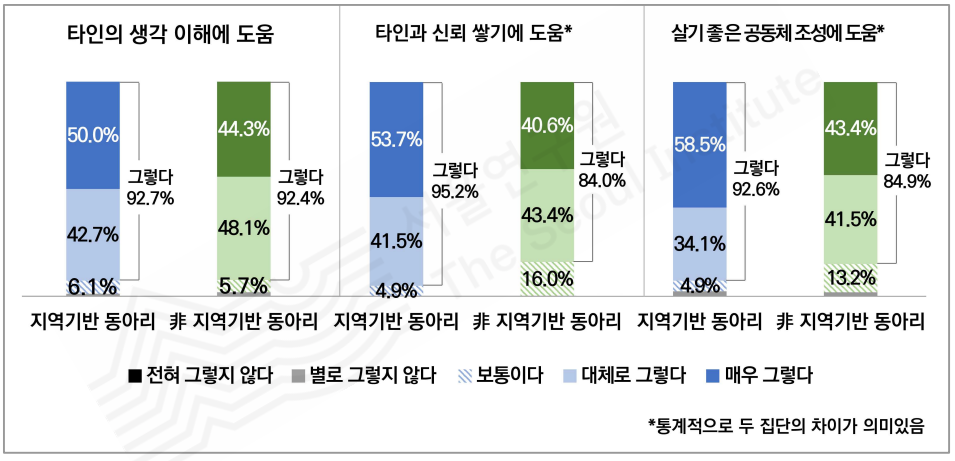
*$p<0.05$

'타인의 생각 이해에 도움'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을 살펴보면 지역기반 동아리 92.7%, 非 지역기반 동아리 92.4%로 지역기반 동아리가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두 유형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타인과 신뢰 쌓기에 도움'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을 살펴보면 지역기반 동아리 95.2%, 非 지역기반 동아리 84.0%로 지역기반 동아리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

24) 공동체의식은 개인이 그 공동체에 속하며 공동체의 운영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공동체 구성원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연대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 결국 장소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되며 지속해서 정주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찬동,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연구원, p.10.).

에 도움'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을 살펴보면 지역기반 동아리 92.6%, 非 지역기반 동아리 84.9%로 지역기반 동아리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해보면 '타인의 생각 이해에 도움' 항목에서는 지역기반 동아리와 非 지역기반 동아리 모두 높은 수치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 '타인과 신뢰 쌓기에 도움'과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에 도움' 항목에서는 지역기반 동아리가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공통의 취향 외에도 타인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고, 동아리 활동 외에 다양한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공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기반 동아리에서 좀 더 높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4-25]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공동체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지역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동아리 활동이 지역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는 '지역사회 내 신뢰 쌓기에 도움', '살기 좋은 지역조성에 도움', '지역에서 오래 살고 싶음' 등 3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동아리 유형별 조사결과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3가지 항목 모두 4.2점 내외로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반면에 非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3가지 항목 모두 3.3점 내외로 지역기반 동아리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3가지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표 4-19] 동아리 활동이 지역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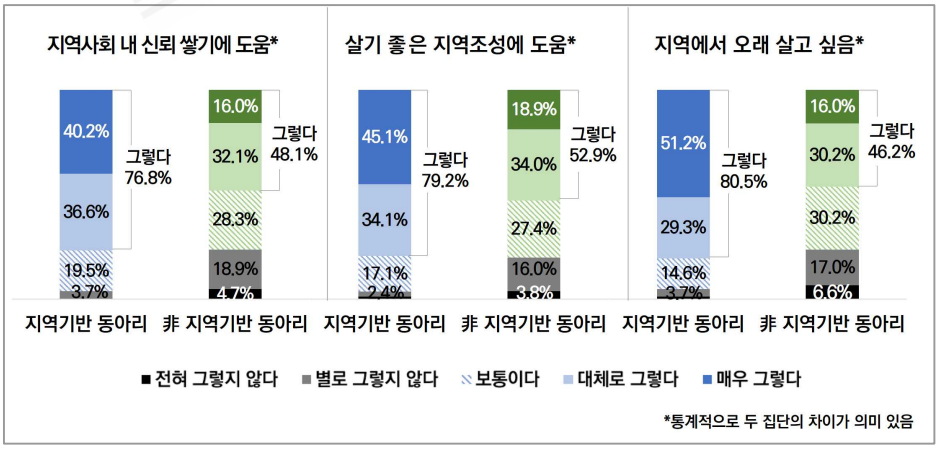
(N=188, 5점 만점 기준)

구분	동아리 유형				평균차	t-value	유의확률
	지역기반		非 지역기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사회 내 신뢰 쌓기에 도움	4.13	0.857	3.36	1.106	0.776	5.418	0.000**
살기 좋은 지역조성에 도움	4.20	0.895	3.48	1.089	0.714	4.933	0.000**
지역에서 오래 살고 싶음	4.26	0.927	3.32	1.134	0.935	6.219	0.000**
전체	4.20	0.893	3.39	1.110	0.808	5.523	0.000**

**p<0.01

항목별 긍정적 응답률을 살펴보면 지역기반 동아리(75%에서 80%초반)가 非 지역기반 동아리(45%에서 50% 초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기반 동아리가 非 지역기반 동아리에 비해 긍정적 수치가 더 높은 것은 생활권 내에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회원들 간 공감대가 생기고, 그 공감대는 다시 공동체의식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지역사회의 신뢰 및 애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반면 非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회원들 간 공감대가 생기고 공통의 취향 안에서 공동체의식까지는 생길 수 있으나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과 연계성이 적기 때문에 지역사회 신뢰 및 애착도 면에서 낮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26]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지역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3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인식과 욕구 심층인터뷰

1) 면담조사 개요

(1) 조사내용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구체적인 활동실태 및 운영상의 어려움, 지원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정책에 반영하고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운영진 및 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동아리 일반현황, 동아리 활동현황 및 효과, 회원특성, 동호회 운영현황, 전문예술인과의 결합방식, 네트워크 현황, 동호회 활동 시 장애요인 및 지원요구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표4-20] 참고).

[표 4-20]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심층면담 질문지 구성

구분	역할
일반현황 운영현황	결성계기, 모임장소, 운영형태, 운영진 구성 및 선출방법, 운영비 마련방법
회원특성	회원 주 연령, 회원 거주지, 회원규모, 가입경로 및 동기, 동아리 활동 후 삶의 변화
활동현황	온라인 활동, 학습(강습) 및 연습활동, 친목도모 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 네트워크 활동
지원요구	장애요인 및 지원요구사항

(2) 면담 대상자 선정 및 면담방법

면담대상자는 서울시 전체적인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실태를 파악하고자 앞서 설문에서 동아리를 나눈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와 지역과 상관없이 장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로 나누어 면담을 실시하였다.

非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6개의 장르로 구분하여 온라인 카페 검색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 11개를 선정하였다.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동아리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2개의 자치구를 선정하여 자치구로부터 동아리를 추천을 받아 총 10개의 동아리를 선정하였다([표 4-21] 참고).

[표 4-21]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심층면담 대상자 구성

구분		장르	세부 장르	역할
非 지역기반 (온라인 카페 활동을 통한 모임)		무용	라틴댄스동아리	대표
			스윙댄스동아리	운영진
			스트릿댄스동아리	대표
		연극/뮤지컬	연극동아리	대표
			뮤지컬동아리	대표
		음악	직장인밴드연합동아리	대표
			클래식감상동아리	대표
		사진	사진동아리	대표
		문학	독서토론동아리	대표
지역기반	구로구	음악	구로 난타·퓨전국악동아리	대표(강사)
			구로 밴드동아리	운영진
			구로 풍물동아리	대표
		무용	구로 청소년댄스연합동아리	대표
	성북구	미술	성북 미술동아리	회원
		연극	성북 연극동아리	강사
		종합	성북 마을예술창작소	대표
	성동구	미술(회화)	성동 미술동아리	사무국장

면담조사는 非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동아리 현 운영진 혹은 과거의 운영진 역할을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1대 1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3개~4개의 동아리 운영자 및 강사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성동구 미술동아리'의 경우 非 지역기반 동아리로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했지만, 면담 후 동아리 성격이 지역기반 동아리와 유사하여 지역기반 동아리로 분류하였다. 면담조사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

2) 면담조사 분석결과

(1) 일반현황 및 운영현황

① 결성계기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결성계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공통의 취미를 가진 사람

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경우와 교육프로그램을 계기로 결성한 경우, 지원사업을 통해 결성된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공통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경우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소규모 취미활동으로 시작하다가 같은 관심사를 가진 더 많은 사람들과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를 만들면서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기존에 있던 동아리가 없어지거나 분쟁으로 나눠지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 연습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계기를 가지고 있었다. 교육프로그램을 계기로 결성한 경우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후 수업이 끝난 이후에 계속적인 학습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되거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가를 섭외하여 교육을 받으면서 결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문 강사 중심의 강습을 통해 동아리 활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지원사업을 통해 결성된 경우는 공공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예술가 및 매개자가 중심이 되어 동아리를 결성하는 경우가 있고, 기업지원을 통해 모임이 진행되다가 지원이 끊어지면서 자발적 모임으로 동아리가 결성되기도 한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가 결성되는 계기는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배움(연습) 및 친목도모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계기로 모이면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2030사진동아리)
2012년에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6~7명 정도가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자는 의미로 사진을 잘 찍는 친구를 섭외하여 시작을 했었는데, 친구들끼리 운영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2~30대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인터넷 카페에 처음으로 동호회를 만들게 되었어요.

(사례/스트릿댄스동아리)
댄스 동호회가 만들어지는 대체적인 이유는 혼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연습실을 빌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연습실 대여가 혼자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서 연습실을 대여해서 연습을 하고자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을 많이 하죠.

(사례/성북구 연극동아리)
2015년 연극인 서울 시민 연극교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가 미아리고개에 연출 강사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 회원 분들이 공연을 마치고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며 좀 더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모이게 된 거죠.

② 모임장소

동아리의 모임장소는 동아리가 공공지원을 받아 공공기관의 시설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동아리 자체적으로 대관이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모임장소를 만드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공공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역기반 동아리에서 많이 나타났다. 지역기반 동아리는 해당 자치구 내 문화 관련 공공시설(구민회관, 문화재단, 마을예술창작소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와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지원이 끊기거나 유료화되는 경우 동아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무료 공간을 무조건적으로 제공한다면 사용하고자 하는 동아리가 많아질 경우 공간 사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동아리의 자생성을 약화시키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사례/성북구 미술동아리)
우리동네 아뜰리에(마을예술창작소)가 올해로 지원이 끝난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나 내년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무료로 작업실을 사용 했었지만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것이 끊기게 될 때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무언가 모임을 살뜰히 꾸려가고 싶어도 공간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하는 부분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동아리 자체적으로 모임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민간운영 연습공간이나 카페와 같은 상업공간을 대관하여 이용하거나, 연습공간 및 작업공간을 임대형태로 소유하여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아리가 임대형태의 연습공간을 별도로 조성

한 경우는 동아리 회원들이 종잣돈을 모아서 임대공간을 마련하는 경우와 동아리 운영자가 연습공간을 조성하여 부수적으로 공간임대사업을 하는 형태가 있다. 임대형태의 연습공간을 별도로 조성한 동아리의 경우 공통적으로 회원규모가 크고, 결성시기가 오래되어 동아리 운영의 노하우가 쌓여 있는 등 자생성과 주체성이 매우 높았다.

(사례/직장인연극동아리)
회원들이 많아지고 연습실에서 정모를 하게 되었는데 연습실이 가득차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넓은 곳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대표님이 이왕 넓은 곳으로 갈 거면 우리도 극장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곳을 구하자 해서 일이 커졌었죠. 현재 극장 만들 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③ 운영형태 및 운영비 마련방법

동아리 운영형태는 운영진을 선출하여 임기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과 고정된 대표 및 운영진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었다. 이외에도 동아리 운영 및 공간대관을 통해 경제적 수입을 얻는 형태도 있다. 이런 경우는 운영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모임 공간 대여를 통해 수입을 얻거나, 동아리 회원 대상 교육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기도 한다. 동아리마다 운영방식에도 차이가 보인다. 운영진마다 역할을 나누고, 회칙을 만들고 회의록과 회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과 운영진이 별도 역할을 나누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역할을 나눠가며 운영하는 방식도 있다.

(사례/스윙댄스동아리)
바 주인(공간 운영자)도 하고, (동아리)운영도 같이 하고, 동호회마다 다 달라요. 여기 같은 동아리는 바 사장이랑 동아리 운영자가 같은 사람이고, 다른 데는 바 사장이랑 동아리랑 별개로 움직이는 거죠.

(사례/직장인밴드연합동아리)
운영진은 4명인데, 역할은 따로 안 나눠져 있고, 다 같이 결정을 해요. 합주 스케줄 관리도 하고, 공연할 때 준비나 홍보를 하는 친구도 있고, 레슨 관리하는 친구도 있고요.

운영비 마련방법으로는 회원들의 회비와 강습비의 일부, 공공지원 등이 있다. 자발성이 높은 동아리일수록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비중이 높다.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동아리의 경우 지원에 익숙해져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회비를 걷는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2) 회원특성

① 회원 주 연령

非 지역기반, 지역기반과 상관없이 동아리의 성격에 따라 주 연령층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진동아리, 시니어 대상 연극모임 등 동아리 자체적으로 별도 연령층만을 위한 동아리가 있다. 일부 동아리에서 동아리 가입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② 회원 거주지 및 회원규모

회원 거주지의 경우 非 지역기반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역기반은 해당자치구 및 동 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원규모의 또한 동아리 특성 및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적게는 6명부터 많게는 60명까지 나타났고, 非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10명~200명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非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1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동아리가 살사, 스윙 등 댄스동아리에서 나타났다. 非 지역기반 동아리의 온라인 회원규모 또한 500명~30,000명까지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③ 신입회원 가입경로 및 가입동기

동아리의 회원가입 경로는 '온라인 검색'과 '지인소개'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가입하거나 동아리 공연활동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동아리 가입 동기는 동아리 '해당 장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가입한 경우와 '사람들과 교류를 위해서' 가입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사례/직장인밴드연합동아리)
여기는 밴드다 보니 음악 좋아하고 악기 배우고 싶은 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검색을 해서 많이 찾아오세요. 아니면 공연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구요.

(사례/성동구 미술동아리)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그리고 지인들 통해서 와요. 동호회에서 2년간은 성동구 소식지에 홍보도 해봤고요, 간혹 매체에 인터뷰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④ 동아리 활동 후 삶의 변화

동아리 활동 후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많은 동아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특히 '자존감이 높아졌다', '삶의 만족감이 높아졌다', '행복감을 느낀다' 등의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다. 자신의 취미활동을 하거나 더 나아가 주변지인들에게 공연이나 전시를 보여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회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아리 활동 이후 성격이 더 밝아지고 활발해졌다는 의견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기 표현력이 늘어났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사회성이 길러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아리 활동에 많은 시간이 투자될수록 동아리 활동이 생활의 중심이 되고, 주변 사람관계가 동아리 회원들로 변하는 등 생활 패턴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사례/직장인연극동아리)
저희가 연극성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구에게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에서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 그러한 마음이 해방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례/라틴댄스동아리)
강습과 모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연습을 위해서는 투자되는 시간이 많아요. 제대로 공연하고 연습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다보니, 자신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사를 안 하는 친구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 같아요. 인간관계가 살사하는 인원으로 바뀌는 거 같아요.

(사례/독서토론동아리)
1~2년에 한 번씩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성격이 모난 것은 아닌데 사회성이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모임에 나와서 얘기를 나누다보면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3) 활동현황

① 온라인 활동

1990년대 후반 이후 인터넷의 발달은 온라인 동호회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이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카페 형태의 사이버공간을 통해 많은 동아리 모임이 생겨났고,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모임을 갖는 등 새로운 소통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SNS가 새로운 소통창구로 대체되면서 온라인 카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면담결과 온라인 활동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 공간에서 일상적인 소통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온라인 공간이 신입회원을 받는 창구 역할 및 동아리 행사 및 공지사항 홍보, 자료축적 공간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직장인밴드연합동아리)
온라인 활동을 너무 안 하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카페에 글도 게시를 하였으나, 요즘은 댓글만 달려고 하고 글 쓰는 걸 꺼려해요. 처음에 인터넷 카페 생겼을 때는 신기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글들을 올렸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사례/클래식감상동아리)
기본적인 기능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는 것이 주요 목표죠. 이런 과정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거죠. 각자 다른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온라인 게시판에 파트를 나누어서 공연 정보, 해설, 감상문 등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활동은 pc통신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온,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고요. 오프라인 활동의 비중이 커서 월 1회 정기모임으로 감상회를 하고 있고요. 번개 모임도 하고요. 정기모임은 감상회로 진행하거나 공연을 관람하죠.

(사례/구로 청소년댄스연합동아리)
아무래도 저희는 회원들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공연소식을 알리고 회원 모집 글을 올리기도 하고 있어요.

② 학습(연습) 활동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경우 해당 예술 장르에 대한 학습(연습)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 장르마다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예술 장르에서 일정한 기예와 기술, 숙련의 과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는 같은 취미를 가진 공동체로 친목이 결합된 자발적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아리의 학습활동 형태를 동아리의 주체성 정도에 따라 주체성이 높은 학습활동과 주체성이 낮은 학습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다. 주체성이 높은 동아리의 경우 학습내용 및 일정을 스스로 기획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학습 방식으로는 동아리 내 숙련자가 강좌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동아리가 직접 전문가를 섭외하여 진행하는 방식, 별도의 강좌 없이 함께 연습을 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외에도 초급자를 위한 강좌를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하거나 별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연습) 활동을 운영하고 있었다([표 4-22] 참고).

[표 4-22]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학습활동 방식

동아리 주체성이 높은 학습활동	동아리 주체성이 낮은 학습활동
동아리 내 숙련자가 가르쳐주는 방식 전문가를 직접 섭외하여 강좌를 진행하는 방식 별도 강의 없이 함께 연습하는 방식	예술강사가 동아리 운영의 중심이 되어 학습기획 및 강좌를 기획하는 방식(교육프로그램 및 공공 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동아리에서 많이 나타남)

(사례/직장인밴드연합동아리)

레슨은 동호회 분들 중 잘하시는 분들이 가르치시고, 회원 분들이 파트별로 배우시다가 밴드결성을 하기도 해요. 악기만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밴드 결성 초기에는 레슨하시는 분들이 좀 봐주시다가 실력인 안정적으로 되면 소속팀으로 들어오는 거죠.

(사례/라틴댄스동아리)

우리 동호회는 동호회 중심으로 강사를 섭외하는 형태로 하죠. 시샵이 섭외를 해서 강습을 하고, 회원들이 그 강사가 좋으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아카데미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강사들도 동호회 강습을 통해 홍보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게 강습을 하면 동호회 입장에서도 강사를 다시 안 부르게 돼요. 그래서 강사들도 더 노력하게 되는 거죠. 서로 상부상조해야 하는 것 같아요.

주체성이 낮은 동아리의 경우 전문 강사 중심으로 학습활동이 운영되고 있었다. 교육프로그램 중심의 활동을 하거나 공공지원을 통해 결성된 동아리에서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강사의존도가 높을수록 강사가 동아리 활동에서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활동의 차이가 크게 났다. 예를 들어 전문강사가 예술 활동의 전문성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학원과 유사한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동아리와 지역과의 연계를 중시할 경우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강사가 동아리의 주체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동아리 스스로 주체성을 높여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례/성북구 마을예술창작소)
저희 같은 경우는 시니어 모임으로 여러 팀이 있는데 공짜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정책적으로 시니어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워낙 공짜로 활동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무료로 배워왔고 저 또한 무료로 제공하던 것이 이제는 독립을 해야 해서 회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엄청난 거부감으로 싸움까지 일어날 정도거든요. 다른데 가서 공짜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만 팀은 헤어지기가 싫은 거죠. 이러한 갈등이 있어서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술 장르별 학습활동형태를 살펴보면 발표나 전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의 경우 발표 및 전시일정에 맞춰 연습활동이 진행되고, 음악감상이나 독서토론 동아리의 경우 월 1회 정도 모임을 통해 음악을 감상하거나 독서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다([표 4-23] 참고).

[표 4-23]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예술 장르별 학습활동 방식

장르	주요내용
연극, 뮤지컬	- 1년에 2개~4개 정도의 작품을 준비하며 작품 중심으로 연습 진행
음악밴드	- 주 1회 이상 밴드별로 연습을 하며 개인 연습활동 진행
살사댄스, 스윙댄스	- 수준에 맞는 단계별로 강좌를 개설하여 주 1회 2개월 기준으로 강좌가 진행 - 주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수준에 관계없이 함께 춤을 출수 있는 시간 마련
미술	- 전문가가 결합하거나 동아리 자체적으로 학습활동 및 작품활동 진행 - 동아리에 따라 대중강좌 및 갤러리 탐방 프로그램 진행
사진	- 사진 찍을 장소를 선정하여 정기출사 활동 진행(주 1회~월 1회) - 인원이 많을 경우 조별로 나눠져서 활동 - 동아리에 따라 고급실력자가 현장에서 가르쳐 주거나 별도 강습을 진행
독서토론	- 모임 시 함께 토론할 책을 선정하여 토론 진행
음악감상	- 모임 시 함께 감상할 곡을 선정하여 음악 감상 및 관련 지식 공유

③ 친목활동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친목활동은 정기모임 이후 뒤풀이, MT, 체육대회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동질감을 바탕으로 친구나 가족과 같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이 약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이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리별 친목활동의 내용이 예술 장르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도 발견되었다. 밴드, 연극, 뮤지컬 등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아리의 경우 친목도모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여겼고, 사진, 독서토론, 음악감상 등 개인의 활동이 중시되는 동아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한 유대관계를 지향하고 있었다.

(사례/뮤지컬동아리)
우리는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에요. 친한 친구라고 해도 일주일에 몇 번 보진 않잖아요. 아직까지 미혼인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런 커뮤니티의 가족 같은 느낌이 좋은 거 같아요.

(사례/성동구 미술동아리)
뒤풀이 때도 그림 얘기할 때가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가이야기도 하고, 이런 책을 읽으니 재밌었다는 이야기나 문화예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걸 보면 신기해요. 40년 동안 다 따로따로 살았고, 뭐 하는지를 모르지만, 여기 오면 그냥 그림인거죠. 그림이 좋아서 왔고,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비슷한 연령대, 비슷비슷한 처지 이런 느낌들. 그래서 서로서로 친해질 수 있고 그런게 어떻게 보면 그림인거죠. 좋은 것 같아요.

또한 동아리 대표자들 중 너무 강한 유대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동아리가 해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인해 적당한 거리를 두고 활동하기를 지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동아리 활동 외에 사적인 모임을 지양하고, 별도의 친목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사례/2030사진동아리)
저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적당히 친해지길 원해요. 너무 친하게 지내면 개인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태가 악화된 다음에 제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사례/독서토론동아리)
저희는 그런 것이(소풍이나 MT등 친목활동) 전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활동이 있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모임이 해체되는 이유가 모임 안에서 연애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 하는 것은 가장 적게 만나고 동호회 활동만 하고 헤어지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저희 동호회도 정말 친하긴 친한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따로 모여서 번개모임을 해서 술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사적인 비밀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 결국 동호회를 탈퇴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④ 발표·전시 활동

동아리의 예술 장르와 활동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동아리는 발표 및 전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악기, 연극, 뮤지컬, 미술 등의 장르는 발표 및 전시활동이 동아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발표 및 전시활동은 동아리의 예술적 수준을 올리는 계기와 동아리의 내적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예를 들어 공연이 잡히면 공연 자체가 연습동기가 되어 더 자주 모여 연습을 하게 된다. 또한 공연 준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동아리 회원들이 서로 합의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내적 결속력이 강해진다. 또한 발표활동을 통해 지인들과 대중으로부터 인정받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기는 계기가 된다.

(사례/직장인밴드연합동아리)
일 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세 팀 정도로 공연을 해요. 많을 때는 일 년에 네 번까지도 하고 적으면 두 번 정도 하기도 하구요. 같이 다 하기에는 너무 팀이 많아서 모두 다 할 수는 없고, 한번 공연할 때 세 팀 정도 묶어서 팀마다 열 곡 정도를 할 수 있게 구성하고 있어요.(중략) 공연을 하면 친구들을 초대하고 자랑할 수 있어서, 그런 재미로 하는 거 같아요. 혼자만 집에서 연습하는 걸 방구석 기타라고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주변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존감도 생기고요.

(사례/뮤지컬동아리)
자기 일을 하면서도 자신감이라든가 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만 받게 되죠. 막상 공연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공연이 끝나면 만족감도 얻고, 한번을 하면 또 한 번을 하게 되는 것이 무대에 대한 중독인거 같아요. 조명도 받고 하니 자신이 배우가 되는 느낌이죠.

동아리의 발표 및 전시활동은 동아리 내에서 자발적으로 정기행사로 진행하는 방식과 지역축제 및 장르별 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표 4-24] 참고). 동아리 내에서 자발적으로 정기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정기공연이나 전시를 진행하는 형태와 동아리 내 강습이 끝난 후에 소규모의 발표회 형태가 있다. 또한 동종장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발표 형태도 있다.

[표 4-24]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발표·전시활동 방식

동아리의 정기적 자체행사	지역축제 및 장르별 대회 참가
- 동아리 내 정기공연, 정기전시 - 동아리 내 강습 이후 소규모 발표 - 동종장르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발표(예: 밴드 연합공연, 뮤지컬동아리연합 갈라쇼, 직장인 연극협의회 연합공연 등)	- 장르별 축제 참가(예: 근로자예술제, 살사페스티벌, 스윙페스티벌 등) - 지역축제,마을축제 참가(마을 축제의 경우 예술가나 기획자가 매개 역할을 함)

자발적으로 정기행사를 진행하는 동아리의 경우 자생성이 높을수록 공연비 마련, 장소섭외, 조명, 음향, 의상,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문제해결능력과 기획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뮤지컬동아리 사례를 살펴보면 동아리 내 공연이지만 전문가처럼 형식을 갖춘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동종장르

간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을 경우 정기공연 시 관객으로 서로 참여해주거나 스텝으로 도움을 주는 등 공연을 통해 교류가 생기고, 연합 형태의 공연을 진행하기도 한다.

(사례/뮤지컬동아리)
지인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사람이 많다보니 전공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분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팜플렛을 만들고, 사진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사진을 찍기도 하죠. (중략) 아무리 못해도 공연 당 대관비 포함해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요즘은 동호회도 발전이 돼서 웬만한 대학로 공연과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지역축제 참가 방식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 대부분 무료로 공연을 하거나 식비나 이동경비 정도의 사례금을 받고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연준비를 위해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역축제에 참여는 지역민들과 활동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공헌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사례/구로 풍물동아리)
A: 구로 행사를 주로 하죠. 예를 들어 신년해돋이와 같은 행사와 경로당 같은 곳에서 초청행사를 한다거나 2015년부터 한강 시민축제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축제에도 참여했죠.
Q: 지원금을 받으시나요?
A: 겨우 교통비 정도인데 식대라고 봐야죠. 1인당 10,000원 정도죠.
Q: 보상이 적은데도 불가하고 왜 참여하시는 건가요?
A: 흥이 나고 사물을 배웠으니까 공연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⑤ 사회공헌 활동

동아리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축제에 참가하거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별도 프로그램 기획, 지역의 단체와 연계하여 교육 및 공연활동 진행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사회공헌 활동이 연결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형태보다는 매개자가 별도로 있거나 외부에서 섭외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동아리 소속회원의 소개로 사회공헌이 필요한 단체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거나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공공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지역에 매개자 역할을 하는 예술가나 기획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아

리 간 연계를 통해 마을 축제를 기획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동아리 면담조사 결과 많은 동아리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정보 부족 및 활동시간 대가 맞지 않아 진행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 많은 동아리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미비한 현실이다.

(사례/직장인밴드연합동아리)
봉사활동이나 시에서 섭외가 들어오면 공연하기도 해요. 그런데 직장인 밴드라서 스케줄 맞추기가 어려워요.

(사례/성동구 미술동아리)
서울대 소아과병동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소아과병동 간호사가 있어서 그분의 연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린이날 행사 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 했는데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지원받아선 한 거지만 동네에서 벽화를 하는 작업도 했고, 잠깐 잠깐이지만 시도는 많이 했었죠. 저소득층 공부방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술관에 가는 것도 했고요.

(사례/뮤지컬동아리)
사회공헌 활동의 경우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제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제안이 있다면 할 수는 있죠.

⑥ 네트워크 활동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네트워크는 “문화예술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상호작용을 하는 연결망”을 말한다[25].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네트워크 형태는 연결정도, 네트워크 구성의 주체, 네트워크 가입과 구성 목적 등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4-25] 참고).

25) 조현성, 2014,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8.

[표 4-25]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네트워크 형태

구분	내용
연결정도	복수(複數)의 동아리가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공식적 망(網)에 포함되어 정보를 공유함(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됨)
	복수(複數)의 동아리가 정보공유를 넘어서 공동행위(협력행위가 아니어도 됨)
	복수(複數)의 동아리가 공동행위를 넘어서 협력행위
네트워크 구성 주체	동아리 자발적으로 네트워크 구성
	동아리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개별 동아리가 가입
네트워크 가입과 구성 목적	동아리 간 친목도모
	동아리의 공동이익 추구

자료: 조현성, 2014,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8~9.

면담조사 결과 非 지역기반 동아리와 지역기반 동아리가 네트워크 형태에 차이가 나타났다([표 4-26] 참고). 非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동종장르 간에 자발적으로 발현되었고, 친목도모, 정보공유, 행사참여, 연습공간 공유, 연합공연 등을 목적으로 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지역 축제를 계기로 발생되거나, 지역 예술인 및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혹은 지원사업을 통해 발현되었다. 지역기반 동아리는 매개자를 통해 네트워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매개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6]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네트워크 방식

非 지역기반 동아리 네트워크	지역기반 동아리 네트워크
- 주로 동종장르 간에 자발적 네트워크가 형성됨 - 동아리 간 교류를 통해 연습공간 공유 및 활동정보 공유 - 공연을 보러 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시 서로 도와줌(밴드, 뮤지컬, 연극) - 연합으로 공연을 하기도 함(뮤지컬 갈라쇼, 직장인연습협의회, 스트릿댄스) - 동아리 주관 파티에 서로 참여(커플댄스)	- 지역축제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 지자체별 네트워크의 모임을 통해 교류 (마을공동체네트워크, 예술인네트워크) -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마을예술창작소) - 매개자(예술인, 기획자)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

연결정도가 약한 네트워크는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서로의 공연 또는 전시를 보러 가거나 서로 알고 지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연결정도가 강한 네트워크는 함께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등 협력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유사한 동아리의 운영방식과 활동내용을 보면서 동아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매개자를 중심으로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통해 축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개인 동아리 활동을 넘어 지역공동체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사례/성북구 연극동아리)
동아리 회원 분들이 '성미산 마을극장'과 교류하다 보니, 그분들이 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조금씩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네트워킹이죠.

(사례/직장인연극동아리)
직장인연극협회에는(7개 극단이 소속되어 있음. 이하 직연협)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3~4개 정도 있어요. 협의체이기 때문에 친목이 주를 이루는데 각 극단 대표님들이 월 1회 회의를 해요. 극단이 커질 수 있었던 것은 극단끼리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협회를 없애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은 친목 위주지만 예전에 우리 극단에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품앗이를 해주는 거죠. 연습실이 있는 극단에 가서 연습도 하기도 하고요. 소품, 의상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극단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극단의 공연을 보면서 배우는 거죠. 지금은 지원이 끊겼는데 예전에 서울시민지원금 받는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항상 저희가 직장인들의 이중생활이라는 모토로 5~6년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했었어요.

(4) 장애요인 및 지원요구

① 발표·전시공간 관련

■ 대관정보 부족 및 대관절차의 어려움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경우 발표나 전시활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공연장 대관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동아리가 많았다. 대관과정의 어려움 중 하나는 대관 가능한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보제공 플랫폼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은 공연장마다 대관 신청 기간, 절차, 심사기준 등이 다르다는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동아리 회원들 중 직장인이

많다보니 공연 가능한 시간은 주로 주말인데, 구민회관은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연장에 따라 아마추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에 대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동아리의 규모 및 발표내용 등에 따라 원하는 발표공간과 전시공간에 대한 요구는 각각 다르다. 전문가가 사용하는 전문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 발표를 원하는 동아리도 있고, 전문 공연장이 아닌 작은 규모의 카페와 같은 공간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동아리가 발표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에 대한 통합 정보 플랫폼이 요구된다.

(사례/직장인밴드연합동아리)
공연장 대관이 제일 문제에요. 서울시에 큰 공연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큰 공연장들은 대관이 잘 안 돼요.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대관 신청 기간도 각각 다르다 보니 대관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추어 공연의 경우 하루를 빌리는 일정이라 대관이 더 힘들어요. (중략)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는 없을 테니까, 차라리 비수기인 시기에 기간을 정해주고, 아마추어 동호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뮤지컬동아리)
우리는 주말에 공연을 해야 하는데, 구민회관 측에서는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중략) 공연 스케줄이 잡히면 운영진들은 꾸준히 장소섭외를 위해 전화를 해요. 관련된 사이트도 없고요. 서울시에 있는 공연장마다 대관방식이 달라요. 어떤 곳은 한 달 전에 대관예약을 받기도 하고, 기간에 대한 공지나 심사가 달라서 어려워요.

■ 대관 비용에 대한 부담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정기공연이나 전시를 할 때 필요한 경비는 별도의 회비를 걷어 진행하고 있었다. 자발성이 높은 동아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힘으로 공연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일정비용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사례/직장인연극동아리)
저희는 장소(소극장)를 만들어서 해결했지만, 대부분의 극단들이 원하는 것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극장 대관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대관비가 저렴하다든가 대관비용을 지원해주면 공연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중략) 대학로에서 3~4일 대관하는 데 200만 원 정도 들어요. 공연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무대에 올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대관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및 동아리 발표주간 선정 후 대관비용 할인 정책 마련

공연장이나 전시장 대관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정보제공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공연장에 동아리 대관 자체가 어려움이 많이 있으므로 공연 비수기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아리 발표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공간제공 및 대관비용 할인정책을 집중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나왔다.

(사례/직장인밴드연합동아리)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는 없을 테니까, 차라리 비수기인 시기에 기간을 정해주고, 아마추어 동호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② 연습 및 모임 공간 관련

■ 연습실 임대비용 및 대관비용 지원

앞서 조사한 '공공기관 대상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공간에 대한 지원 요구가 예산 다음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서도 모두 연습 및 모임공간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26]. 면담결과 회원 수가 많은 동아리의 경우 임대비용과 대관비용을 스스로 해결하지만, 회원 수가 부족한 경우 임대공간 유지비용 혹은 대관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26) 서울문화재단, 2015, 「서울시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문화동호회 중심으로-」, 지원요구에 대한 조사결과 1위로 연습 및 모임공간 지원이 36.7%로 조사되었다.

연습공간을 무료로 지원받는 경우도 공급과 수요의 차이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지원을 통해 무료로 공간을 사용했다가 지원 기간이 끝나서 유료로 사용할 경우 자생적으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활동공간을 무료로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일정비용을 지불하여 공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면서 동아리의 자생성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례/성북구 미술동아리)
우리동네 아뜰리에(마을예술창작소)가 올해로 지원이 끝난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나 내년부터는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무료로 작업실을 사용했었지만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것이 끊기게 될 때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무언가 모임을 살뜰히 꾸려가고 싶어도 공간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하는 부분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 연습공간 홍보 확대 및 대관절차 간소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습 및 모임공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저녁시간에 사용을 할 수 없거나 대관절차가 복잡해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제공과 간소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사례/구로 청소년댄스연합동아리)
공공에서 연습실을 빌려주는 곳은 많은데 청소년을 위한 시간대에 대관해주는 곳은 많지 않아요. 주민센터는 오후 6시면 문을 닫는데 청소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사례/미술동아리)
예를 들어 구청에 무료대관으로 전시를 하는데 대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무원을 직접 만나야 하는데 직장인들은 업무시간에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나 신청하는 과정이 쉽게 수정되면 좋을 것 같아요.

■ 동아리 특성에 맞춘 연습 공간 확충

생활문화활동공간조성은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현실적 이유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동아리 활동공간 확충을 위해 동아리 활동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확충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공간조성 시 동아리의 장르에 따라 특성화된 공간과 다목적 공간 등 공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한 조성방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연습공간이 단순히 연습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타 동아리 및 지역민들과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

(사례/구로 밴드동아리)
동아리 성격에 따라 연습실에 대해 느끼는 것이 달라요. 밴드 동아리는 음향시설이나 방음시설이 되어있어야 하고, 댄스 동아리는 바닥이나 거울이 중요하죠.

③ 교육 관련

■ 전문 강사 연결과 연결 및 강사비용지원

「서울시 공공기관 기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실태조사」 중 지원요구를 살펴보면 '공간지원'과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 그 중 '예산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강사지원'에 대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면담결과에서도 교육과 관련하여 동아리 내 고급실력자의 결여로 2~3년 차 회원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못 채우고 있어서 전문 강사 연결이나 강사료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강사지원 비용은 잘못하면 동아리의 자생성과 자발성을 잃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2030사진동아리)
2~3년 활동하셔서 초급을 수료했다고 보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이런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죠. (중략) 다른 동호회는 강사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10년, 15년 촬영 경력을 갖고 있어서 편하게 회원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르치는 것과 촬영하는 것에 대한 편차가 커요. 저희 회원 중에서도 교육에 대한 부탁을 해도 자신 없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전문 강사와의 연결이나 교육 공간 같은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과 강사 지원이 되면 일정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회원들이 많이 수강할 것 같아요.

■ 무대, 조명, 기획 등 동아리 대상 교육강좌 개설

음악, 연극, 뮤지컬 장르와 같이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의 경우 연주나 연기 외에도 다양한 스텝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여러 동아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조명, 무대, 기획 등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좌 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강좌를 개설할 때 동아리 회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저녁이나 주말시간으로 해야 한다.

(사례/직장인연극동아리)
공연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강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모두 평일 낮시간이라서 직장인들이 듣기는 힘들죠. 주말이나 평일 저녁시간에 그런 강좌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국예술위원회에서 강좌를 많이 여시는데 대상이 프로여서 저희가 참여할 수가 없더라고요.

④ 저작권 관련

■ 동아리의 연주음원 및 공연영상의 온라인 공개에 대한 문제

저작권과 관련하여 동아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동아리의 연주음원 및 공연영상의 온라인 공개에 대한 문제이다. 면담을 통해서도 뮤지컬 동아리에서 공연영상물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 소송을 걸겠다는 이야기, 금전적 요구 등으로 인해 영상물을 내린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사례/뮤지컬동아리)
저희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업로드하면, 영상을 삭제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소송을 걸겠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저작권법>[27]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27)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다만 예외적으로 청중이나 제3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단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비영리 목적의 공연을 함에 있어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공연의 출연자들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공연의 경우는 그러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저작인격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공연하지 않고 수정하여 공연함으로써 그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저작권자의 성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성명표시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동아리는 영리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시민문화예술 활동으로서 공연을 하지만 공연비용 마련을 위해 입장료를 받거나, 축제에 초청을 받을 경우 식대 및 이동비용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 제 29조의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연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유료로 지원되는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저작권법> 제 29조 단서조항은 기본적인 보수를 포함해 공연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에게는 비현실적인 활동상 제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28].

■ 저작물 사용 시 저작권 비용 부담 및 절차의 어려움

동아리가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저작물 사용 시 저작권 비용 부담 및 절차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동아리 측에서 저작권에 대해 인식하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자 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거나 연락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저작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동아리는 동아리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서 공연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저작권 비용은 활동의 제약사항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22.>.

28) 윤소영, 2010, 「동호회 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시설에 기반한 문화예술동호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16.

(사례/뮤지컬동아리)
뮤지컬 같은 경우 재미있는 작품이 있는데 제약사항이 많아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쉽사리 많이 할 수 없어서 아쉽죠. 제작사에 전화해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금전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호회 입장에서는 제약사항을 이겨내며 작품을 하기가 어렵죠.

(사례/직장인연극동아리)
우선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나마 요즘 작가협회에 전화를 하면 중간자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가입이 안 되어있는 작가들이 더욱 많더라고요. 가입이 되어있니 않은 작가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중략) 저희가 어느 정도 운영을 하려면 티켓을 5,000원 정도 책정을 하는데 티켓 비용을 받으면 공연을 못하게 하시는 작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후원금으로 받기도 하죠.

■ 저작물 관련 정보제공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은 공표된 저작물로 연습을 하거나 공연 영상물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동아리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동아리 스스로가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알기란 쉽지 않다. 동아리 활동 중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많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동아리가 겪을 수 있는 저작권법 관련 어려움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나 시에서 소유한 저작권에 대해 저작권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공유할 수 있는 공유콘텐츠 확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시민의 세금인 공공지원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해 시민문화예술 활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공공이 가진 저작권 외에도 개인 저작권자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저작권을 공유하고자 할 때 공유 창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⑤ 동아리 운영 관련

■ 동아리 운영에 대한 교육 필요

동아리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지원을 통해 매개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의 경우 자생성이 약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지원이 끊기면서 동아리가 해체되기도 한다.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매개자들이 동아리의 자생성을 키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동아리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사례/성북구 마을예술창작소)
마을예술창작소의 경우 지금까지는 동아리 활동을 전문가분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동아리 활동을 3년 하면서 독립해야 하는 단계가 되면서 고민이 많이 돼요. 회원분들은 준전문가처럼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어떻게 모으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예술가들이 너무 친절하게 도와준 것이 독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동아리의 자생성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낸 회비로 프로그램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때 생긴다. 또한 자생성을 갖춘 동아리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면담결과 동아리 분위기를 망치는 회원에 대한 관리,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과 실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들 사이에서의 갈등관리 등에 대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다.

(사례/직장인연극동아리)
항상 단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 즐기러 왔다는 분들이 있고, 연극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서로 상처가 되고, 실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에요. 우리 틈새가 연극적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목표인가, 동아리로서 즐기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동아리 운영과 관련하여 회비관리, 회원관리, 운영체계, 홍보방법, 마케팅방안, 펀드레이징 등 조직운영 노하우 매뉴얼 및 해당 분야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의

방향 또한 결과물만을 목표로 하는 지원이 아닌 동아리가 자생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동아리 홍보창구 및 활동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

면담결과 공공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홍보지원과 활동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동아리 홍보방법 교육과 함께 온오프라인의 동아리 홍보창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해당 자치구 혹은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활용하는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한 홍보창구 지원이 가능해 보인다.

(사례/미술동아리)
동아리 안에서 홍보를 한다고 할 때 동 단위, 구 단위의 효과적인, 예를 들어 관의 게시판을 활용한다던가 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사례/라틴댄스동아리)
동호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홍보가 어렵다는 거죠. 앱이 발달되어 있으니 광고를 하려고 해도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번호가 없어서 개인동호회의 이름으로는 상위에 링크를 시킬 수는 없죠.(중략) 순수 동호회는 80%가 지인소개에요. 온라인 활동(온라인 홍보)을 하기가 취약하고 쉽지가 않아요

이외에도 동아리 봉사활동이나 공공지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봉사활동이나 공공지원을 진행하거나 진행했던 동아리의 경우 개인 회원의 역량이나 인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를 가진 회원이 탈퇴할 때 정보가 없어져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대답한 동아리가 많았다.

(사례/라틴댄스동아리)
사회공헌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안도 없어서 해본 적이 없는데 만일 제안이 있다면 한번쯤 고민해 볼만 해요.

■ 공유 장비 및 공연이동 차량지원

동아리 활동 시 장비나 소품부족으로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 이에 대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와 각종 의상, 소품 등을 대여하는 공유창고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이동식 음향시설 및 빔 프로젝터 등 동아리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대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성북구 미술동아리)
동아리에 공유창고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극, 미술 등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장소, 의상, 소모품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생겨서 함께 대여할 수 있다면 더 자유로운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창고 자체가 전시 공간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⑥ 축제 및 네트워크 관련

■ 경연 방식이 아닌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

동아리 축제나 대회에서 순위를 매기는 경연 방식의 진행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동아리 활동에 순위를 매기는 것이 활동의 동기나 자신감 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우승을 위해 동아리 내에서 못 하는 사람이 배제되기도 한다. 경쟁을 과하게 부추기는 행사는 갈등의 요소가 된다. 참여자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축제 방식의 행사에 대한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사례/직장인밴드연합동아리)
전에는 직장인밴드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광명 등에서 하는 것이 있었어요. 서울시에서도 했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안 나가요. 상금이 있는 대회라서 전문적으로 상금을 노리고 대회들을 도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실력 좋은 실용음악과 팀들로 구성해서 상금만 노리고 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아서 저희 팀은 나가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순수하게 참가를 했으나, 대회에서 뽑는 심사의 기준이 잘하는 팀들 기준으로 실용음악의 레퍼토리를 따라가다 보니, 잘하는 한 팀이 여러 대회에서 모두 수상을 하더라고요. (중략) 행사 같은 경우를 경연형식으로 안했으면 좋겠어요.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 별로인 것 같아요. 차라리 페스티벌 방식으로 어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매개자 지원

동아리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기반의 동아리의 경우 매개자는 동아리와 동아리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지역성을 살린 프로그램 기획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사례/성북구 마을예술창작소)
버들잎 축제라고 있어요. 기존에 했던 축제들이 먹거리 들어오고 장기자랑 하듯 하는 행사라고 하면 이 축제는 정릉을 배경으로 하는 이성계 이야기 같은 것을 주제로 민요, 한국무용, 난타 등이 뭉쳐서 저희가 대본작업을 해서 축제 공연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중략) 정릉에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각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가 엮어서 한 편의 공연으로 만든 거죠. 이러한 축제가 있기 전에는 각자 배우고 있다가 공연을 위해서 함께 연습하는 거죠.

4_소결

1)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유형 및 일반운영 현황

서울시 공공기관 기반으로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조사결과 학습과 발표활동 중심의 '자기계발형'이 7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문화예술학습과 발표욕구가 높고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성취감 고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다. 이어 문화나눔형(13.4%), 친목도모형(10.8%), 봉사형(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기본운영 현황을 '지역기반 동아리'와 '非 지역기반 동아리'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4-27] 참고).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표 4-27]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기본운영 현황

	지역기반 동아리	非 지역기반 동아리
활동 계기	- 공공지원사업, 교육프로그램	- 공통의 취미활동을 위한 자발적 형성
활동 장소	- 공공시설 활용 - 민간공간 대여	- 자기공간 확보(회비로 임대료 충당) - 민간공간 대여
운영형태	- 회비를 통한 운영 - 공공지원	- 회비를 통한 운영
온라인 활동 목적	- 홍보 및 정보교류 수단, 오프라인 활동 보조수단, 자료축적 수단으로 활용	
회원 특성	- 40대~60대가 가장 많음(약 66%) - 20명 미만의 규모가 가장 많음(약 76%)	- 20대~40대가 가장 많음 (가입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 모임규모가 양극화되어있음 (30명 미만, 100명 이상)

2) 생활예술동아리 활동내용별 활발도와 중요도

동아리 활동내용은 학습 및 연습, 발표, 친목, 타 단체와 교류(네트워크), 사회공헌(지역축제활동 참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학습(연습)과 발표활동은 참여자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친목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장으로 특히 적극적 참여자의 경우 사회관계의 중심이 동아리 회원들로 재편되고 있었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동아리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주변과 나누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환원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으나 정보의 부재가 장애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아리 활동내용별 활발도와 중요도 부분에서 발표, 학습(연습), 친목도모 활동은 지역기반, 非 지역기반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활발하게 일어나며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었다. 하지만 축제참여, 사회공헌, 타 단체와 교류(네트워크)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기반 동아리'가 '非 지역기반 동아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동아리 활동이유와 효과

시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고, 기존 회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최근 개인

의 창의성이 중요해지고,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동아리 활동 지속이유는 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이 '개인-공동체-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발전 및 공동체의식 향상, 지역애착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非 지역기반 동아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애착도' 부분에서는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는 '창의성 향상에 도움'과 '타인의 생각 이해에 도움'을 제외한 7개의 항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8] 참고).

[표 4-28] 동아리 활동이 '개인-공동체-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

구분		내용
개인 발전	창의성 향상에 도움	-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창의성', '소통능력', '자아존중감', '행복한 삶' 향상에 도움 - 지역기반 동아리(평균 4.6점) >非 지역기반 동아리(평균 4.3점)
	소통능력 향상에 도움*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	
	행복한 삶에 도움*	
공동체 의식	타인의 생각 이해에 도움	-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타인의 생각이해', '타인과 신뢰 쌓기',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에 도움 - 지역기반 동아리(평균 4.5점) >非 지역기반 동아리(평균4.3점)
	타인과 신뢰 쌓기에 도움*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에 도움*	
지역 애착도	지역사회 내 신뢰 쌓기에 도움*	- 지역기반 동아리의 경우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지역애착도 향상에 도움 - 지역애착도 측면에서 지역기반 동아리와 非 지역기반 동아리가 큰 차이를 보임 - 지역기반 동아리(평균 4.2점) >非 지역기반 동아리(평균 3.4점)
	살기 좋은 지역조성에 도움*	
	지역에서 오래 살고 싶음*	

*통계적으로 두 집단의 차이가 의미 있음.

4)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유형에 따른 사회공헌 및 네트워크 활동 의지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는 자기계발형 동아리(72.9%)가 가장 많으며, 자기계발형 동아리의 경우 사회공헌 활동과 타 단체와 네트워크 활동의 활발도는 낮으나 활동 의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4-29] 참고). 즉 자기계발형 동아리가 문화나눔형 동아리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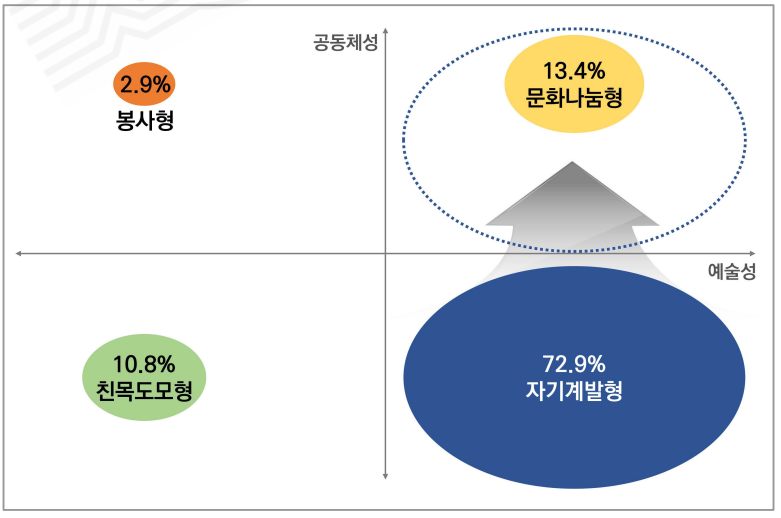
[표 4-29] 동아리 유형별 사회공헌 활동 활발도 및 의지

(5점 만점 기준)

구분	사회공헌 활동		타 단체와 네트워크 활동	
	활발도	활동 의지	활발도	활동 필요성
친목도모형	1.91점	3.53점	2.18점	3.41점
자기계발형	2.39점	4.14점	3.24점	4.06점
문화나눔형	4.04점	4.57점	3.71점	4.17점

사회공헌 활동과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활동별 장애요인을 통해 알 수 있다. 사회공헌 활동 장애요인으로는 '활동시간대가 맞지 않음(1순위)', '방법 및 장소에 대한 정보부족(2순위)'으로 나타났고, 네트워크 활동 장애요인은 '만날 기회 부족(1순위)', '비용부담(2순위)'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에서는 사회공헌과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성을 가진 동아리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정보와 연결 플랫폼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활동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지원은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사회공헌과 네트워크 활동 증대를 가져오고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4-27]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유형별 비율

05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1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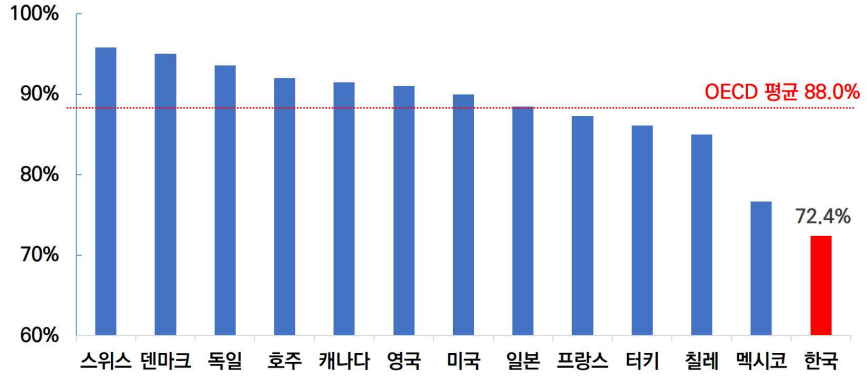
2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05 |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1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기본방향

1)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우리나라 문화정책에서 시민을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적극적 문화생산자로 인식하는 생활문화정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정책의 주요 초점 중 하나가 동아리 활성화이다. 서울시민의 문화예술동아리 참여율이 2008년 2.6%에서 2014년 5.8%로 증가하였으며, 서울문화재단 패널들의 동아리 참여욕구가 49%에 이르는 등 시민의 동아리 활동 참여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민의 참여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를 활성화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삶의 행복감을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확대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나 사회적관계 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임을 생각하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는 개인활동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적 재생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의 사회적 관계는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보고서 「2015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지지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지표인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부문에서 한국은 72.4%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준화된 점수로 보면 10점 만점에 0.2점으로 사회적 통합지표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사회적 관계는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가족,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수치화한 것으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남미 지역(터키, 칠레, 멕시코)보다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15, 「2015 OECD 사회통합지표 분석 및 시사점」.

[그림 5-1] OECD 주요국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수준(2015년 기준)

또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는 자연히 전문예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연결되어 예술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창의문화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튼튼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동아리라는 취향(趣向) 공동체가 개인의 행복과 발전 및 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은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서울시 동아리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설문조사 결과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개인의 창의성, 소통능력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9.9%를 차지했으며,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역시 91.5%를 나타냈다. 또한 공동체의식 및 지역애착도에도 각각 91%, 6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읽을 수 있었다. 서울시 내 공공문화시설들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1,329개 문화예술동아리를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구분하니, 학습과 발표활동 중심의 '자기계발형'이 72.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문화예술학습과 발표욕구가 높고 예술활동을 통한 자기성취감 고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자기계발형 동아리가 학습 및 발표욕구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봉사활동 및 지역참여활동) 욕구도 높은 유형인 문화나눔형을 지향하는 경향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즉, 사회공헌 활동 활발도가 1.91점에 불과한 자기계발형에서 사회공헌 활동 의지는 4.1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동아리들과의 교류활동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류활동이 성장의 계기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활동기회 및 관련 정보의 부족이 사회공헌과 교류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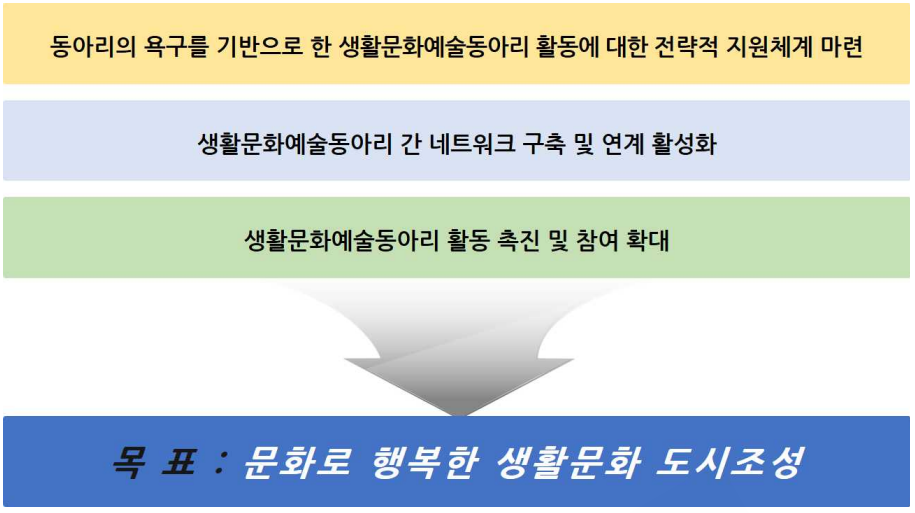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서 찾을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할지 말지의 여부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동아리 활동이 공동체 형성에 연결되는 부분은 공공정책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리에 대한 지원의 목표와 방식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섣부른 지원이 오히려 동아리의 자생성을 해칠 수도 있음은 경계해야 한다. 동아리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오히려 지원금에 대한 의존성을 높인 결과, 지원사업 종료 후에는 동아리가 와해되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리 지원정책은 동아리의 자생성을 전제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실태와 욕구 조사에 기초하여 동아리 활동을 촉진하고 참여를 확대하되, 개별 동아리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아니라, 동아리의 활동기반 구축 및 동아리 간 관계, 즉 네트워크 지원에 기초하는 전략적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의 목표와 과제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는 서울시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생활문화공동체는 생활문화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말한다. 즉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감을 높이고 생활문화예술생태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문화로 행복한 생활문화도시 조성>을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정책의 목표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동아리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촉진 및 참여 확대, 생활문화예술동아리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달성된다.



[그림 5-2]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정책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자생적 기반 강화', '동아리의 활동 환경 조성', '공공지원시스템 구축' 등 3대 추진방향 및 10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동아리 실태와 욕구조사 등을 종합하여 동아리 지원의 원칙으로 자생성, 간접지원,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 등 3대 원칙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리의 자생성 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동아리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스템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아리의 개별 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동아리와 동아리를 연결하는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유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매개자 양성, 공유플랫폼 구축, 서울시 생활문화축제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동아리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동아리의 활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동아리 조사에 따르면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는 공간 및 장비 등에 대한 요구가 핵심적이므로, 동아리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문화 인프라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공간 및 장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민생활문화예술공간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 '동아리발표주간' 등 발표공간 확대, 장비공유창고 운영 등이

있다.

셋째, 동아리 자생성 기반 강화 및 활동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생활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밀착형 활동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적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시는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여건 조성을 하고 자치구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5개 구를 엮는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네트워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매개인력양성 기반구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 그것이다. 자치구는 생활권 단위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발굴 및 활동 지원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원내용으로는 공간 및 장비 공유, 자치구 내 소규모 발표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자치구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 생활문화정책수립 및 시행 등이 있다.

한편, 엄밀한 의미에서 주민의 일상생활권이 자치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가 지역적 기반 구축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행정체계의 구조를 고려하여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할을 제시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며,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집 등 지역 내 다양한 공공 문화기관들의 네트워크 및 민간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생활권 내 지원시스템 구축은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림 5-3]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과제

2_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1) 자생성 기반 강화

(1) 동아리의 자발성과 자생력 성장을 돕는 매개자(퍼실리테이터) 양성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정책 방향은 동아리 간 네트워크 형성이다.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동아리연합회 형태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역량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아리 네트워크 형성은 동아리 리더 등의 개인적 관심과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동아리의 자생성 확립방향이나 사회적 자본 차원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한 활동을 촉발할 수 있는 중간자가 필요하다. 이들을 매개자(퍼실리테이터)라고 하며, 문화예술사업에서 매개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매개자의 역할은 동아리와 네트워크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된다. 우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동아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동아리들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을 교육하고 이끌어야 한다. 실제로 인터뷰 과정에서 동아리 회원들이 조직운영이나 회계 등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 “동아리를 자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문제는 혜택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죠. 혜택이 익숙해질수록 자생력은 없어지거든요.” (성북구 동아리 인터뷰 내용 중)

매개자들은 또한 동아리 간 교류활동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한 곳들과 동아리 발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동아리의 발표욕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공동체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다양한 동아리들이 조를 이루어 지역사회 봉사 공연과 공헌활동 등을 직접 기획하고 발표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동아리의 네트워크 강화와 역량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동

아리들을 엮고 공헌활동과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즉 매개자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역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개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에 대한 정보, 개별 동아리들의 욕구 파악, 지역사회 내에 동아리들이 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 사회공헌 활동이 필요한 장소와 내용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구로문화재단에서 동아리를 소개하는 책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동아리 정보를 모으고 모아진 정보를 통해 발전시키는 것이 공공의 역할인 것 같아요. 동아리 발전에 대해 동아리 스스로가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 기획자분들이 따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로구 동아리 인터뷰 내용 중)

매개자를 발굴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교육과정 및 지역 간 매개자 교류 지원이 필요하다. 매개자는 일차적으로는 마을예술창작소나 커뮤니티공간 운영자, 기타 문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관련 매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굴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내에서 매개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개자들의 성장은 교육뿐만 아니라 매개자 간 교류를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 성과와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서로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으로 동아리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북의 생활문화정책을 살펴보면 사업 초기에는 사업의 방향과 현지 활동 내용을 집담회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방식의 교육을 유지하였으나, 관에서 이러한 활동을 중단시키고 주로 관의 지침을 내려 사업성과를 올리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사업의 활력을 잃었다." (전문가 자문내용 중)

(2) 공유플랫폼 구축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자치구에서는 관련

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공유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동아리 연습 및 발표공간 정보 공유, 활동(행사, 봉사, 공공지원 등) 정보 공유, 동아리 소개 및 홍보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동아리 연습 및 발표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습공간 예약시스템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 동아리들과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발표공간의 확보이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지만, 시설별로 대관 심사기간 및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관을 위해서는 시설별로 일일이 접촉하여 대관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 따라서 <발표·전시공간 정보코너>를 설치하여 서울시 내 공공 공연장 또는 전시장의 대관 정보, 즉 대관 시설의 규모와 설비, 대관절차, 연락처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아리의 장르나 규모, 운영기간에 따라 원하는 시설의 종류도 달라지므로 맞춤형 정보 검색도 가능해야 한다.

발표공간과 함께 적절한 연습공간에 대한 수요도 높다. 따라서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민간공간 정보 및 예약시스템 역시 요구된다. 현재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포탈>에서 지역별로 시설 검색 및 대관이 가능하나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 등)에 한정되어 있어 시설 정보가 다양하지 않고, 공간유형별 시설 검색이 어려워 동아리별 특성에 적합한 공간인지 알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 자치구는 지역 내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자원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연습공간별로 규모, 위치, 가능한 활동, 설비, 대관가능 시간 및 이용료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동아리별 특성에 맞는 공간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성북의 경우 연습공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어서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서로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공간활용도가 높아요." (성북구 동아리 인터뷰 내용 중)

둘째,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또는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아리 조사 결과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사회공헌 활동 의지가 높지만, 정보를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동아리 유형의 70% 이상이 자기계발형에 속하고 있으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아 문화나눔형을 지향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요인 중 하나로 방법 및 장소에 대한 정보부족을 들고 있어,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플랫폼에서는 봉사활동(공연, 전시, 참여)이 필요한 기관의 정보,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 및 행사 정보 등을 동아리들이 지역별로 검색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공헌의지가 있는 동아리들이 자신들에 대한 소개와 공헌가능 활동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사례/영국 자발적예술 네트워크 웹사이트)
VAN의 웹사이트에서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예술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예술 행사 및 그룹, 자원 활동봉사, 구직 기회 등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된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다양한 기회를 검색할 수 있다.

셋째, 동아리 소개 및 홍보게시판을 운영한다. 동아리 인터뷰에 따르면, 동아리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회원 확보가 관건인데 대부분 지인소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유명 포털사이트들의 경우 검색할 때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동아리들로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별, 장르별 동아리 소개 및 홍보 게시판을 운영하면, 동아리 간 정보교류 및 신규회원 유입 창구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동아리들의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활용될 수 있다.

넷째, 동아리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동아리에 따라 무대, 조명, 기획 등의 전문강좌나 조직관리, 경영 등의 운영교육강좌 요구가 있다. 이러한 강좌는 개별 동아리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공유플랫폼에서 동아리가 특정 강좌 개설을 요청하고 필수 수강인원이 모이면 이를 교육프로그램과 매칭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서울시 생활문화축제 활성화

축제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들의 작품이나 활동과 비교해보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 자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아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축제이다.

"극단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타 극단의 활동을 보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극단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극단끼리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연극 동아리 인터뷰 중)

"동아리 회원 분들이 '성미산 마을극장'과 교류하다 보니, 그분들이 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조금씩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네트워킹이죠." (성북구 동아리 인터뷰 중)

자치구 차원에서는 각자의 역량에 맞추어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한다. 처음부터 생활문화예술 전반을 망라할 필요는 없으며, 자치구 내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부터 출발하여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동아리 회원들의 자발적 기획과 참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연 방식, 기량 중심의 보여주기식 축제는 이미 실패한 방식이라는 것이 중론으로,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인천 문화바람의 '끼가번쩍시민문화예술축제'나 서울시 생활문화오케스트라축제는 관 주도가 아니라 참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논의를 촉발하고 생활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등 매개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장르별로 구성되는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장르기반 문화공동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장르별 축제라고는 하지만 그 기반은 각 자치구에서 성장한 지역기반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이다. 이들 동아리가 장르별로 모여서 소통하는 기회를 서울시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기반 동아리 외에 非 지역기반 동아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방하여, 지역기반 및 非 지역기반

동아리 간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문화축제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축제는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축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축제 초기 준비단계에서 세종문화회관은 시민 오케스트라 단체들을 모아 자리를 마련하여 워크숍과 토론을 통해 축제의 방향을 확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사례/인천 문화바람 '끼가번쩍 시민문화예술축제')
관 주도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문화바람의 동아리 연합회에서 동아리별로 2명씩 축제 스텝을 뽑아 축제준비위원회를 꾸린다. 축제준비위원회는 축제 기획부터 예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축제는 이전에 준비를 했던 회원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문화바람 매개자는 동아리 회원들의 논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한다. 자체비용 위주로 진행되고, 축제는 문화바람 회원을 주축으로 지역 내 타 동호회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다.

이처럼 동아리 축제는 결과보다는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축제 평가체계 역시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기존 축제 평가지표가 정량평가(관객 수, 참여동아리 수, 공급자 중심의 만족도 평가 등)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다면, 생활문화예술축제의 경우 참여자들의 참여과정, 민주적 의사소통과정, 참여를 통한 변화 등 추진과정에 대한 정성적 지표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도 생활문화 지표를 위한 정책 및 측정 틀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화지표에 대한 질문 방향이 기관의 만족도에 그치는 질문이거나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을 평가하거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급자의 관점이 아닌 지역과 참여자의 시각에서 '행복'의 체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2) 활동환경 조성

(1) 주민생활문화예술공간 지원

동아리 설문조사 결과 연습 및 모임공간에 대한 공공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일상생활권 내에서 동아리의 활동목적에 맞는 공간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체부동 지역 성결교회를 매입하여 이를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 생활예술오케스트라 연습실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지역 내 공공 유휴공간 중 주민의 생활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민과 동아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자치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지역 내 공공 유휴공간 조사를 통해 동아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아리 성격에 따라 연습실의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밴드 동아리는 음향시설이나 방음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 반면, 댄스 동아리는 바닥이나 거울이 중요하다. 따라서 또한 이를 공유플랫폼에 공간의 규모와 특성 등을 함께 등재하여 맞춤형 공간 활용에 기여하도록 한다.

(사례/서울시 체부동 지역 성결교회 매입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
설립된 지 85년 된 체부동 성결교회건물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교회 본당과 한옥 내부를 리모델링해 2017년 상반기쯤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체부동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본당은 시민 생활오케스트라의 공연·연습실로, 한옥은 마을카페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자료: 경향신문, 2016년 4월 21일자, "85년 역사의 서촌 지킴이 '체부동교회' 서울인수 '시민오케스트라' 무대로"

(2)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사업 추진

생활문화지원센터는 동아리 연습공간 조성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의미한다. 앞서 제시한 주민생활문화예술공간이 생활권형 생활문화 인프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활문화지원센터는 권역형 생활문화 인프라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거점형 모델에 해당한다.

(사례/중앙정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유휴공간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 지원))
- 추진배경: 생활문화영역의 활성화와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증대
- 조성방향: 신규건립이 아닌 지역 내 유휴공간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
- 조성유형: 입지·규모·기능에 따라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
- 공간구성: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기본 및 특화시설을 중심으로 구성
- 지원방식: 지자체 자본보조(해당 지자체 70% 이상 매칭)

권역형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유휴공간 또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의 문화예술회관 또는 구민회관을 생활문화지원센터로 개편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문화의집, 문화원 등 기존 문화시설들과의 유기적 연계도 생각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15개의 생활문화지원센터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 권역형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예술장비(악기 등) 대여, 대규모 발표공간 제공, 주민생활문화예술공간 등의 리모델링을 위한 컨설팅, 동아리 활동정보 제공, 강사파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의 허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운영방식 역시 시민주도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많은 생활문화시설들이 시민주도형 방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일본 가나자와시의 시민예술촌은 시민디렉터들이 직접 시설 활성화 전략 및 사업계획, 이용자들의 시설이용 편의 지원과 지역사회 내 관계 형성 등 시민예술촌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3) 발표공간 확대('동아리 발표주간')

동아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적절한' 발표공간의 확보이다. 동아리 활동이 무르익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무대에서 발표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 또한 발표의 기회는 동아리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 차원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공연이나 전시활동이 동반되는 동아리들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은 대관료가 너무 비싸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아마추어 공연에 대관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취미생활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이므로 주로

주말에 공연을 하게 되는데, 구민회관 등 공공문화시설은 주말에 쉬는 경우가 많아서 대관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다. 시설마다 대관 신청기간이 달라서, 막상 대관을 하려고 보면 대관 신청시기가 지나있는 경우도 있다.

공공문화시설에서 동아리들이 발표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동아리 발표주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시 전체 공공문화시설에 1~2주일 정도를 동아리 발표주간으로 지정하여 동아리들에게 일괄 공지하는 것이다. 참여 동아리들에게는 대관비용 할인 및 우선 대관 권리를 제공한다. 겨울철 등 비수기를 택하면 공연시설들로서도 이익이고, 동아리들로서는 미리 일정을 알고 준비할 수가 있다.

(4) 장비공유창고 운영

동아리의 활동 장르에 따라 의상, 소품, 음향장비 등 다양한 장비들이 요구된다. 대부분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고는 있지만, 고가 장비로 공연 때만 필요하다거나, 평소에 가지고 다니기에는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무대장치나 소품, 의상 등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별 생활문화 거점공간에 공연, 전시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들을 보유하고 필요 시 대여할 수 있는 장비공유창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권역형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조성된다면, 이곳에 장비공유창고를 함께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지원시스템 구축

(1) 자치구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 지원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6년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까지는 25개 자치구에 모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모델은 1단계(태동기), 2단계(도약기), 3단계(성숙기)의 3단계로 나누어지며, 단계마다 공간활성화(거점 형성), 지역·동네(이야기/콘텐츠 확보), 축제(문화지도), 거버넌스(행정지원) 등의 항목이 세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예를 들면 1단계보다 3단계에 해당하는 자치구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

고자 하는 평가 기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항목별 현황 진단을 통해 각 자치구가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발전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격의 모델이다. 따라서 각 자치구는 거점, 콘텐츠, 문화지도, 행정지원 등의 수준을 평가하고 각 항목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계	1단계 (태동기)	2단계 (도약기)	3단계 (성숙기)
방 향	지역 문화자원 실태조사 주민 참여 기획/설계	행정과 파트너십 만들기 시민 대표성 구조 가동	기획, 재정, 집행, 평가 능력 지속가능 한 자립구조 만들기 타 지역과 연대사업
항목	공간활성화 (거점)	지역·동네 (이야기/콘텐츠)	축제 (문화지도)	거버넌스 (행정지원)

[그림 5-4] 서울시 지역기반 동아리 발전모델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자치구별로 (가칭)“생활문화예술동아리 협의체”와 같이 동아리 참여자들이 만들어나가는 주체적 운영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내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지역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관이 하향식 설계로 주도한 경우는 대부분이 경직적 운영과 네트워크 비활성화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관 주도의 사업추진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매개자, 동아리 활동가(대표), 지역예술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 협의 구조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다. 지역활동가와 시민들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구와 지역문화재단은 행정적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서울시 차원에서는 자치구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생활문화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로 이루어진 컨설턴트 구성을 통해 자치구별 전담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사업 설계 자문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간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교류를 통한 효과적 사업 추진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

지역문화진흥법(2014.1.28) 제정을 통해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이 법제화되었으며, 서울시 역시 「2030 서울문화플랜」(2016.6)을 통해 문화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명시하였다. 또한 생활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생활문화예술 진흥조례>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공포 예정이다(조례안은 [부록 2] 참고). 이 조례는 동아리와 시민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제도화되는 기반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조례 제정과 함께 생활문화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기구인 (가칭) "생활문화지원단"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 기구는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생활문화지원센터의 확충과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연구 개발하고 실행하는 기능도 수행하도록 한다. 실제 사업 집행기구의 성격이 강하므로, 서울문화재단 내에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생활문화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시행

생활문화활성화정책의 효과 및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지원사업 모니터링은 컨설턴트단을 운영하여 사업방향 설계 및 모니터링, 현장자문, 점검, 평가결과 환류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결과는 지원사업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다음 연도 지원사업 내용에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 참여자들의 변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과정, 민주적 의사소통 과정, 참여를 통한 변화 등 추진과정에 대한 지표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한편 현재 생활문화활성화 정책은 생활예술동아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생활

문화의 범위는 생활예술뿐만 아니라 생활기술과 생활교류 등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활문화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생활문화진흥 차원의 실행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여러 차원의 행정단위들과 지역 민간주체들과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토대로 사업역량 강화를 돕는 지원정책 방향 수립을 모색하여야 한다.

4) 단계별 추진계획과 역할분담

2017년까지는 사업준비기, 2020년까지는 기반형성기, 2025년까지는 1차 목표 달성기로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하였다. 사업준비기는 자치구별 실태조사, 자치구 대상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 사업 설계, 매개자 발굴 및 양성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기반형성기는 생활문화공간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확대, 발표공간 확대, 공유시스템 구축 등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확대하는 시기이다. 1차 목표 달성기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가 2배로 확대되고 시민주도형 동아리 축제가 정착되는 시기로, 새로운 단계의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기본계획을 재구성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5]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와 관련된 공공 추진 주체는 서울시, 서울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단), 자치구 등이 있다. 주체별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구분해 보면, 서울시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서울문화재단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사업 설계와 실행, 자치구는 동아리 발굴 및 운영 지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는 조례제정 등 기반 조성,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 추진,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 추진, 공유플랫폼 기반 구축,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생활문화 지표체계 구축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서울문화재단(생활문화지원단)은 매개자 양성 및 교류 지원, 자문단 구성 및 컨설팅 사업 추진, 서울시 생활문화축제 개최, 공유플랫폼 운영 및 관리, 지역 간·장르 간 네트워크 지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동아리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향을 이끌고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치구는 생활권과 밀착하여 실제 동아리를 발굴하고 이들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아리 지속 발굴 및 욕구조사, 지역 내 동아리 네트워크 지원, 주민생활문화공간 발굴, 장비공유 시스템 구축, 주민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윤주, 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강윤주, 2014, “생활예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시민성, 지역성, 예술성”,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문화재단, 201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

경기문화재단, 2016, 「경기도 생활문화지표를 위한 정책 및 측정 틀 연구」.

김소영, 2010, 「‘지역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 기초자치구 문예회관 활성화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인설, 2015,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합의, 그리고 정책적 과제」, 웹진아르코.

김찬동,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pp.1~33.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2a,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2b,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민인철, 2013, 「포커스13호_시민들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박승현, 2016, “서울시 문화공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서문연을 중심으로”, 「서울시 문화공간 네트워크 그리기: 서울시 문화정책의 지역화 자료집」, 서울문화재단, pp.27~40.

백선혜, 2011, 「서울시 공공 공연장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2013, 「직장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

서순복, 2007,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8(3), pp.23~44.

서울문화재단, 2014a, 「서울시민예술대학 모델 및 운영체계 연구」.

서울문화재단, 2014b,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문화재단, 2014c, 「2014 서울시민 문화예술향유실태조사」.

서울문화재단, 2014d, 「서울문화재단의 10년으로 보는 서울문화와 문화정책 10년」.

서울문화재단, 2015, 「서울시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문화동호회 중심으로-」.

심보선·강윤주, 2010,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의 유형 및 사회적 기능 분석: 성남시 문화클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87, pp.134-171.

안성아, 2006,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성남문화재단.

윤소영, 2010, 「동호회 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시설에 기반한 문화예술동호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명우·홍윤미·윤기웅, 2016, "여가 활동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여가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0(2), pp.266~289.

전상진, 2010, "나눔문화를 통한 세대 통합, 세대 통합을 위한 문화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공정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 세미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전수환, 2011, "영국의 VAN을 소개합니다", 「플랫폼」, 인천문화재단.

전북발전연구원, 2015,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조광호, 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 2012, 「문화 동호회를 활용한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 2014,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채은석, 2016, "한국의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현황", 「세계생활예술오케스트라 포럼」, 세종문화회관.

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초중고 동아리 활동과 행복지수의 국제 비교 연구결과」.

한상우·이은진, 2011, 「경남의 주민참여, 주도형 문화예술 활동 육성지원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Simpson, Robin, 2009, Voluntary and amateur arts in the United Kingdom, 「세계문화클럽포럼자료집」 성남문화재단.

衛 紀生, 2007, "金沢市民芸術村での十年間を振り返って", 가나자와문화창조센터 에세이 칼럼(http://www.kpac.or.jp/kantyou/essay_14.html).

大場吉美, 2007, "金沢市民芸術村、そして金沢市の文化戦略とその意味 - 文化の重層的未来を志向する元気な街づくり", NIRA Case Study Series No.2007-06-AA-7.

津田純佳,, 2008, "地域文化による内発的まちづくりの持続可能性について", 弘前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教科教育専攻.

赤松はな·深沢祐一·菅野幸子·張ジヨン·中村美帆, 2009, 文化施設における市民協働のかたち : 金沢市民

芸術村を事例に, **日本文化政策学会 2009年度研究大会 発表資料.**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Arts Council England, 2008, 「Our Creative Talent: the voluntary and amateur arts in England」.

Voluntary Arts Network, 2015a, Briefing “How to get involved in Voluntary Arts Week”.

Voluntary Arts Network, 2015b, Briefing “Finding a new venue - some ideas”.

Voluntary Arts Week, 2014, Briefing “A guide for venues”.

http://www.artvillage.gr.jp/(가나자와 시민예술촌 홈페이지).

http://culture4all.ggcf.kr/(경기생활문화포털 매생이 홈페이지).

http://epicawards.co.uk/(Epic Awards 웹사이트).

http://www.familyarts.co.uk(가족 예술 캠페인 웹사이트).

http://www.voluntaryarts.org(자발적 예술 네트워크 웹사이트).

http://voluntaryartsweek.org(자발적 예술 주간 웹사이트).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부록 1

설문지

ID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동실태 조사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서울의 사회 · 경제 · 문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와 관련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정책개발을 선도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각 동아리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답변하신 내용은 이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통계법 33조(비밀보호)에 의해 보호됩니다. 본 설문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16년 8월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연구책임 : 백선혜 연구위원
◦ 문의 : 조윤정 연구원 ☎ 02)2149-1138

A. 동아리 일반현황

A1. 귀하의 동아리가 속하는 유형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① 지역기반 동아리　　② 비(非) 지역기반 동아리

유형	내용
지역기반 동아리형	- 회원의 대부분이 동일지역에(예: 동일자치구 혹은 동일생활권) 거주하는 경우 - 결성계기가 특정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 - 지역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거나 연계활동을 하는 경우 - 이외 동아리 활동이 지역과 연계한 활동을 추구하는 경우 등
비(非) 지역기반 동아리형	- 회원거주지나 활동에 있어 특별히 지역과 연계된 활동이 없는 경우

A2. 귀하는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① 운영진(현재 또는 이전)　　② 일반회원　　③ 강사　　④ 기타(　　)

A3. 동아리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해당사항에 체크 후, 괄호 안에 구체적 분야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유형	내용	구체적 분야
① 음악	음악감상, 노래교실, 악기연주, 국악, 민요, 풍물 등	
②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리댄스, 방송댄스, 라틴댄스, 브레이크댄스 등	
③ 문학	글쓰기, 독서, 독서토론, 책읽어주기 등	
④ 미술	서예, 서양화 동양화, 사군자, 스텐실, 만화 등	
⑤ 사진	사진촬영 등	
⑥ 연극	연극, 인형극, 뮤지컬 등	
⑦ 영화	영화제작, 영화평론, 영화보기 등	
⑧ 공예	한지공예, 리본공예, 목공예, 종이접기 등	
⑨ 기타		

A4. 동아리가 결성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기관 프로그램(문화강좌 및 교육) 이수 후(예: 문화교실 수료생)

② 종교기관 내 모임(예: 교회, 성당, 절 등 신도모임)

③ 지역주민들의 모임(예: 지역주민모임, 부녀회 모임 등)

④ 직장 및 학교 내 모임(예: 사내 소모임, 학교 소모임)

⑤ 전문가 모임(예: 예총, 민예총, 학원 등 전문가 모임)

⑥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예: 온라인 카페 및 SNS활동에서 시작한 모임)

⑦ 기존 동아리에서 독립

⑧ 특정 기관과 관계없이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한 자발적 모임
⑨ 기타(　　)

A5. 동아리 활동을 위한 운영비를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① 정기적 회비납부　② 비정기적 회비납부(모임에 참석한 사람에 한하여 등)
③ 강습비 중 일부 운영비로 활용　④ 별도 회비없음
⑤ 기타(　　)

A6. 오프라인 모임을 주로 어디서 개최하십니까?
① 상업시설(카페, 식당 등)　② 문화시설(구민회관, 문예회관 등)
③ 관공서(주민자치센터, 구청 등)　④ 종교기관
⑤ 학교　⑥ 도서관
⑦ 개인 공간(집, 작업실, 매장 등)　⑧ 민간 연습실 및 작업실 공간
⑨ 동아리 자체 연습공간 보유　⑩ 고정된 장소 없음
⑪ 기타장소

B. 동아리 활동현황 및 목적

B1. 귀하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활발도와 중요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보시고 활발도와 중요도에 각각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활발도				항목	중요도			
전혀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은 편	활발한 편	매우 활발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	중요한 편	매우 중요하다
1	2	3	4	1) 발표 및 행사활동(예: 발표회, 전시회 등)	1	2	3	4
1	2	3	4	2) 친목도모 활동(뒤풀이, MT, 체육대회 등)	1	2	3	4
1	2	3	4	3) 정보교류, 지식교환 활동	1	2	3	4
1	2	3	4	4) 지역행사, 축제 참여	1	2	3	4
1	2	3	4	5)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1	2	3	4
1	2	3	4	6) 학습 및 연습활동	1	2	3	4
1	2	3	4	7) 타 동아리 혹은 지역단체와 교류	1	2	3	4

B2. 귀하께서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순위별로 하나씩 선택)

유형	1순위	2순위
① 회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②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싶어서		
③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④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⑤ 새로운 것에 대해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⑥ 관심 분야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⑦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서		
⑧ 봉사활동이나 공동체(지역사회)에 관심이 있어서		
⑨ 기타		

C. 동아리 온라인 활동 관련

C1.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동아리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2번 답변 시 14번으로 이동)

① 온라인 ② 오프라인 ③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C2. 귀하의 동아리 온라인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동아리 활동 관련 홍보 및 정보교류수단으로 사용한다.	1	2	3	4	5
2) 신입회원 모집을 위한 창구수단으로 사용한다.	1	2	3	4	5
3) 친목을 위한 소통수단으로 사용한다.	1	2	3	4	5
4) 동아리 활동 자료축적의 공간으로 사용한다.	1	2	3	4	5
5)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활동을 돕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1	2	3	4	5

D. 사회공헌 활동 관련

D1. 귀하의 동아리 활동 중 사회공헌 활동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동아리 활동으로 지역행사나 축제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	1	2	3	4	5
2) 발표 및 전시, 교육 등 동아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1	2	3	4	5
3)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1	2	3	4	5

D2. 귀하의 동아리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거나 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회공헌 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2) 사회공헌 할 수 있는 시간대와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맞지 않다.	1	2	3	4	5
3)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다.	1	2	3	4	5
4)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회원들 간 의견차이가 커서 진행하기 힘들다.	1	2	3	4	5
5) 사회공헌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1	2	3	4	5

E. 네트워크(교류) 활동 관련

E1. 타 동아리 혹은 지역단체와 교류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타 동아리 혹은 지역단체와 교류는 우리 동아리를 발전시킬 것이다.	1	2	3	4	5
2) 타 동아리 혹은 지역단체와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알게 되면 좋을 것이다.	1	2	3	4	5
3) 타 동아리 혹은 지역단체와 교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1	2	3	4	5

E2. 귀하의 동아리가 교류활동을 진행하거나, 진행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타 동아리 혹은 지역단체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1	2	3	4	5
2) 타 동아리 혹은 지역단체와 만날 시간의 여유가 없다.	1	2	3	4	5
3) 교류 활동에 대한 회원들 간 의견차이가 커서 진행하기 힘들다.	1	2	3	4	5
4) 교류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1	2	3	4	5

F. 동아리 활동이 '개인-공동체의식-지역애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F1. 다음은 동아리 활동이 개인 삶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동아리 활동은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2) 동아리 활동은 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동아리 활동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4) 동아리 활동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F2. 다음은 동아리 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동아리 활동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2) 동아리 활동은 타인과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동아리 활동은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F3. 다음은 동아리 활동이 지역 애착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보시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동아리 활동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2) 동아리 활동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3) 동아리 활동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오래 살고 싶도록 한다.	1	2	3	4	5

G. 동아리 지원 관련

G1. 동아리 지원에서 우선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골라 순위별로 하나씩 표시해주십시오

유형	1순위	2순위	3순위
1) 연습 및 모임에 필요한 공간			
2) 공연장 및 전시장 등 발표장소 제공			
3) 학습 및 강습 관련 전문가 연결(전문지도자나 상담자)			
4) 동아리의 참여가 가능한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및 개발			
5) 동아리 홍보의 장 제공(온·오프라인 홍보창구 제공)			
6) 동아리 운영 관련 교육 및 상담자 연결(회원관리, 마케팅방법, 동아리 활성화 방안 등)			
7) 타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8) 동아리 활동 관련 부수적 장비 대여			
9) 예산(예산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기입)			

G2. 서울시 동아리 활성화 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 수행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주관식)

H. 인구통계 관련

H1. 성별	① 남 ② 여
H2. 연령	① 10대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H3. 기혼여부	① 예 ② 아니오
H4. 자녀여부	① 있음 ② 없음
H5. 학력	① 초등학교~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재학, 중퇴 포함) ③ 대학원 졸업(재학 중퇴 포함)
H6. 월소득	① 소득 없음 ② 100만 원 미만 ③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④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⑤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⑥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⑦ 500만 원 이상
H7. 거주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인천·경기 그 외 지역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부록 2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69호, 2017.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시설, 동아리,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2.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단체, 동아리 등의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5.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제3항의 사업 중 그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생활문화 진흥 관련 교육·홍보·전파
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장비 등의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우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검사·보고 등)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369호,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bstract

Policy Suggestions for Invigorating Living Cultural Art Clubs in Seoul

Seonhae Baik · Do-Sam Na · Yun-Jung Ch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activities and needs of living cultural art clubs, active in Seoul,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nvigoration to allow them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local cultural community while maintaining their autogenous ability.

To understand the activities and needs of living cultural art clubs',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living cultural art clubs that are active in providing public cultural facilities in Seoul and we performed surveys and interview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We classified the types of 1,329 cultural art clubs, active in providing public cultural facilities in Seoul,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nature and the classification turned out to be culture-sharing-oriented, self-development-oriented, friendship cultivation-oriented, and voluntary-work-oriented depending on whether they were artistry-centered (learning, presentation) or community-centered (exchange, social contribution). Above all, cultural art clubs in Seoul turned out to be highly 'self-development-oriented', with a large proportion of 72.9%, which indicated high desire for culture and arts learning and presentation and suggested boosting a sense of self-achievement through artistic activities as an important element. However, clubs with self-development-oriented nature showed a higher level of participation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nd they clearly aimed

for culture-sharing activities where there was an active exchange with other clubs. Nevertheless, lack of opportunity to perform social contribution and network activities as well as lack of information served as an obstacle for these clubs.

We selected 3 directions, which included 'enhancement of the autogenous foundation', 'creation of an environment for clubs to perform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public supporting system' as the direction to support invigoration of living cultural art clubs, and 10 main tasks to be performed by integrating precedent researches and domestic/overseas cases, research on the current condition of clubs and their desire, and any other such data.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ly, we need to strengthen the autogenous foundation of clubs. This requires construction of a system that allows the clubs to grow and develop themselves and it can be achieved by forming a living cultural community network that connects clubs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upport for clubs' individual activities only. Tasks required to achieve this goal include cultivation of intermediaries, construction of a sharing platform, hosting of a living cultural festival in Seoul, and so on.

Secondly, w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the clubs to be active so as to help expand their activities. According to a club research, the demand for space and equipment is a key factor for invigorating club activities and thus we need to construct a system to continue discovering local cultural infrastructure which can serve as the base of club activities and to share space and equipment. Tasks required to fulfill such a goal include provision of space for residents to perform living culture and art-based activities, development of a project for building a living cultural support center, expansion of the presentation space for 'club presentation week' and so on, and management of a warehouse for sharing equipment.

Thirdly, we need to construct a public supporting system to strengthen the clubs' autogenous foundation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their activities. Since living culture and arts are highly local activities that take place inside a living zone, constructing the local foundation is exceptionally important. The city must create political conditions to help invigorate living culture and support autonomous district's business. Arrangement and hosting a living cultural festival that connects 25 districts, enactment of living culture promotion ordinance, and construction of an activity network for living cultural art clubs,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and the foundation for cultivating mediator manpower can be included in the above plan. Autonomous districts must support the discovery of living cultural art clubs and their activities inside a living zone and such support can include sharing space and equipment and small presentation activities inside the districts. Tasks for constructing a public supporting system include support for invigoration of living cultural art clubs in a district, establishment of living culture promotion ordinance, and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a living cultural policy.

Contents

01 Overview of the Research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2_Content and Method of the Research

02 Need of Support for Living Cultural Art Clubs

1_Emergence of Living Culture and Arts as an Important Issue for Cultural Policy

2_Living Cultural Art Clubs' Roles

3_Types and Nature of Living Cultural Art Clubs

03 Policy for Supporting Living Cultural Art Clubs in and Outside of Korea

1_Policy for Supporting Living Culture and Arts in Korea

2_Policy for Supporting Living Culture and Arts Overseas

3_Interim Conclusion

04 Actual State of the Operation of Living Cultural Art Clubs in Seoul and their Desire

1_Current State of the Basic Operation of Living Cultural Art Clubs in Seoul

2_Awareness and Desire of Living Cultural Art Clubs in Seoul (Survey)

3_Awareness and Desire of Living Cultural Art Clubs In Seoul (Interview)

4_Interim Conclusion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05 Plans for Invigorating Living Cultural Art Clubs in Seoul

1_The Basic Direction of Invigorating Living Cultural Art Clubs in Seoul

2_Tasks Required for Invigorating Living Cultural Art Clubs in Seoul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연 2016-PR-19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6년 10월 30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179-8 93330 10,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